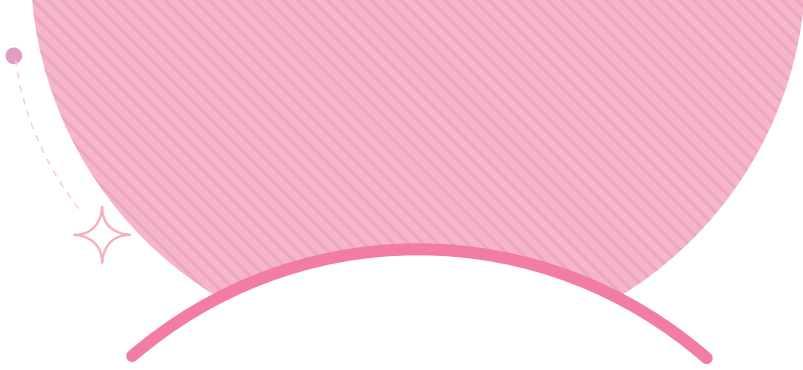




정답과 해설



본문	02
부록	50

I 음운

DAY 01 음운 체계 ①

본문 013~015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세기 (2) 센입천장 (3) 비음, 유음

- (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발음할 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는 음절이다.
(2) ‘물’과 ‘불’처럼 자음 하나가 달라지거나, ‘물’과 ‘말’처럼 모음 하나가 달라져도 말의 뜻이 달라진다.
(3)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목, 입, 혀 등 발음 기관의 방해로 받아 나는 소리이다.
- (1) 자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분류된다.
(2) ‘스, 썸, 츠’는 혀바닥과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사이에서 나는 센입천장소리이다.
(3)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비음이고, 혀끝을 윗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유음이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1) [노래] → ㄴ, ㄹ, ㄷ, ㄴ, 4개 (2) [마음] → ㅁ, ㅏ, ㅡ, ㅁ, 4개
2 모범 3 (1) ㉠ (2) ㉡ (3) ㉢ (4) ㉣

- (1) ‘노래[노래]’는 ‘ㄴ, ㄹ, ㄷ, ㄴ’로, 4개의 음운이 사용되었다.
(2) ‘마음[마음]’은 ‘ㅁ, ㅏ, ㅡ, ㅁ’으로, 4개의 음운이 사용되었다. 이때 소리마디의 첫소리에 오는 ‘ㅇ’은 소릿값이 없으므로 ‘음’의 ‘ㅇ’은 세지 않는다.
- 두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며 나는 자음은 입술소리로, ‘ㅁ, ㅂ, ㅃ, ㅍ’이 있으며, 입술소리만 쓰인 단어는 ‘모범’이다. ‘국어’의 ‘ㄱ’은 여린입천장소리, ‘문법’의 ‘ㄴ’과 ‘바람’의 ‘ㄹ’은 잇몸소리, ‘하늘’의 ‘ㅎ’은 목청소리이다.
- (1) ‘ㄷ, ㅂ, ㅍ’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인 파열음이다.
(2) ‘ㄴ, ㅇ’은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비음이다.
(3) ‘스, 츠’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인 파찰음이다.
(4) ‘스, ㅎ’은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인 마찰음이다.

기본 다지기

01 ④ 02 ② 03 ③ 04 ①

-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우리 말의 음운은 크게 자음과 모음으로 나뉜다. ④의 ‘행복[행:복]’에 사용된 음운은 ‘ㅎ, ㅍ, ㅇ, ㅂ, ㄴ, ㄱ’으로, 음운의 개수는 6개이다.
- 자음은 목, 입, 혀 등의 발음 기관에 의해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통로가 좁아져서 방해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로, 소리나는 위치나 소리 내는 방법, 소리의 세기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소리마디의 첫소리에 오는 ‘ㅇ’은 소릿값이 없다.
- 윗잇몸과 혀끝이 닿아서 나는 소리는 잇몸소리로, ‘ㄴ, ㄷ, ㅌ, ㄹ, 스, ㅆ, ㅌ’이 이에 속한다. ③의 ‘ㅂ’은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인 입술소리이다.
-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르면 ‘ㄱ, ㅅ, ㅇ, ㅋ’은 여린입천장소리이다.

실력 쌓기

01 ② 02 ④ 03 ⑤ 04 ④ 05 ④ 06 ①

- ‘송어’의 ‘어’에서 소리마디의 첫소리 ‘ㅇ’은 소릿값이 없으므로 음운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송어[송어]’는 ‘스, ㅅ, ㅇ, ㄱ’로 음운을 분석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공’과 ‘강’의 첫소리는 ‘ㄱ’, 받침은 ‘ㅇ’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모음 ‘ㅗ’와 ‘ㅏ’로 ‘공’과 ‘강’이 구별된다.
③ ‘담’을 ‘뱀’의 뜻과 구별해 주는 음운은 ‘ㄷ’, ‘ㅌ’로 두 개이다.
④ 자음과 모음은 소리마디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분절 음운에 속한다.
⑤ ‘말[말:말]’과 ‘말[馬:말]’처럼 자음과 모음이 같아도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다.
- ‘날씨’에 사용된 자음 ‘ㄴ, ㄹ, ㅆ’은 모두 잇몸소리로,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이다.
오답풀이 ① ‘ㄱ’은 여린입천장소리, ‘ㅁ, ㅂ’은 입술소리이다.
② ‘스’는 잇몸소리, ‘ㅇ’은 여린입천장소리, ‘ㅌ’은 센입천장소리이다.
③ ‘ㅎ’은 목청소리, ‘ㅇ’은 여린입천장소리이다.
⑤ ‘ㅁ’은 입술소리, ‘ㅎ’은 목청소리, ‘ㅇ’은 여린입천장소리이다.
-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목청소리 ‘ㅎ’이다. 혀끝을 윗잇몸에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유음’으로 ‘ㄹ’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ㅎ’과 ‘ㄹ’이 모두 포함된 단어는 ‘하루’이다.
- 예사소리는 성대를 긴장시키지도 않고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지도 않는 평범한 소리인 반면, 된소리는 성대를 긴장시켰다가 풀면서 순간적으로 적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이다.

따라서 '잘랑'의 예사소리 'ㄹ'을 발음할 때보다 '잘랑'의 된소리 'ㄹ'을 발음할 때 성대가 긴장된다.

05 우리말은 'ㄱ, ㅋ, ㆁ'처럼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 따라서 <보기>에서 외국인이 'ㄱ, ㅋ, ㆁ' 소리를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소리의 세기에 따른 자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6 <보기>에 쓰인 자음 중 'ㄲ, ㅋ, ㆁ, ㆁ'은 파열음이며, 'ㄴ, ㄹ'은 비음이다.

DAY 1 음운 체계 ②

본문 017~019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저모음 (2) 앞쪽 (3) 원순 모음

- (1) 국어의 모음 중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로 10개, 이중 모음은 'ㅗ, ㅛ, ㅜ, ㅠ,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로 11개이다.
(2) 단모음과 달리,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달라진다.
(3)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내는 것은 원순 모음, 그렇지 않은 것은 평순 모음이다. 전설 모음은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을 때에 발음되는 모음을, 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을 때의 모음을 말한다.
- (1)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은 저모음이다.
(2)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입안의 앞쪽에 있는 모음은 전설 모음이다.
(3)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소리 내는 모음은 원순 모음으로, 'ㅗ, ㅛ, ㅜ, ㅠ, ㅓ, ㅕ'가 있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1) ㄴ, ㄹ, ㄱ, ㅋ (2) ㄴ, ㄹ, ㄱ, ㅋ 2 (1) ㉠ (2) ㉡ (3) ㉢
3 (1) ㄴ, ㄹ, ㄱ (2) ㄴ, ㄹ, ㄱ, ㅋ

- (1) <보기>의 모음 중 'ㅗ, ㅛ, ㅜ, ㅠ'는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이다.
(2) <보기>의 모음 중 'ㅓ, ㅕ, ㅗ, ㅛ'는 혀가 일정한 자리에서 시작하여 다른 자리로 옮겨 가면서 발음되는 이중 모음이다.
- (1) 전설 모음이면서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은 ㉠의 'ㅏ'이다.
(2) 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고, 혀의 위치가 높은 고모음은 ㉡의 'ㅓ'이다.

(3) 후설 모음이면서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이고, 혀의 높이가 중간인 중모음은 ㉢의 'ㅓ'이다.

- (1) <보기>의 문장에 사용된 모음 중 'ㅓ, ㅣ, ㅓ'는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을 때에 발음되는 전설 모음이다.
(2) <보기>의 문장에 사용된 모음 중 'ㅓ, ㅓ, ㅓ, ㅓ'는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후설 모음이다.

기본 다지기

01 ⑤ 02 ⑤ 03 ① 04 ③

-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고 나오는 소리는 자음, 방해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는 모음이다.
오답풀이 ① 자음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② 모음은 자음 없이 단독으로 소리 낼 수 있다.
③ 국어의 모음은 단모음이 10개, 이중 모음이 11개로 총 21개이다.
④ 자음과 모음 모두 음운으로,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 <보기>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 변화 여부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분류한 것이다.
- <보기>는 원순 모음에 대한 설명이며 이 중 원순모음은 'ㅓ'이다. ②, ③, ④, ⑤에서 'ㅓ, ㅣ, ㅓ, ㅣ'는 평순 모음이다.
- 'ㅓ'는 전설 모음이자, 원순 모음, 중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이다.

실력 쌓기

01 ③ 02 ④ 03 ② 04 ① 05 ⑤ 06 ②
07 ① 08 ③

- 'ㅓ'와 'ㅓ'는 전설 모음으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는 같다. 그러나 'ㅓ'는 고모음, 'ㅓ'는 '중모음'으로 혀의 높이가 다르다.
오답풀이 ① 모음 'ㅓ'와 'ㅓ'의 차이로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② 'ㅓ'는 입술 모양이 평평한 평순 모음, 'ㅓ'는 입술 모양이 둥글어지는 원순 모음이다.
-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한다. 우리말의 단모음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있다. ④에 쓰인 'ㅓ'와 'ㅓ'는 단모음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ㅓ', ② 'ㅓ', ③ 'ㅓ', ⑤ 'ㅓ'는 이중 모음이다.
- <보기>에 제시된 모음들은 모두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안의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다.
오답풀이 ①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ㅓ, ㅓ'는 고모음, 'ㅓ, ㅓ'는 중모음, 'ㅓ'는 저모음에 해당한다.

④, ⑤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ㄱ, ㅋ’는 원순 모음, ‘ㅣ, ㅑ, ㅓ’는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04 <보기>는 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후설 모음은 ‘ㅓ, ㅕ, ㅗ, ㅛ, ㅜ’이고, 평순 모음은 ‘ㅓ, ㅑ, ㅓ, ㅕ, ㅗ, ㅛ, ㅜ, ㅡ’이다. 따라서 <보기>에 해당하는 모음은 ‘ㅓ, ㅕ, ㅗ’이다.

05 혀의 높이가 높은 모음은 고모음으로, ‘ㅓ, ㅕ, ㅗ, ㅛ, ㅜ’가 있다. 그리고 혀의 높이가 낮은 모음은 저모음으로, ‘ㅓ’와 ‘ㅑ’가 있다. ⑤는 고모음인 ‘ㅣ’와 저모음인 ‘ㅑ’가 바르게 짝 지어져 있다.

오답풀이 ① ‘ㅓ’는 저모음, ‘ㅑ’는 중모음이다.

② ‘ㅓ’는 중모음, ‘ㅕ’는 고모음이다.

③ ‘ㅗ’는 중모음, ‘ㅛ’는 고모음이다.

④ ‘ㅕ’는 중모음, ‘ㅛ’는 고모음이다.

06 저모음인 ‘ㅓ, ㅑ’는 제시된 문장에 쓰이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중모음은 ‘ㅓ, ㅕ’가 쓰였다.

③ 이중 모음은 ‘ㅓ’가 쓰였다.

④ 전설 모음은 ‘ㅣ, ㅕ’가 쓰였다.

⑤ 평순 모음은 ‘ㅓ, ㅕ, ㅗ’가 쓰였다.

07 고모음은 ‘ㅓ, ㅕ, ㅗ, ㅛ, ㅜ’이고, 전설 모음은 ‘ㅑ, ㅓ, ㅕ, ㅗ, ㅛ, ㅜ, ㅡ’이다. 따라서 <조진>을 모두 충족하는 모음은 ‘ㅕ, ㅗ’이고 해당 모음이 사용된 단어는 ①의 ‘지위’이다.

오답풀이 ② ‘사서’에서 ‘ㅓ’는 저모음이자 후설 모음, ‘ㅓ’는 중모음이자 후설 모음에 해당한다.

③ ‘외모’에서 ‘ㅓ’는 중모음이자 전설 모음, ‘ㅓ’는 중모음이자 후설 모음에 해당한다.

④ ‘의심’에서 ‘ㅓ’는 이중 모음, ‘ㅣ’는 고모음이자 전설 모음에 해당한다.

⑤ ‘귀향’에서 ‘ㅕ’는 고모음이자 전설 모음, ‘ㅓ’는 이중 모음에 해당한다.

08 <보기>는 ‘지호’가 ‘ㅓ’를 ‘ㅓ’로 잘못 발음하여 오해가 생긴 상황이다. ‘지호’에게 ‘ㅓ’는 ‘ㅓ’와 달리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 ‘ㅓ, ㅓ’는 모두 중모음이다.

④ ‘ㅓ, ㅓ’는 모두 단모음이다.

⑤ ‘ㅓ, ㅓ’는 모두 후설 모음이다.



지식 더하기

발음 실수를 자주 저지르는 모음

• ‘ㅑ’와 ‘ㅓ’: ‘ㅑ’는 저모음, ‘ㅓ’는 중모음이므로 ‘ㅓ’보다 ‘ㅑ’를 발음할 때 입을 더 벌리고 혀의 높이를 낮춰 발음한다.

• ‘ㅓ’와 ‘ㅓ’: ‘ㅓ’는 평순 모음이고 ‘ㅓ’는 원순 모음으로 ‘ㅓ’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고 ‘ㅓ’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한다.

• ‘ㅓ’와 ‘ㅓ’: ‘ㅓ’는 이중 모음이므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처음과 나중에 서로 달라지게 하여 [ㅡ]에서 [ㅣ]가 되도록 발음해야 한다.

DAY 1 음운의 변동 ①

본문 021~023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변동 (2) ㄷ, 끝소리 (3) 된소리되기

- (1) 음절의 끝소리란 한 음절의 마지막에 오는 음운을 말한다.
(2)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음절의 끝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된다.
(3) ‘ㄱ, ㄷ, ㅂ’으로 소리 나는 받침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되기에 의해 ‘ㄱ, ㄷ, ㅂ, ㅅ, ㅈ’으로 발음된다.
- (1)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의 변동에는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있다.
(2)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ㅌ’는 음절의 끝에서 [ㄷ]으로 소리 난다.
(3) ‘국밥[국뽕], 신다[신:파], 갈증[갈쑹]’은 공통적으로 된소리 되기가 나타난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1) ㄱ, ㅅ, ㅋ (2) ㄷ, ㅌ, ㅅ, ㅆ, ㅈ, ㅊ, ㅌ (3) ㅂ, ㅍ 2 (1) ㉠ (2) ㉡ (3) ㉢ 3 (1) 잡찌 (2) 꼴꼬 (3) 갈꼴 (4) 물쥘

- (1)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ㄱ, ㅅ, ㅋ’은 [ㄱ]으로 발음된다.
(2)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 ㅌ, ㅅ, ㅆ, ㅈ, ㅊ, ㅌ’은 [ㄷ]으로 발음된다.
(3)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ㅂ, ㅍ’은 [ㅂ]으로 발음된다.
- (1) 밖[박] - 부엌[부억], ‘ㅍ’과 ‘ㅅ’은 모두 [ㅍ]으로 발음된다.
(2) 앞[압] - 삼[삼], ‘ㅍ’과 ‘ㅂ’은 모두 [ㅂ]으로 발음된다.
(3) 잣[잠] - 낮[남], ‘ㅅ’과 ‘ㅈ’은 모두 [ㄷ]으로 발음된다.
- (1) 잡지[잡찌], 받침 ‘ㅂ’ 뒤에 ‘ㅈ’이 올 때 ‘ㅈ’이 [ㅆ]으로 발음된다.
(2) 꼴꼬[꼴꼬] → 꼴꼬, ‘꼴’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꼴]이 되므로 받침 ‘ㄷ’ 뒤에 온 ‘ㄱ’이 [ㄱ]으로 발음된다.
(3) 갈 곳[갈꼴],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이 올 때 ‘ㄱ’이 [ㄱ]으로 발음된다.
(4) 물쥘[물쥘], 한자어에서의 받침 ‘ㄹ’ 뒤에 ‘ㅈ’이 올 때 ‘ㅈ’이 [ㅆ]으로 발음된다.

기본 다지기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1 '낫, 날, 낫, 낫'은 모두 [남]으로 발음되나, '낙'은 [낙]으로 발음된다.

02 'ㅎ'은 음절의 끝에서 [ㄷ]으로 발음되므로 '하웅'은 [하음]으로 발음된다.

03 <보기>는 받침 'ㄱ, ㄷ, ㅂ'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의 된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다. '순가락[순까락]'은 받침 'ㄷ' 뒤에 'ㄱ'이 오므로, 뒤에 오는 'ㄱ'이 [ㄱ]으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① '각운[각군]'으로 발음하며 음운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무꾼[나무꾼]'으로 발음하며 음운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말살[말쌀]'은 한자어에서의 받침 'ㄹ' 뒤에 온 'ㅅ'이 [ㅅ]으로 발음된 예로, <보기>와 관련이 없다.

⑤ '돌잔치[돌잔치]'로 발음하며 음운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04 ③의 '담장[담장]'은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은 [밤쌍], ②는 [각따], ④는 [곱쌔], ⑤는 [갈쫘]으로 발음하며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실력 쌓기

01 ③ 02 ③ 03 ④ 04 ③ 05 ④ 06 ②
07 ⑤ 08 ④

01 '동산[동산], 반찬[반찬]'처럼 끝소리 받침과 뒤 음절의 첫소리 자음이 만나도 소리가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02 '낫'의 받침 'ㅈ'은 음절의 끝에서 [ㄷ]으로 소리 나므로 '낫가림'은 [낫가림]으로 발음되는데, 다시 'ㄷ'과 'ㄱ'이 만나 [ㄱ]으로 소리 나므로 [낫까림]으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① '삿대[삿대 → 삿대]'는 'ㅅ'이 음절의 끝에서 [ㄷ]으로 발음된 후, 다시 'ㄷ'과 'ㄷ'이 만나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② '앞사귀[입사귀 → 입싸귀]'는 'ㅍ'이 음절의 끝에서 [ㅂ]으로 발음된 후, 다시 'ㅂ'과 'ㅅ'이 만나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④ '못이[모시]'는 'ㅅ'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닌, 연음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끝소리 'ㅅ'이 뒷말의 첫소리로 옮겨 가서 [모시]로 발음된다.

⑤ '덫개[덫개 → 덫개]'는 'ㅍ'이 음절의 끝에서 [ㅂ]으로 발음되고, 다시 'ㅂ'과 'ㄱ'이 만나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지식 더하기

연음 현상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앞 음절의 끝소리인 자음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다. 예 책이[채기], 꽃에[꼬체], 연필은[연피른]

03 ㉠에서 '꽃다발'의 받침 'ㅈ'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꼴다발]이 되고, ㉡에서 'ㄷ'과 'ㄷ'이 만나 뒤의 'ㄷ'이 [ㅌ]으로 소리 나는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꼴따발]로 발음된다.

04 '현상[현상]'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한다.

오답풀이 ① '빛[빔]', ② '긋[긔]', ④ '무릎[무릅]', ⑤ '숙대[속대]'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05 '날개[날개 → 날개]', '뺨대[뺨때대]'로 'ㄷ' 뒤에 오는 'ㄱ, ㄷ'이 각각 'ㄱ, ㅌ'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운명[운:명]'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옆집[옆집 → 옆집]'은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② '강통[강통]'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발갈이[발가리 → 받가리]'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③ '연탄[연탄]'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국밥[국뽕]'은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⑤ '웃고름[웃고름 → 올고름]'은 된소리되기가, '장미꽃[장미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06 '엽서[엽서]'는 'ㅂ' 뒤에 오는 'ㅅ'이 [ㅆ]으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① '품대[품:따]'는 뒤에 오는 용언의 어간 받침 'ㅁ' 뒤에 첫소리가 'ㄷ'인 어미가 올 때의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③ '실전[실전]'은 한자어에서의 받침 'ㄹ' 뒤에 'ㅈ'이 올 때의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④ '짜증[짜증]'은 음운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부엌[부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07 '돌'의 받침 'ㄹ'은 관형사형이 아니므로, '돌 던지기'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08 '웃'의 받침 'ㅅ'은 음절의 끝에서 [ㄷ]으로 발음되고,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를 만난 경우이므로 [온 안에 → 오다네]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① '밭도'에서 'ㅌ'은 음절의 끝에서 [ㄷ]으로 발음되고, 다시 뒤에 오는 'ㄷ'을 만나 [밭도 → 받또]로 소리 나는 것으로, (가)에만 해당된다.

② '웃'에서 'ㅅ'은 음절의 끝에서 [ㄷ]으로 발음되고, 다시 뒤에 오는 'ㅅ'을 만나 [온속 → 온쑉]으로 소리 나는 것으로, (가)에만 해당된다.

③ '밖'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에'가 와서 연음 현상이 나타나므로 [바꺼서]로 발음된다. 따라서 (가), (나)와 관련이 없다.

⑤ '숲'에서 'ㅍ'은 음절의 끝에서 [ㅂ]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가)에만 해당된다.

DAY 1

음운의 변동 ②

본문 025~027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궁내] (2) [피부치] (3) [마:다지]

- (1) 유음화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 또는 뒤에서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2) 구개음화는 두 개의 음운을 발음할 때, 두 음운이 입안의 가까운 자리에서 소리 날 때 발음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3) 음운의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고, 음운의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 드는 현상이다.
- (1) '궁내'는 'ㄱ'과 'ㄴ'이 만나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궁내]로 발음한다.

(2) '피붙이'는 'ㅍ'이 형식 형태소인 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피부치]로 발음한다.

(3) '미담이'는 'ㄷ'이 형식 형태소인 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미:다지]로 발음한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1) ㉠ (2) ㉡ (3) ㉢ (4) ㉣ 2 끝이, 살살이, 만이
3 (1) ㉠ (2) ㉠ (3) ㉢

- (1) '밤물[밤물]'은 'ㅂ'이 'ㅁ'을 만나 비음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2) '난로[날:로]'는 'ㄴ'이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3) '곤란[곤:란]'은 'ㄴ'이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4) '곡물[곡물]'은 'ㄱ'이 'ㅁ'을 만나 비음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 구개음화는 앞말의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일어난다. <보기>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단어는 '끝이, 살살이, 만이'이다. '마디[마디]'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별에[벼:데]'는 'ㅌ' 뒤에 모음 'ㅐ'가 오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홀이불[혼니불]'은 '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의 'ㅣ'가 오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1) ㉢ '젓히다[저치다]'는 'ㅈ'과 'ㅎ'이 만나 [ㅊ]으로 소리 난다.

(2) ㉠ '백합[배갑]'은 'ㄱ'과 'ㅎ'이 만나 [ㅋ]으로 소리 난다.

(3) ㉡ '덥히다[더피다]'는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소리 난다.

기본 다지기

01 ③ 02 ④ 03 ① 04 ④

01 <보기>는 'ㅂ'이 비음 'ㅁ'을 만나 비음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를 나타낸 것이다. '밤팍[밤팍]'은 앞에 오는 음절의 끝소리 'ㅂ'이 뒤에 오는 음절의 첫소리 'ㅁ'을 만나 비음 'ㅁ'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탐방[탐방]', ② '냄비[냄비]', ④ '남부[남부]', ⑤ '궁병[궁:병]'은 표기와 발음이 같아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02 '찰나[찰라]'는 비음 'ㄴ'이 앞에 있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03 <보기>는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밭이[바치]'는 앞말의 끝소리 'ㅌ'이 모음 'ㅣ'를 만나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 현상의 예이다.

오답풀이 ② '반란[발:란]'은 'ㄴ'이 뒤에 오는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③ '닭대[닥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④ '결에[겨테]'는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⑤ '건디대[건디다]'는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04 <보기>의 '잡히다[자피다]'는 'ㅂ'과 'ㅎ'이 만나 [ㅊ]으로 소리 나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놓치다[논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적용된다.

오답풀이 ① '울지[울치]'는 겹받침 중 'ㅎ'과 뒤에 오는 예사소리 'ㅈ'이 만나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② '하얏게[하:아게]'는 예사소리 'ㅎ'과 뒤에 오는 'ㄱ'이 만나 'ㅋ'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③ '못하다[모:타다]'는 예사소리 'ㄷ'과 뒤에 오는 'ㅎ'이 만나 '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⑤ '업히다[어피다]'는 예사소리 'ㅂ'과 뒤에 오는 'ㅎ'이 만나 'ㅍ'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실력 쌓기

01 ③ 02 ④ 03 ② 04 ② 05 ⑤ 06 ①
07 ④

01 <보기>는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③의 '엷방[엷방] → 엷뽕'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예이다.

오답풀이 ① 짙는[깁는 → 깁는], ② 꽃말[꼇말 → 꼇말], ④ 갇는[갑는 → 갑는], ⑤ 부역문[부역문 → 부영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02 '대관령'은 'ㄴ'이 'ㄹ' 앞에서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만나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대:관령]으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 ①, ③ '놓는'과 '앞마당'은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논는 → 논는],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②, ⑤ '신라'와 '실내'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실라], [실래]로 발음된다.

03 자음 동화에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다. 구개음화는 음운 교체의 유형 중 하나이다.

04 '꽃이[꼬치]'는 '츠'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연음 현상의 예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식다하기

구개음화

- 구개음은 혀바닥이 입천장 중앙에 닿으면 나는 소리로, 'ㄷ, ㅌ, ㅍ'이 이에 속한다. 'ㄷ, ㅌ'이 모음 'ㅣ'를 만나서 'ㄷ, 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예) • 만이[마디 → 마지]

• 발이[바티 → 바치]

- 자음 'ㄷ'이 '히'를 만나면 'ㅌ'으로 축약이 되고, 축약된 'ㅌ'이 다시 'ㅌ'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예) • 굳히다[구티다 → 구치다]

• 묻히다[무티다 → 무치다]

05 '따뜻한[따뜩한 → 따뜨단]', 박하사탕[바카사탕]은 예사소리 'ㄷ, ㅌ'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ㄸ, ㅌ'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오답풀이

- ㉠ '함박눈[함방눈]'은 비음화가 일어난다.
 ㉡ '별이[버티 → 버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06 '굳이[구지]'와 '국물[궁물]'은 각각 구개음화와 비음화가 나타나므로 모두 음운의 교체가 일어났다.

오답풀이

- ② '숙모[송모]'는 비음화(교체), '국화[구과]'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③ '먹물[명물]'은 비음화(교체), '잡히다[자피다]'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④ '걷는다[건는다]'는 비음화(교체), '꽃히다[꼬치다]'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⑤ '하라산[할:라산]'은 유음화(교체), '도착하다[도:차카다]'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07 ㉠은 순행 동화, ㉡은 역행 동화에 대한 설명이다. '물놀이'는 앞의 'ㄹ'이 뒤의 'ㄴ'에 영향을 주어 'ㄴ'이 'ㄹ'로 바뀌어 [물로리]로 발음된다. '음내'는 뒤의 'ㄴ'이 앞의 'ㄴ'에 영향을 주어 'ㄴ'이 'ㄹ'로 바뀌어 [음내]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 ① 진리[질리][얹이 바뀜], 담력[담:녁][뒤가 바뀜]
 ② 신랑[실랑][얹이 바뀜], 먹는대[명는다][얹이 바뀜]
 ③ 앞문[암문][얹이 바뀜], 들나물[들:라물][뒤가 바뀜]
 ⑤ 붙는다[분는다][얹이 바뀜], 만며느리[만며느리][얹이 바뀜]

DAY



음운의 변동 ③

본문 029~031쪽

핵심만 바로 체크

- 1 (1) × (2) ○ (3) × 2 (1) 탈락 (2) 동음 (3) ㄴ, 첨가

- 1 (1) 음운의 탈락은 자음과 모음에서 모두 일어나는 현상이다.
 (2) 음절의 끝에 오는 겹받침 'ㅃ'은 뒤 자음 'ㅂ'이 탈락해 'ㄲ'로 발음된다. 따라서 '넓다'는 [널따]로 발음된다.
 (3) 음절 끝의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소리 나는 현상은 자음군 단순화이다. 'ㄹ' 탈락은 'ㄹ'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몇몇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 2 (1) 음운 변동의 유형 중 하나인 탈락은 두 음운 중 하나의 음운이 발음되지 않는 현상을 말하며, 그 유형으로는 자음군 단순화, 'ㄹ' 탈락, 'ㅎ' 탈락, 모음 탈락이 있다.
 (2) 동음 탈락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동일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그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다. '가-+-아서 → [가서]'는 모음 'ㅏ'가, '건너-+-어서 → [건너서]'는 모음 'ㅓ'가 탈락한 예이다.
 (3) '숨이불'은 어근 '숨'과 어근 '이불'이 결합한 합성어로, 자음 'ㅁ' 뒤에 모음 'ㅣ'가 결합하여 'ㄴ'이 덧붙여 발음되는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한여름'은 접사 '한-'과 어근 '여름'이 결합한 파생어로, 자음 'ㄴ' 뒤에 반모음 'ㅣ[j]'가 결합하여 'ㄴ'이 덧붙여 발음되는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예시로 바로 연습

- 1 (1) 닥, ㄹ (2) 여덟, ㅂ (3) 홀꼬, ㅌ (4) 일꼬, ㄱ 2 (1) ㉡ (2) ㉠ (3) ㉢ 3 (1) 아드님, 흙, 아파 (2) 집안일, 아니오

- 1 (1) '닭'은 받침 'ㄷ'의 앞 자음 'ㄹ'이 탈락해 [닥]으로 발음된다.
 (2) '여덟'은 받침 'ㅃ'의 뒤 자음 'ㅂ'이 탈락해 [여덜]로 발음된다.
 (3) '홀꼬'는 받침 'ㅃ'의 뒤 자음 'ㅌ'이 탈락해 [홀꼬]로 발음된다.
 (4) 받침 'ㄷ'은 앞 자음 'ㄹ'이 탈락하는 것이 원칙이나,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ㄱ'이 탈락한다. 따라서 '읽고'는 받침 'ㄷ'의 뒤 자음 'ㄱ'이 탈락해 [일꼬]로 발음된다.
- 2 (1) '맨입'은 'ㄴ'이 첨가되어 [맨닙]으로 발음된다.
 (2) '좋은'은 'ㅎ' 탈락되어 [조은]으로 발음된다.
 (3) '잠가'는 '잠그+어'에서 'ㄱ'이 탈락되어 [잠가]로 발음된다.

- 3 (1) '아드님'은 '아들+님'에서 'ㄹ'이 탈락되어 [아드님]으로, '흙'은 받침 'ㄹ'의 앞 자음 'ㄱ'이 탈락되어 [흑]으로, '아파'는 '아프+아'에서 모음 'ㅏ'가 탈락되어 [아파]로 발음되는 음운의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 (2) '집안일'은 [지반닐]로 'ㄴ'이 첨가되어 발음되고, '아니오'는 [아니오/아니오]로 반모음 'ㅣ[j]'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음운의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기본 다지기

01 ③ 02 ④ 03 ① 04 ①

- 01 '할고'는 받침 'ㄷ'의 뒤 자음 'ㅇ'이 탈락해 [할꼬]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① 'ㅁ'은 앞 자음인 'ㄹ'이 탈락한다.
 ② 'ㄹ'은 앞 자음인 'ㄹ'이 탈락한다.
 ④ 'ㅇ'은 뒤 자음인 'ㄷ'이 탈락한다.
 ⑤ 'ㄱ'은 뒤 자음인 'ㅁ'이 탈락한다.

- 02 <보기>는 음운의 탈락에 대한 설명이다. '맞히면[마치면]'은 'ㅈ'과 'ㅎ'이 만나 [ㅊ]으로 소리 나는 음운 축약의 예이다.

오답풀이 ① 따님: 'ㄹ' 탈락(딸+님 → 따님)
 ② 값도[갑도]: 자음군 단순화(받침 'ㅁ'에서 뒤 자음 탈락), 된소리되기
 ③ 섰다[섰다]: 동음 탈락(서+있+다 → 섰다), 된소리되기
 ⑤ 넣어[너어]: 'ㅎ' 탈락

- 03 '줄넘기'는 [줄림기]로 발음되는데 'ㄴ'이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가 나타날 뿐, 없던 음운이 첨가된 것이 아니므로 <보기>에서 설명하는 첨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내복약[내복낙] → 내:봉낙: 'ㄴ' 첨가, 비음화
 ③ 숨이불[숨:니불]: 'ㄴ' 첨가
 ④ 한여름[한녀름]: 'ㄴ' 첨가
 ⑤ 급행열차[그팽널차]: 거센소리되기, 'ㄴ' 첨가

- 04 ㉠ '담요'는 'ㄴ'이 첨가되어 [담뇨]로 발음되고, ㉡ '색연필'은 'ㄴ'이 첨가되어 [생년필]로 발음된다. 따라서 ㉠과 ㉡은 모두 발음할 때 'ㄴ'이 첨가된다.

오답풀이 ㉢ 놓여[노여]: 'ㅎ' 탈락
 ㉣ 가서: 동음 탈락(가+아서 → 가서)

지식 더하기

- **탈락과 축약**: 탈락은 축약과 달리 원래 있던 음운의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다.
 예 • 놓아[노아]: 'ㅎ' 탈락
 • 놓고[노코]: 축약(ㅎ+ㄱ → ㅋ)
- **'ㄴ' 첨가**: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첨가된다.
 예 한여름[한+여름] → [한녀름]에도 숨이불[숨+이불] → [숨:니불]을 댄다.

실력 쌓기

01 ③ 02 ② 03 ④ 04 ① 05 ④ 06 ①

- 01 '되어'는 단모음과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 'ㅣ[j]'가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나 [되여]로 발음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낱대[낙따]: 자음군 단순화(받침 'ㄹ'의 앞 자음 탈락)
 ② 좋아[조아]: 'ㅎ' 탈락
 ④ 앓고[알코]: 축약(ㅎ+ㄱ → ㅋ)
 ⑤ 맨입[맨닙]: 'ㄴ' 첨가

- 02 '읽고'의 받침 'ㄹ'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이 아닌 'ㄱ'이 탈락한다. 따라서 '읽고'는 [일꼬]로 발음해야 한다.

지식 더하기

겹받침 'ㄹ'의 발음

겹받침 'ㄹ'은 'ㄹ'이 탈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ㄱ'이 탈락한다.

- 03 '월요일[위료일]'은 연음되기 때문에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화살: 'ㄹ' 탈락(활+살 → 화살)
 ② 없다[엇따]: 자음군 단순화(받침 'ㅁ'의 뒤 자음 탈락)
 ③ 바빠: 'ㄴ' 탈락(바쁘+아 → 바빠)
 ⑤ 우짚다: 'ㄹ' 탈락(울+짚다 → 우짚다)

- 04 반모음 첨가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간 모음 'ㅣ' (ㅏ, ㅑ) 뒤에 오는 단모음에 반모음 'ㅣ[j]'가 덧붙는 경우이다. '배었다'는 어간의 모음이 'ㅣ'로 'ㅣ' (ㅏ, 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연따]와 같이 반모음을 첨가하여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연따]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풀이 ②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③, ④ 반모음 첨가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간 모음 'ㅣ' (ㅏ, ㅑ) 뒤에 오는 단모음에 반모음 'ㅣ[j]'가 덧붙는 경우이다. 따라서 [피연따/피연따], [뛰연따/뛰연따] 모두 표준 발음이다.
 ⑤ 'ㅅ'이 뒤에 오는 모음 'ㅣ'에 연음되어 [무어시오]로 발음된다.

- 05 '아파서'는 '아프-'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서'가 결합하여 어간의 'ㅏ'가 탈락하는 모음 탈락의 예에 해당된다. 하지만 '아프다'는 모음 탈락에 해당되지 않는다.

- 06 '편리[펼리]'는 음운의 교체 현상(유음화)만 일어나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에 '고프--+아서(7개) → 고파서(6개)', '버들+나무(9개) → 버드나무(8개)'는 'ㄴ' 탈락, 'ㄹ' 탈락으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고, '눈요기(6개) → [눈뇨기](7개)', '식용유(6개) → [시공뉴](7개)'는 'ㄴ' 첨가로 음운의 개수가 늘어난다. 따라서 '기준 1'은 음운의 개수 변화 여부가 될 수 있다. '기준 2'에서는 '고파서'('ㄴ' 탈락)와 '버드나무'('ㄹ' 탈락), '눈요기[눈뇨기]'('ㄴ' 첨가)와 '식용유[시공뉴]'('ㄴ' 첨가)로 나뉘었다. 따라서 '기준 2'는 음운이 탈락한 것인지 첨가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 고득점 도전하기

본문 032~035쪽

- 01 ② 02 ④ 03 ② 04 ④ 05 ② 06 ②
 07 (1) 'ㄷ', 후설 모음, 저모음 (2) 'ㄷ', 'ㄴ', 이중 모음 08 ②
 09 통 10 ② 11 ⑤ 12 ④ 13 ② 14 ㉠: 유음화,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비음화 15 ② 16 '굳이[구지],
 여닫이문[여다지문], 살살이[살싸치]'는 모음 'ㅣ'의 소리 나는 위치가
 'ㄷ, ㅌ'보다는 'ㅈ, ㅊ'과 더 가깝다. 따라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ㄷ, ㅌ'이 'ㅣ'를 만나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17 ④ 18 ② 19 ④ 20 ④ 21 ② 22 ㉠은 'ㄴ'
 첨가, ㉡은 반모음 첨가, ㉢은 'ㄴ' 탈락이 일어났다.

0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따라서 ㉠에는 '소리'가 들어가야 한다.

02 우리말에는 자음, 모음 외에도 강약(소리의 세기), 고저(소리의 높낮이), 장단(소리의 길이)과 같은 음운 요소가 있다. 제시된 자료에서는 장음 기호(:)를 통해 음성을 의미하는 '말'은 길게 발음하고, 동물을 뜻하는 '말'은 짧게 발음함을 알 수 있다.

💡 지식 더하기

음운의 종류

- 분절 음운: 소리마디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자음', '모음'과 같은 음운
- 비분절 음운: 소리마디의 경계가 잘 나누어지지 않는 '강약(소리의 세기), 고저(소리의 높낮이), 장단(소리의 길이)과 같은 음운

03 'ㅌ'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잇몸소리이며,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파열음이다.

오답풀이 ① 'ㄹ'은 두 입술에서 나는 입술소리이자 공기를 코로 내보내는 소리인 비음이다.

③ 'ㅍ'은 혀바닥과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사이에서 나는 센입천장소리이자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파찰음이다.

④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인 잇몸소리이자 공기를 코로 내보내는 소리인 비음이다.

⑤ 'ㄱ'은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나는 여린입천장소리이자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파열음이다.

04 <보기>는 마찰음에 대한 설명이다. 마찰음인 'ㅅ, ㅆ, ㅎ' 중 'ㅎ'이 사용된 단어인 '학교'가 알맞은 답이다.

05 ㉠ '사과나무'에 쓰인 비음은 'ㄴ, ㅁ'으로 2개이다. ㉡ '찌른다'에서 된소리는 'ㅈ'으로 1개이다. ㉢ '미끄럽다'에서 파찰음은 0개이다. ㉣ '여름'에서 유음은 'ㄹ'로 1개이다. 따라서 문제의 답을 모두 합한 수는 4개이다.

06 제시된 문장에는 목청소리인 'ㅎ'이 쓰이지 않았다. '의, 울'에서 'ㅇ'은 음절의 첫소리에서 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음운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ㅌ, ㅍ'은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입술소리이다.

③ 'ㄴ, ㄷ, ㄹ, ㅅ'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인 잇몸소리이다.

④ 'ㅊ'은 혀바닥과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사이에서 나는 센입천장소리이다.

⑤ 'ㄱ, ㅇ'은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의 부드러운 부분 사이에서 나는 여린입천장소리이다.

07 제시된 문장에 쓰인 모음은 'ㅡ, ㅏ, ㅗ, ㅑ, ㅓ, ㅕ, ㅛ, ㅜ, ㅠ, ㅡ'이다. <보기>의 (1)은 후설 모음과 저모음으로 'ㅏ'가, (2)는 이중 모음으로 'ㅑ, ㅓ'가 기준을 충족한다.

08 전설 모음이자 고모음이면서 원순 모음인 단모음은 'ㅟ'이다.

오답풀이 ① ㉠ 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 고모음인 것은 'ㅣ'이다.

③ ㉡ 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 중모음인 것은 'ㅓ'이다.

④ ㉢ 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 저모음인 것은 'ㅏ'이다.

⑤ ㉣ 후설 모음이자 평순 모음, 저모음인 것은 'ㅏ'이다.

09 첫소리에는 파열음 'ㄱ, ㅋ, ㆁ, ㄷ, ㅌ, ㅍ, ㅂ, ㅍ, ㅃ' 중 잇몸 소리는 'ㄷ, ㅌ, ㅌ'이고, 이 중 크고 거친 느낌을 주는 거센소리는 'ㅌ'이다. 가운뎃소리에서 후설 모음 'ㅡ, ㅏ, ㅓ, ㅕ, ㅛ' 중 중모음은 'ㅓ, ㅕ'이고, 이 중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려 소리 내는 원순 모음은 'ㅓ'이다. 끝소리에서 여린입천장소리는 'ㄱ, ㅋ, ㆁ, ㅇ'이며, 이 중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비음은 'ㅇ'이다.

10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하므로, 표기와 발음을 일치시키기 위한 현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음운의 변동은 보통 인정해 있는 음운 사이에서 실현된다.

③ 음운 변동은 일정한 환경에서 말소리가 바뀌는 현상이다.

④ 원래 없던 음운이 생기는 '첨가', 원래 있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현상이 나타난다.

⑤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11 '먹을 것'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이 올 때 된소리 'ㄱ'으로 바뀌는 된소리되기와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 [머글썸]으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① 웃느[웃는] → 운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② 앞만[앞만] → 암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③ 꺾고[꺾고] → 꺾꼬: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④ 북넉[북넉] → 봉넉: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12 '달님[달림], 줄넘기[줄림끼]'는 ㉠에 해당하는 예이고, '논리[놀리], 대관령[대:팔령], 광한루[광:할루]'는 ㉡에 해당하는 예이다.

13 ㉠ '웃음'은 음절의 끝소리에 쓰인 'ㅅ'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를 만나 연음되어 [우슴]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음운의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속삭이[속싸기]: 된소리되기

③ 같이[가치]: 구개음화

④ 짓는[질는] → 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⑤ 싫대[싫다] → 싫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14 ㉠의 '난로' → [날:로]에서는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유음화가 나타난다. ㉡의 '부엌문' → [부억문]에서는 'ㄱ'이 음절의 끝에서 대표음 'ㄱ'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의 '부엌문' → [부억문]에서는 'ㄱ'이 'ㅁ'을 만나 비음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15 '싫지[실치]'는 'ㅎ'과 'ㅅ'이 만나 거센소리 'ㅅ'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음운의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담가: 'ㄴ' 탈락(담ㄱ-+-아 → 담가)

③ 갔다[간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ㄷ' 탈락(가-+-았-+-다 → 갔다)

④ 달아세[다아서]: 'ㅎ' 탈락

⑤ 등그니: 'ㄹ' 탈락(등글-+-니 → 등그니)

지식 더하기

탈락의 유형

'ㄹ' 탈락	'ㄹ'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몇몇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현상 예 놀-+-는 → 노는
'ㅎ' 탈락	'ㅎ'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ㅎ'이 탈락하는 현상 예 쌓-+-아 → 쌓아[싸아]
모음 탈락	'ㄴ' 탈락: 모음 'ㄴ'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 'ㄷ'/'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크-+-어 → 커 - 동음 탈락: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동일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그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예 가-+-아 → 가

16 '굳이[구지], 여닫이문[여다지문], 살살이[산싸치]'는 모두 앞말의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ㅅ, ㅈ'으로 발음된다. 이와 같은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모음 'ㅣ'가 발음되는 위치가 'ㄷ, ㅌ'보다는 'ㅅ, ㅈ'이 소리 나는 위치와 더 가깝기 때문이다.

17 '삶는'은 겹받침 'ㅃ' 중 앞 자음 'ㄹ'이 탈락했을 뿐 다른 음운 변동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맑지[막지] → 막찌: 자음군 단순화('ㄹ' 중 앞의 자음 탈락), 된소리되기

② 읊고[읊고] → 읊고 → 읊꼬: 자음군 단순화('ㄹ' 중 앞의 자음 탈락),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③ 훑는[훑는] → 훑른: 자음군 단순화('ㄹ' 중 뒤의 자음 탈락), 유음화

⑤ 닭만[닥만] → 당만: 자음군 단순화('ㄹ' 중 앞의 자음 탈락), 비음화

18 ㉠의 '닭도록[달도록]'은 'ㅎ'과 'ㄷ'이 만나 'ㅌ'으로 축약(거센소리되기)되어 발음된다.

오답풀이 ① 잡혔대[자뻤따]: 거센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③ 얹지[안치]: 거센소리되기

④ 낳았다[나안따]: 'ㅎ' 탈락,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⑤ 앓고[안코]: 거센소리되기

19 '신록[실록]'은 'ㄴ+ㄹ' → ㄹ+ㄹ로 소리 나는 유음화가 나타난다.

20 ㉢은 'ㄷ, ㅂ'이 'ㅎ'을 만나 각각 'ㅌ, ㅍ'으로 바뀌는 축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쫓다'는 '쓰-+-었-+-다 → 쫓다'로 'ㄴ' 탈락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아는'은 '알-+-는 → 아는'으로, '여는'은 '열-+-는 → 여는'으로, '사는'은 '살-+-는 → 사는'으로 'ㄹ' 탈락이 나타난다.

② '한라산[할:라산]'은 유음화, '읽는[입는] → 임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나타난다.

③ '곰이빨[곰니빨]'은 'ㄴ' 첨가, '홀이불[홀니불] → 혼니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나타나는데, 공통적인 음운 현상은 'ㄴ' 첨가이다. '가랑잎[가랑뵤] → 가랑닙'에도 'ㄴ' 첨가가 나타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⑤ ㉠의 '읽는[입는] → 임는'과 ㉡의 '홀이불[홀니불] → 혼니불'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21 '물약'은 '[물낙] → 물략'으로 'ㄴ' 첨가가 일어난 후, 다시 유음화가 일어난다.

오답풀이 ①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이 첨가되었다. [피어/피여]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

③, ④ 'ㅎ'과 'ㄱ'이 만나 'ㅋ'으로 축약되었다.

⑤ 'ㅂ'과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었다.

22 ㉠에서 '눈요기[눈뇨기]'는 'ㄴ' 첨가, ㉡에서 '되어[되여]'는 반모음 첨가, ㉢에서 '기쁘-+-어 → 기뻐'는 'ㄴ' 탈락이 나타났다.

지식 더하기

첨가의 유형

'ㄴ' 첨가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할 때 'ㄴ'이 첨가됨. 예 •콩잎 → [콩닙] •숨이불 → [숨:니불]
반모음 첨가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모음끼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모음 'ㅣ[j]'나 반모음 'ㅣ[w]'가 덧붙임. 예 •피어 → [피어/피여] •되어 → [되여/되여]

II 단어

DAY 1 품사 ①

본문 039~041쪽

핵심만 바로 체크

- 1 (1) ○ (2) ○ (3) × 2 (1) 체언, 목적어 (2) 관계언
(3) 이름, 대명사, 수사

- (1) 품사는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분류해 놓은 단어의 갈래로, 우리말의 품사는 9개로 분류된다.
(2) 품사는 문장 안에서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분류한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를 불변어, 형태가 변하는 단어를 가변어라고 한다.
(3) 품사는 문장 안에서 단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나눌 수 있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나눌 수 있다.
- (1) 체언은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하는 말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2) 품사는 문장에서 단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를 관계언이라고 한다.
(3)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사람, 사물, 장소 등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명사, 어떤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는 대명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는 수사이다.

예시로 바로 연습

- 1 국가 2 (1) 그분, 우리, 나 (2) 여기, 그것 3 (1) ㉠ (2) ㉡

- 명사는 의미의 특성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눌 수 있다. 고유 명사는 특정 대상을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고, 보통 명사는 공통된 특성을 지닌 대상들을 아울러 대표하는 이름이다.
- (1)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인 인칭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그분, 우리, 나'가 이에 해당한다.
(2) 사물이나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인 지시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 그것'이 이에 해당한다.
- (1) 첫째, 둘째, 제일, 제이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인 서수사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2) 하나, 둘, 일, 이와 같이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인 양수사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기본 다지기

- 01 ③ 02 ④ 03 ② 04 ③

- 명사, 대명사, 수사는 품사를 의미에 따라 나눈 것이다. 품사를 기능에 따라 나누면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 우리말의 품사는 형태가 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다. '먹다, 편안하다, 자다, 연습하다'는 문장 안에서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인 반면 '현'은 문장 안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 체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항상 바쁘게 살아야 한다.'라는 문장에는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것'은 대명사, '최선, 방법'은 명사이다.
② '달, 지구, 주위'는 명사이다.
④ '학생'은 명사, '셋'은 수사이다.
⑤ '그'는 대명사, '고양이, 강아지'는 명사이다.

실력 쌓기

-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④ 06 ①

- 품사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명사와 수사는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우리말 단어는 의미적 특성에 따라 9개의 품사로 나눌 수 있다.
② 품사를 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다.
④ 품사를 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형용사는 가변어, 관형사는 불변어로 다른 부류로 분류된다.
⑤ 품사를 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용언은 가변어이다. 용언을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동사와 형용사로 나누어진다.
- 문장에서 쓰일 때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불변어(와, 창밖, 에서, 눈, 이, 펑펑)와 가변어(하얀, 내린다)로 나눌 수 있다.
- <보기>는 명사 중에서도 다른 말의 도움 없이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⑤의 '개'는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인 의존 명사이다.
- ㉠ '우리'는 동현 및 동현과 함께 체육관에서 배구를 하는 친구들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다.
오답풀이 ① ㉡ '너'는 '동현'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다.
② ㉠ '나'는 '동현'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다.
③ ㉡ '거기'는 '체육관'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⑤ ㉡ '여기'는 휴대 전화의 '지도'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지식 더하기

대명사의 종류

지시 대명사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 예 이것, 그것, 저것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 예 여기, 저기, 거기	
인칭 대명사	1인칭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가리킴. 예 나, 저, 우리, 저희, 소인, 짐
	2인칭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가리킴. 예 너, 자네, 그대, 당신, 너희 등
	3인칭	말하는 사람이 자신과 듣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가리킴. 예 그, 이분, 그분, 저분, 이이, 그이, 저이
	재귀칭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가리킴. 예 저, 자기, 당신
	미지칭	모르는 대상을 가리킴. 예 누구
	부정칭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음. 예 아무, 아무개

05 자립 명사는 다른 말의 도움 없이 혼자 쓰일 수 있는 명사,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서수사는 사물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 중 자립 명사는 ㉢ ‘소인’, ㉣ ‘지혜’, 인칭 대명사는 ㉠ ‘그분’, ㉡ ‘여러분’, 서수사는 ㉤ ‘제이(第二)’이다.

06 ①의 ‘제일’은 ‘여럿 가운데서 첫째가는 것’을 뜻하는 명사이다.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로 하나, 둘, 셋과 같이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가 있다.

지식 더하기

수사

수를 나타낸다고 해서 모두 수사인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수사, 관형사,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

- 예 • 첫째, 정직하자.(수사)
• 첫째 주 화요일(관형사)
• 언니가 우리 집 첫째이다.(명사)

DAY 07

품사 ②

본문 043~045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자동사 (2) 형용사 (3) 관형사, 부사

- (1)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와 서술하는 역할을 하며 동사, 형용사가 용언에 해당한다.
(2)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하는 용언 중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이다.
(3) 수식언은 문장에서 뒤에 오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것으로, 관형사와 부사가 이에 해당한다.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 (1) 동사는 대상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로,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치는 자동사와 움직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로 나눌 수 있다.
(2) 형용사는 사람 또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와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등이 어떠하다는 것을 지시하는 지시 형용사로 나눌 수 있다.
(3)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에서 뒤에 오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수식언에 속한다. 관형사는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고, 부사는 용언, 다른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1) 작다, 따뜻하다, 슬프다 (2) 읽다, 흐르다, 주다 2 (1) 아니 (2) 자주 (3) 어제 3 (1) 부사 (2) 관형사 (3) 부사 (4) 관형사

- (1) ‘작다, 따뜻하다, 슬프다’는 사람 또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2) ‘읽다, 흐르다, 주다’는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 (1) ‘아니’는 부정의 뜻을 지닌 부정 부사이다.
(2) ‘자주’는 모양, 상태, 성질을 한정하여 꾸며 주는 성상 부사이다.
(3) ‘어제’는 장소나 시간 등의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부사이다.
- (1) ‘매우’는 부사 ‘빨리’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2) ‘다른’은 명사 ‘일’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3) ‘과연’은 문장 ‘내일은 오늘처럼 비가 올까?’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4) ‘여러’는 명사 ‘나라’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기본 다지기

01 ④ 02 ② 03 ⑤ 04 ①

01 용언은 동사, 형용사로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것은 체언이다.

지식 더하기

본용언과 보조 용언

용언을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본용언은 문장 안에서 자립적으로 사용되지만 보조 용언은 홀로 쓰이지 않고 본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 **본용언**: 문장의 주체를 주되게 서술한다.
- **보조 용언**: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준다.

- 예 • 여행을 떠나고(본용언) 싶다(보조 용언).
- 급하게 뛰다가 넘어질(본용언) 뻔하다(보조 용언).
 - 결과를 보니 열심히 노력했나(본용언) 보구나(보조 용언).

02 '놓았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넓다, 어렵다, 작다, 길다'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03 ㉠ '이번'은 명사 '방학'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 '꼭'은 동사 '공부해야지'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04 '어떤'은 명사인 '것'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며, '더'는 형용사인 '좋아'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풀이 ② 부사 '되도록'이 쓰였다.

- ③ 관형사와 부사가 쓰이지 않았다.
- ④ 관형사 '저'가 쓰였다.
- ⑤ 부사 '열심히, 정말'이 쓰였다.

실력 쌓기

- 01 ③ 02 ⑤ 03 ② 04 ⑤ 05 ① 06 ⑤
07 ①

01 <보기>의 '만났다'는 동사, '위험하다'는 형용사로 용언에 해당하며, 용언은 문장에서 사용할 때 그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오답풀이 ① 부사에 관한 설명이다.

- ② 관형사에 관한 설명이다.
- ④ 동사에 관한 설명이다.
- ⑤ 형용사에 관한 설명이다.

02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는 형용사로, '깨끗하다'가 이에 해당한다. '사랑한다, 일어나자, 도착했다, 본, 해결한다'는 동사이다.

지식 더하기

형용사의 종류

성상 형용사	사람 또는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냄. 예 마음씨가 곱다.
지시 형용사	사람 또는 사물의 상태나 성질이 어떠하다는 것을 지시함. 예 사정이 그러니 이해할게.

03 '빨리'는 동사 '도착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풀이 ① '다른'은 명사 '일'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③ '저런'은 명사 '색깔'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④ '온갖'은 명사 '정성'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⑤ '그'는 명사 '그림'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04 <보기>의 ㉠ '설마'는 문장 전체인 '우리가 떨어지겠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이다. '분명히'도 문장 전체인 '그는 다시 올 것이다.'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이다.

오답풀이 ① 부사 '매우'가 형용사 '부지런하다'를 꾸며 준다.

- ② 부사 '아주'가 관형사 '헌'을 꾸며 준다.
- ③ 부사 '급히'가 동사 '멈추었다'를 꾸며 준다.
- ④ 부사 '빨리'가 동사 '달리는구나'를 꾸며 준다.

지식 더하기

부사가 꾸며 주는 대상

용언	그는 운동을 매우 잘한다. → 부사 '매우'가 용언 '잘한다'를 꾸밈.
부사	학교에 엄청 빨리 도착했다. → 부사 '엄청'이 부사 '빨리'를 꾸밈.
관형사	아주 헌 신발을 버렸다. → 부사 '아주'가 관형사 '헌'을 꾸밈.
문장 전체	분명히 그녀는 다시 나타날 것이다. → 부사 '분명히'가 문장 전체를 꾸밈.

05 <보기>는 성분 부사 중에서도 지시 부사에 대한 설명이다. '내일'은 동사 '만나자'를 꾸며 주고 있고, 시간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지시 부사이다.

오답풀이 ② 부정 부사 '안'이 사용되었다.

- ③ 접속 부사 '그리고'가 사용되었다.
- ④ 성상 부사 '빨리'가 사용되었다.
- ⑤ 성상 부사 '무력무력'이 사용되었다.

06 ㉠의 '새'는 명사 '친구'를, ㉡의 '이'는 명사 '학교'를, ㉢의 '한'은 명사 '시간'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반면에 ㉣의 '정말'은 형용사 '반가워'를, ㉤의 '같이'는 동사 '할래'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07 동사는 움직임이 주어에만 관련되는 자동사와, 움직임이 목적어에 미치는 타동사가 있다. ㉠의 동사 '먹는다'는 목적어인 '간식'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지식 더하기

동사의 종류

자동사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 예 바닥에 <u>앉</u> 다.
타동사	움직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예 어머니가 빗자루를 <u>찾</u> 다.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부사어 (2) 보조사 (3) 자유로운

- (1)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품사이다.
(2)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는 동사나 형용사처럼 '이니, 이구나' 등으로 활용한다.
(3)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독립언이다.
- (1) '예, 에서, 에게' 등은 부사격 조사로 앞의 체언이 부사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이다.
(2) '은/는, 도, 만, 부터, 요'와 같이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는 보조사이다.
(3)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는 독립언으로, 대체로 조사가 붙지 않고 문장 안에서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 접속 조사 ㉡ 격 조사 ㉢ 보조사 2 (1) ㉠ (2) ㉢ (3) ㉡ 3 아야, 아이, 깜짝이야, 아이고

- (1) '랑'은 '사과'와 '배'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2) '에'는 '집'이 부사어의 자격을 갖도록 해 주는 격 조사이다.
(3) '도'는 '많이'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 (1) '가'는 앞의 체언인 '영호'가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주격 조사이다.
(2) '의'는 앞의 체언인 '엄마'가 관형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관형격 조사이다.
(3) '야'는 앞의 체언인 '채연'이 독립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호격 조사이다.
-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부름, 대답, 놀람, 느낌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아야, 아이, 깜짝이야, 아이고'는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기본 다지기

01 ③ 02 ⑤ 03 ⑤ 04 ④

- 조사는 홀로 쓸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된다. 조사가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그 체언의 문법적 역할을 나타낸다.
- '오늘은요, 학교에서만이'처럼 조사는 여러 개를 겹쳐 쓸 수 있다.
- 서술격 조사 '이다'는 '이니, 이구나, 였다'처럼 형태가 변할 수 있으나, 다른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조사는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



지식 더하기

단어의 개념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또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 '땡도'에서 '도'는 체언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로,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더한다.

오답풀이

- '에게'는 체언 '나'가 부사의 자격을 갖게 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 '이'는 '아니다' 앞에서 체언 '대학생'이 보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보격 조사이다.
- '을'은 체언 '미술'이 목적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목적격 조사이다.
- '께서'는 체언 '할아버지'가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주격 조사로,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 사용한다.

- <보기>의 '그래'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감탄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오답풀이

-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 감탄사는 독립언으로, 문장 안에서 위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 감탄사는 말하는 이의 놀람이나 느낌 등을 나타낸다.
- 감탄사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며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 '청춘'의 품사는 명사로, 감탄사가 아니다.

오답풀이

- '아차'는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이봐'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아니오'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아이고'는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실력 쌓기

01 ④ 02 ⑤ 03 ③ 04 ③ 05 ① 06 ③

- ㉠ '와'는 '나'와 '동생'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 '께서'는 체언을 주어로 만드는 주격 조사 '이/가'의 높임 표현이다. ㉢ '도'는 놀람의 감정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이다.
- ㉠의 조사 '이'는 앞말 '얼음'이 보어임을 나타내며, ㉡의 조사 '에서'는 앞말 '도서관'이 부사어임을 나타낸다. 이처럼 조사는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 ① ㉠의 조사 '이'는 앞말 '얼음'이 보어임을 나타내는 보격 조사이다.
 ②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는 접속 조사이다. ㉠의 '이'는 격 조사 중 보격 조사이다.
 ③ ㉡의 '에서'는 앞말이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어임을 나타낸다.
 ④ ㉠의 '이'와 ㉡의 '에서'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지식 더하기

보어의 개념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가 아닌 것에 해당하는 말이다. 체언에는 '이/가'가 붙은 형태로 나타난다.

- 예 • 나는 회장이 되었다.
 • 지금은 오후가 아니다.

- 03 '인생은'에서 '은'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오답풀이

- ①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②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④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⑤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하나 남은 마지막임을 나타낸다.

- 04 <보기>는 감탄사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된 문장 속의 감탄사는 '예뻐, 천만에, 자'로 총 3개이다.

지식 더하기

독립언: 감탄사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감탄사가 이에 속한다. 감탄사는 부름, 대답, 놀람, 느낌 등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예 앗 감짝이야.

- 05 독립언은 감탄사를 말하며, 제시된 문장에 쓰인 감탄사는 ㉠ '아'이다.

오답풀이

- ② ㉡(다시)은 서술어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③ ㉢(말하다)은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이다.
 ④ ㉣(잡)은 '들어 주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⑤ ㉤(들어 주렴)은 봉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태로,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이다.

- 06 '산에서'의 '에서'는 '장소'의 의미를 갖게 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풀이

- ① '대화로'에서 '로'는 수단의 의미를 갖게 한다.
 ② '회장으로서'에서 '으로'는 자격의 의미를 갖게 한다.
 ④ '집에'의 '에'는 도착점의 의미를 갖게 한다.
 ⑤ '너에게'에서 '에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DAY

단어의 형성 1

본문 051~053쪽

핵심만 바로 체크

- 1 (1) ○ (2) × (3) ○ 2 (1) 자립 (2) 단어 (3) 접사

- 1 (1) 단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이루어진다.
 (2)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며,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또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다.
 (3) 형태소는 자립할 수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홀로 쓰일 수 없고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의존 형태소로 나뉜다.
 2 (1)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로, '서울'은 자립 형태소에 해당한다.
 (2)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또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다. '맑-'과 '-다'는 형태소일 뿐, 단어는 아니다.
 (3) '꽃사과'에서 '꽃-'은 어근 앞에 붙어 그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접사이며, '사과'는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인 어근이다.

예시로 바로 연습

- 1 (1) 나, 오늘, 일찍 (2) 는, 자-, -겠-, -다 (3) 나, 오늘, 일찍, 자- (4) 는, -겠-, -다 2 (1) 동생, 이, 라면, 을, 먹는다 (2) 동생, 이, 라면, 을, 먹-, -는-, -다 3 (1) ㉠ (2) ㉢ (3) ㉠

- 1 (1) <보기>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는 '나, 오늘, 일찍'이다.
 (2) <보기>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는 '는, 자-, -겠-, -다'이다.
 (3) <보기> 문장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인 실질 형태소는 '나, 오늘, 일찍, 자-'이다.
 (4) <보기> 문장에서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는 '는, -겠-, -다'이다.
 2 (1)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또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로, <보기>의 문장을 단어로 나누면 '동생, 이, 라면, 을, 먹는다'이다.
 (2)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보기>의 문장을 형태소로 나누면 '동생, 이, 라면, 을, 먹-, -는-, -다'이다.
 3 (1) ㉠의 '손등'은 어근 '손'과 어근 '등'이 결합한 단어이다.
 (2) ㉢의 '햇과일'은 접사 '햇-'과 어근 '과일'이 결합한 단어이다.
 (3) ㉠의 '달님'은 어근 '달'과 접사 '-님'이 결합한 단어이다.

기본 다지기

01 ③ 02 ④ 03 ⑤ 04 ⑤

01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 즉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이며,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이다.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를 말한다.

오답풀이 ① 형태소는 '산, 딸기, 가, 달-, -다'와 같이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의미한다.

② 형태소인 '산'을 'ㅅ, ㅌ, ㄴ'처럼 더 나누거나 '딸기'를 '딸, 기'로 더 나눈다면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잃어버린다.

④ 단어는 '딸기'처럼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형태소 '달-'과 '-다'가 결합한 '달다'처럼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⑤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과,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을 의미한다.

02 형태소는 자립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으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④의 '크-'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다'와 같은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며,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다.

오답풀이 ① '집'은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② '이'는 홀로 쓰일 수 없어 '집'과 같은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자, '집'이 문장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③ '매우'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⑤ '-다'는 홀로 쓰일 수 없어 '크-'와 같은 다른 형태소와 같이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자, 문장이 종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지식 더하기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 자립 형태소: '가방', '나무', '우리', '매우', '누구' 등과 같이 홀로 하나의 단어를 형성할 수 있다.
- 의존 형태소: '뛰-', '-겠-', '-다', '을/를' 등과 같이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단어를 형성할 수 있다.

03 '하늘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에서 실질 형태소는 '하늘, 보-, 기분, 좋-'으로 4개이며, 형식 형태소는 '을, -니, 이, -았-, -다'로 5개이다. 따라서 실질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에 비해 개수가 적다.

오답풀이 ① '하늘, 을, 보니, 기분, 이, 좋았다'의 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② 조사 '을'과 '이'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

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으므로 단어로 인정한다.

③ '하늘, 을, 보-, -니, 기분, 이, 좋-, -았-, -다'의 9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④ 의존 형태소는 '을, 보-, -니, 이, 좋-, -았-, -다'로 7개이며, 자립 형태소는 '하늘, 기분'으로 2개이다. 따라서 의존 형태소가 자립 형태소보다 개수가 많다.

04 '책가방'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인 어근 '책'과 '가방'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오답풀이 ① '먹이'는 동사 '먹다'의 어근 '먹-'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② '헛기침'은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헛-'과 어근 '기침'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③ '웃사'는 '처음 나온, 덜 익은'을 뜻하는 접두사 '웃-'과 어근 '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④ '사냥꾼'은 어근 '사냥'에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실력 쌓기

01 ② 02 ② 03 ⑤ 04 ③ 05 ① 06 ⑤
07 ④

01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더 작은 단위로 나누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다.

오답풀이 ① 문장에서 띄어 쓰는 단위는 형태소가 아니라 어절이다.

③ 하나의 덩어리로 소리 낼 수 있는 말의 단위는 음절이다.

④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음운이다.

⑤ 문장에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단어이다.

지식 더하기

음운, 음절, 어절, 문장의 개념

-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 음절: 하나의 덩어리로 소리 낼 수 있는 말의 단위
- 어절: 문장을 구성하는 도막의 마디로, 띄어쓰기의 단위
- 문장: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

02 '푸르다'는 '푸르- + -다'로, 2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단어이다.

03 ㉠의 '골랐다'는 '고르- + -았- + -다'가 결합한 단어이다.

04 '맛있다'의 '있-'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면서 홀로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다.

오답풀이 ① '강'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이다.

② '다발'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이다.

④ '-다'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⑤ '-하-'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05 '우리'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다.

오답풀이 ② '느'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다.

③ '어제'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④ '놀-'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⑤ '-았-'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다.

06 접사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접사는 어근과 달리 홀로 단어를 이루지 못하고, 어근과 결합해서만 단어를 이룰 수 있다.

② 어근 '장난'과 접사 '-꾸러기'가 결합한 '장난꾸러기'처럼 어근과 접사를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할 수 있다.

③ '사과', '나무'처럼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한다.

④ 접두사는 '맨손'의 '맨-'처럼 어근의 앞에 붙는 접사를, 접미사는 '겉쟁이'의 '-쟁이'처럼 어근의 뒤에 붙는 접사를 말한다.

07 '높다랗다'는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다랗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오답풀이 ① '치솟다'는 접사 '치-'와 어근 '솟다'가 결합한 단어이다.

② '걸레질'은 어근 '걸레'와 접사 '-질'이 결합한 단어이다.

③ '무사히'는 어근 '무사'와 접사 '-히'가 결합한 단어이다.

⑤ '잠꾸러기'는 어근 '잠'에 접사 '-꾸러기'가 결합한 단어이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1) 고슴도치 (2) 치솟다 (3) 떡국 2 (1) 오가다 (2) 물걸레
(3) 춘추(나이) 3 (1) ㉠ (2) ㉡ (3) ㉢

1 (1) '고슴도치'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2) '치솟다'는 접사 '치-'와 어근 '솟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3) '떡국'은 두 개의 어근인 '떡'과 '국'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2 (1) '오가다'는 두 개의 어근 '오-'와 '가다'가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하게 결합하여 만들어진 대등 합성어이다.
(2) '물걸레'는 두 개의 어근 '물'과 '걸레'가 결합한 합성어로, '물'이 '걸레'를 꾸며 주는 종속 합성어이다.
(3) '춘추'는 어근 '춘'과 '추'가 결합할 때, 각각의 어근이 지닌 원래 의미를 벗어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융합 합성어이다.

3 (1) '엄지족'은 어근 '엄지'와 접미사 '-족'이 결합한 단어로, 파생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새말이다.
(2) '열공(열심히 + 공부하다)'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하여 만든 새말이다.
(3) '웃프다(웃기다 + 슬프다)'는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새말이다.

DAY 1

단어의 형성 ②

본문 055~057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복합어 (2) 어근 (3) 새말

1 (1)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 즉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2)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못하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3) 접사 없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합성어이며,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파생어이다.

2 (1) 복합어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로 나뉜다.

(2)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접사는 어근의 앞 또는 뒤에 붙는다.

(3) 새말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말이다.

기본다지기

01 ② 02 ② 03 ④ 04 ③

01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단일어이며, 접사 없이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는 합성어,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파생어이다. 따라서 ㉠에는 단일어, ㉡에는 합성어, ㉢에는 파생어가 들어간다.

02 <보기>는 융합 합성어에 대한 설명이다. '마소'는 어근 '말'과 '소'가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하게 결합한 대등 합성어이다.

03 '조용히'는 '조용하다'의 어근 '조용'과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품사가 부사로 변화하였다.

오답풀이 ① 어근 '부채'와 접미사 '-질'이 결합해 명사 '부채질'이 되었으며, 접사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근의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

② 접사 '치-'와 어근 '뜨다'가 결합해 동사 '치뜨다'가 되었으며, 접사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근의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

③ 어근 '더욱'과 접사 '-이'가 결합해 부사 '더욱이'가 되었으며, 접사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근의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

⑤ 접사 '헛-'과 어근 '고생'이 결합해 명사 '헛고생'이 되었으며 접사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근의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

04 '라볶이(라면 + 떡볶이)'는 각 단어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한 새말이다.

- 오답풀이** ① '인강'은 '인터넷 강의'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새말이다.
 ② '심쿵'은 '심장이 쿵'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새말이다.
 ④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새말이다.
 ⑤ '오운완'은 '오늘의 운동 완료'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새말이다.

실력 쌓기

01 ③ 02 ④ 03 ② 04 ③ 05 ⑤ 06 ③

- 01 접두사는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는 못한다.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는 접미사이다.

- 오답풀이** ①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② 단어 중 어근, 즉 실질 형태소가 하나뿐인 것을 단일어라고 한다.
 ④ 합성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ㅅ'이 첨가되거나 'ㄹ'이 탈락하는 등 단어의 형태가 변화하기도 한다.
 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 각각의 어근이 가진 원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를 융합 합성어라고 한다.

- 02 '소설책'은 '소설(어근) + 책(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 오답풀이** ① '새파랗다'는 '새-(접사) + 파랗다(어근)'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② '맨땅'은 '맨-(접사) + 땅(어근)'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③ '넓이'는 '넓-(어근) + -이(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⑤ '어른스럽다'는 '어른(어근) + -스럽다(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03 '군침'은 '공연히 입안에 도는 침'을 의미하며, '겉쟁이'는 '겉이 많은 사람을 낚잡아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 04 ㉠은 '부르다'라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 오답풀이** ① '마음껏'은 '마음(어근) + -껏(접사)'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② '뛰놀다'는 '뛰-(어근) + 놀다(어근)'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④ '빨리'는 '빠르-(어근) + -이(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⑤ '들어오렴'은 '들-(어근) + 오-(어근)'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 05 '네티켓(네트워크 + 에티켓)'은 각 단어의 일부분을 파서 결합한 새말이다.

- 오답풀이** ① '먹방(먹+방)'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결합한 말이다.
 ② '금손(금+손)'은 두 어근을 결합한 합성의 방법으로 만든 말이다.
 ③ '누리꾼(누리+꾼)'은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는 파생의 방법으로 만든 말이다.
 ④ '전자책'은 외국에서 들어온 말(E-Book)을 우리말로 다듬은 말이다.

- 06 '부채질'은 어근 '부채'에 접미사 '-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어근의 품사가 명사로 동일하다.

- 오답풀이** ① '먹이'는 동사 '먹다'의 어근 '먹-'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어근의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변화하였다.
 ② '웃음'은 동사 '웃다'의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어근의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변화하였다.
 ④ '영원히'는 명사 어근 '영원'에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어근의 품사가 명사에서 부사로 변화하였다.
 ⑤ '건강하다'는 명사 어근 '건강'에 접미사 '-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어근의 품사가 명사에서 형용사로 변화하였다.

DAY 1 어휘의 체계와 양상

본문 059~061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고유어 (2) 외래어 (3) 표준어

- 1 (1) 우리말의 어휘는 어원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은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어휘를 분류한 것이다.
 (2)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로, 우리말 어휘를 풍부하게 해 준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우리말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3) 옛말의 자취가 남아 있어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언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인 지역 방언(사투리)이다.
- 2 (1) '쓰다'가 '글씨를 종이에 쓰다.', '소설을 쓰다.'로 사용될 수 있듯이, 고유어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다의어가 많다.
 (2) 외래어는 외국과의 문화적 교류 과정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다.
 (3) 지역 방언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로, 해당 지역의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 상관 없이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지역 방언보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1) 치마, 개나리 (2) 감기, 냉면 (3) 택시, 아르바이트 2 (1) 정구지(부추), 오이소(오세요) (2) 스카(스터디 카페), 버정(버스 정류장) 3 (1) ㉠ (2) ㉡ (3) ㉢

- 1 (1) '치마, 개나리'는 고유어이다.
 (2) '감기(感冒), 냉면(冷麵)'은 한자어이다.
 (3) '택시(taxi), 아르바이트(arbeit)'는 외래어이다.

- 2 (1) '부추'를 의미하는 '정구지', '오세요'를 의미하는 '오이소'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인 지역 방언이다.
 (2) '스카(스터디 카페)', 버정(버스 정류장)은 줄임말로, 청소년 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사회 방언이다.
- 3 (1) '소식적(젊었을 때)'은 기성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사회 방언(기성세대 언어)이다.
 (2) '악플'은 인터넷 매체가 발전하면서 새롭게 생긴 '악의적인 댓글'을 의미하는 사회 방언(인터넷 언어)이다.
 (3) '상기도 감염'은 의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사회 방언(전문어)이다.

기본 다지기

01 ② 02 ④ 03 ② 04 ④

- 01 한자어는 일반적으로 고유어에 비해 그 뜻이 분화된 경우가 많아,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오답풀이** ①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③ 우리말 어휘는 어원에 따라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할 수 있다.
 ④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로, 외국과의 문화적 교류 과정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⑤ 고유어는 우리말에 본디 있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로, 우리 민족이 지닌 고유의 정서나 문화가 담겨 있다.

지식 다하기

외래어와 외국어

	외래어	외국어
공통점	외국에서 들어온 말	
차이점	해당 어휘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존재하지 않음. 예) 커피, 피아노	해당 어휘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존재함. 예) 와이프 → 아내

- 02 ㉠의 '기차(汽車), 연세(年歲), 추억(追憶)'은 한자어, ㉡의 '가방(kaban), 첼로(cello), 파스타(pasta)'는 외래어, ㉢의 '손, 꽃샘, 하늘'은 고유어이다.
- 03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 오답풀이** ① 지역 방언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로, 각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문화를 담고 있다.
 ③ 표준어와 지역 방언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④ 지역 방언은 문학 작품 등에서 특정한 분위기를 형성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⑤ 지역 방언은 오래 전부터 각 지역에서 사용해 오던 말로, 옛말의 자취가 남아 있어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 04 '레가토'는 악보에서, 둘 이상의 음을 이어서 부드럽게 연주하라는 말이며, '트리플렛'은 이등분하여야 할 음표를 삼등분하여 한데 묶어 나타낸 것이다. 이들은 지휘자, 작사가, 연주가 등 음악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할 때 쓰는 전문어이다.

- 오답풀이** ① 전문어는 한자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한자어나 예의를 갖춘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은 기성세대 언어이다.
 ② 전문어는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③ 인터넷 언어에 대한 설명이다.
 ⑤ 새롭게 생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은 새말이다. 인터넷 언어는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 새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력 쌓기

01 ③ 02 ④ 03 ① 04 ③ 05 ① 06 ⑤

- 01 <보기>에 제시된 고유어들은 '매끄러운 느낌이나 상태'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고유어는 모양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가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고유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다의어가 많다. 하지만 <보기>의 단어들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에 해당한다.
 ② 우리말 어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휘는 한자어이다.
 ④ 우리말로 쓰인 지 오래된 외래어일지라도 고유어와 어원이 다르기 때문에 고유어로 분류하지 않는다.
 ⑤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우리말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는 어휘는 외래어이다.

- 02 <보기>에 제시된 한자어 '예감(豫感), 감상(感想), 심정(心情)'은 고유어 '느낌'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고유어에는 여러 개의 한자어가 대응한다.

- 오답풀이** ① 한자어에는 개념을 표현하는 말이나 추상적인 대상을 표현하는 말이 많다.
 ② 고유어 '느낌'이 한자어 '예감, 감상, 심정'의 뜻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의미의 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⑤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그 뜻이 분화된 경우가 많아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식 다하기

한자어의 특징

- 우리말 어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개념어나 추상어가 많고, 고유어에 비해 분화된 의미를 지녀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03 우리말의 어휘는 어원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할 수 있다. '김, 지우개'는 고유어, '색연필(色鉛筆), 두유(豆乳)'는 한자어, '볼펜(ball pen), 초콜릿(chocolate)'은 외래어이다.

04 '누룽지'를 지역에 따라 '깡밥, 강개' 등으로 다르게 부르는 것은 사회 방언이 아닌 지역 방언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프사'와 '생파'는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만든 표현으로, 청소년어에 해당한다. 청소년어는 사회 방언 중 세대별 어휘로 구분할 수 있다.

② '평안'과 '염려'는 한자어 표현으로, 나이가 든 어른이 주로 사용하는 기성세대 언어이다. 기성세대 언어는 사회 방언 중 세대별 어휘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어레스트'는 의학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어로, 사회 방언에 속한다.

⑤ '숯'은 영화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어로, 사회 방언에 속한다.

05 ㉠의 '인플루언서'는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 인터넷 언어이다.

06 (가)는 공적인 상황으로, 방송을 보는 대중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는 비공식적인 상황으로,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표준어와 지역 방언은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상대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DAY 1

단어의 의미 관계

본문 063~065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상의어, 하의어 (2) 의미 (3) 다의어

- (1) 유의 관계의 단어들은 그 의미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어 서로 바꾸어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2) 반의 관계의 단어들은 단어 사이에 한 가지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의미 요소는 공통적이어야 한다.
(3) 상하 관계는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관계이다.
- (1) 상하 관계에서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고 한다.
(2) 동형이의어는 형태와 발음이 같지만 의미가 다른 별개의 단어이다.
(3)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뜻을 지닌 단어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가 중심적 의미가 되고, 중심적 의미로부터 파생 또는 연상되어 쓰이는 의미가 주변적 의미가 된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1) ㉠ (2) ㉡ (3) ㉢ 2 (1) 다의 (2) 동형이의 3 발

- (1) '웃'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 '한복'은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하 관계'이다.
(2) '잡다'와 '놓다'는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반의 관계'이다.
(3) '입다'와 '쓰다'는 의미가 비슷한 '유의 관계'이다.

- (1) ㉠의 '가다'는 각각 '수레, 배, 자동차, 비행기 따위가 운행하거나 다니다', '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쏠리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동하다, 옮겨지다'라는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다의 관계이다.
(2) ㉡의 '배'는 형태와 발음이 같을 뿐 의미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동형이의의 관계에 해당한다.

- <보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발'이다. 동형이의어는 형태와 발음이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로 사전에 발¹, 발², 발³과 같이 제시된다.

기본 다지기

01 ④ 02 ③ 03 ⑤ 04 ④

- '곱다 - 예쁘다'는 단어들의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유의 관계이다.

오답풀이 ① '열다'와 '닫다'는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반의 관계이다.
② '걸다'와 '뛰다'는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반의 관계이다.
③ '밝다'와 '어둡다'는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반의 관계이다.
⑤ '물다'와 '대답하다'는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반의 관계이다.

- '비슷하다'는 '두 개의 대상이 크기, 모양, 상태, 성질 따위가 똑같은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은 상태에 있다.'를 의미한다. 이와 유의 관계인 단어는 '같다, 닮다' 등이 있으며, 반의 관계인 단어는 '다르다'가 있다. 유의 관계의 단어 중, '같다'는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두 단어는 의미상 미묘한 차이가 있으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지식 더하기

'다르다'와 '틀리다'의 의미

- 다르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예 다르다 ↔ 같다
- 틀리다: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거나 어긋나다.
예 틀리다 ↔ 맞다

- 상하 관계는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관계이다. 이때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라고 하는데, 하의어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보기>의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문학'을 모두 포괄하는 상의어는 '예술'이다.

04 <보기>의 '다리', '다리', '다리'는 사전에서 별개의 단어로 제시하는 동형어의 관계로, 형태와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 오답풀이** ① 동형어의 관계의 단어는 별개의 단어이다.
 ② 동형어의 관계의 단어는 의미의 연관성이 없지만, 다의어는 의미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
 ③ 다의어는 의미를 서로 연상할 수 있지만, 동형어의어는 그렇지 않다.
 ⑤ 다의어는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가 존재하지만, 동형어의어는 그렇지 않다.

실력 쌓기

01 ⑤ 02 ② 03 ④ 04 ② 05 ① 06 ①

01 ㉠의 '작다'와 ㉡의 '적다'는 유의 관계로, 의미가 유사하지만 미묘한 의미 차이를 지녀 완전히 같지는 않다.

- 오답풀이** ① ㉠ '작다'의 반의어는 '크다', ㉡ '적다'의 반의어는 '많다' 등으로, 반의어가 동일하지 않다.
 ② 핵심적인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다의 관계에 해당한다.
 ③ 단어 사이에 한 가지 의미 요소만 다른 단어는 반의 관계를 가진다.
 ④ ㉠ '작다', ㉡ '적다'는 모두 고유어이다.

02 상의어인 '옷'은 하의어인 '치마, 바지, 외투'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 오답풀이** ① '옷'은 '치마, 바지, 외투'의 상의어이다.
 ③ '치마, 바지, 외투'는 '옷'에 비해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하의어이다. 따라서 하의어인 '치마, 바지, 외투'가 상의어인 '옷'에 포함된다.
 ④ '치마'와 '바지'는 '옷'의 하의어일 뿐, 두 단어가 유의 관계는 아니다.
 ⑤ '바지'와 '외투'는 '옷'의 하의어일 뿐, 둘 이상의 의미 요소가 다르므로 반의 관계는 아니다.

03 ㉠ '위 - 아래'는 '방향'이라는 의미 요소가 대립하는 반의 관계이다. ㉡ '학교'는 '중학교'의 상의어이므로 상하 관계이다. ㉢ '오늘 - 금일(今日)'은 의미가 비슷한 유의 관계이다.

지식 더하기

유의어의 발달 요인

- 우리말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함께 쓰인다.
 예) 아내(고유어) - 부인(한자어) - 와이프(외래어)
- 우리말은 높임법이 발달했다. 예) 밥 - 진지
- 우리말은 감각어, 색채어가 발달했다.
 예) 파랗다 - 푸르다 - 푸르스름하다
- 금기어에 대응하는 완곡어가 등장했다. 예) 천연두 - 마마

04 다의어는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반의어가 대립할 수 있다. '책임을 벗는다'의 '벗다'는 '의무나 책임 따위를 면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때 '벗다'의 반의어로는 '책임이나 의미를 맡다'를 의미하는 '지다'가 있다. '면하다'는 '벗다'의 유의어이다.

오답풀이 ① '장갑을 벗었다'에서 '벗다'는 '사람이 자기 몸 또는 몸의 일부에 착용한 물건을 몸에서 떼어 내다'라는 뜻으로, 반의어로는 '끼다'가 있다.

- ③ '신발을 벗어야 한다'의 '벗다'는 '사람이 자기 몸 또는 몸의 일부에 착용한 물건을 몸에서 떼어 내다'라는 뜻으로, 반의어로는 '신다'가 있다.
 ④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의 '벗다'는 '누명이나 치욕 따위를 씻다'라는 뜻으로, 반의어로는 '쓰다'가 있다.
 ⑤ '가방을 벗어'에서 '벗다'는 '매거나 진 배낭이나 가방 따위를 몸에서 내려놓다'라는 뜻으로, 반의어로는 '메다'가 있다.

05 다의어는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중심적 의미로부터 주변적 의미가 파생된 것이므로, 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된다. 반면에 동형어의어는 형태와 발음은 같지만 다른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사전에 '벌¹, 벌², 벌³'과 같이 다른 단어로 등재된다.

06 '공기'는 각각 '밥 따위의 분량을 세는 단위'와 '지구를 둘러싼 대기의 하층부를 구성하는 기체'를 말한다. 두 단어는 형태와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동형어의 관계의 단어이다.

- 오답풀이** ② '타다'는 '불씨나 높은 열로 불이 붙어 번지거나 불꽃이 일어난다', '피부가 햇빛을 오래 쬌어 검은색으로 변하다'를 말하는 것으로, 두 단어는 다의 관계의 단어이다.
 ③ '배'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창자, 콩팥 따위의 내장이 들어 있는 곳으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긴 물건 가운데의 볼록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두 단어는 다의 관계의 단어이다.
 ④ '손'은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두 단어는 다의 관계의 단어이다.
 ⑤ '쓰다'는 '머릿속의 생각을 종이 혹은 이와 유사한 대상 따위에 글로 나타내다', '머릿속에 떠오른 곡을 일정한 기호로 악보 위에 나타내다'를 말하는 것으로, 두 단어는 다의 관계의 단어이다.

고득점 도전하기

본문 066~069쪽

01 ⑤ 02 ④ 03 ㉠: '영호'가 목적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
 ㉡: '영호'뿐이라는 한정 의미의 뜻을 덧붙인다. 04 ① 05 ④
 06 ⑤ 07 ④ 08 ⑤ 09 ③ 10 ② 11 ④
 12 ⑤ 13 ① 14 ⑤ 15 ① 16 ③ 17 ④
 18 ③ 19 ② 20 ⑤ 21 ① 22 ③

01 우리말의 품사는 형태에 따라 '불변어, 가변어'로,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나뉜다. ㉢ '의미'에 따라 나누면 '새'는 체언 '학생'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오답풀이 ① ㉠ '형태'에 따라 나누면 '우리'는 불변어인 반면, '이다'는 가변어이다.

② ㉡ '기능'에 따라 나누면 '학생'은 문장에서 주로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하는 체언이다.

③ ㉢ '기능'에 따라 나누면 '첫째'는 문장에서 주로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하는 체언이다.

④ ㉣ '의미'에 따라 나누면 '우리'는 명사, '우리'는 대명사로 다른 품사이다.

02 ㉠은 수사, ㉡과 ㉢은 대명사, ㉣과 ㉤은 명사이다.

03 ㉠ '를'은 '영호'가 목적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목적격 조사이다. ㉡ '만'은 '민수'가 잡은 사람이 '영호'뿐이라는 한정 의미의 덧붙이는 보조사이다.

04 <보기>의 동사 '앉다'와 다르게 형용사 '높다'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ㄴ-/-는-',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할 수 없다. '찾다, 입다, 부르다, 돌아오다'는 모두 동사로 <보기>와 같이 활용이 가능하다.

05 <보기>는 감탄사에 대한 설명이며 '첫째, 밥을 잘 먹어야 해.'에는 감탄사가 쓰이지 않았다. '첫째'는 감탄사가 아니라 수사이다.

오답풀이 ① 말하는 이의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 '네'가 쓰였다.

② 말하는 이의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 '여보세요'가 쓰였다.

③ 상대방의 대답을 재촉할 때 쓰는 감탄사 '응'이 쓰였다.

⑤ 말하는 이의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 '이런'이 쓰였다.

지식 더하기

감탄사의 개념과 특성

- 개념: 말하는 이의 부름, 대답, 놀람, 느낌 등을 나타냄.
 - 특성: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므로,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됨.
- 예 아, 제가 늦었습니다. → 감탄사 '아'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함.

06 <보기>의 문장은 '우아(감탄사), 그(대명사), 의(조사), 팔(명사), 조사(은), 나뭇가지(명사), 처럼(조사), 가늘어(형용사)'로 분석할 수 있다. 수사, 관형사, 부사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형용사(가늘어)가 사용되었으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처럼'은 체언(명사)인 '나뭇가지'와 결합했으므로 조사이다.

③ '가늘어'의 기본형은 '가늘다'로 '가늘어, 가늘고, 가늘면, 가느냐'와 같이 형태가 변한다.

07 ㉠의 '예'는 '윗사람의 부름에 대답하거나 묻는 말에 긍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로 감탄사이다.

오답풀이 ① ㉠ '나라'는 명사, ㉡ '저것'은 대명사이다.

② ㉢ '얼마나'는 부사로 뒤에 오는 서술어를 꾸며 주지만, ㉣ '이나'는 조사로 체언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준다.

③ ㉤ '무척'은 부사이다.

⑤ ㉠ '열흘'은 명사, ㉡ '여기'는 대명사이다.

08 ㉠ '먹는다'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면 '먹-', '-는-', '-다'이다.

09 '김밥'은 형태소 '김'과 '밥'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지식 더하기

형태소와 단어의 관계

- 단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다.

단어	하나의 형태소 ㉠ 강, 산, 뛰다
복합어	두 개 이상의 형태소 ㉡ 밤나무, 치솟다

- 형태소 중에서 자립 형태소는 단어이다.

예 집, 차, 길 등

- 조사는 자립 형태소가 아니지만 단어이다.

예 이/가, 을/를, 에서, (으)로 등

- 형태소는 최소의 의미를 갖지만, 단어는 형태소가 결합하여 의미를 지닌다.

예 김밥 → 형태소: 김, 밥 / 단어: 김밥

10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것은 합성어이다. ㉠ '앞뒤'는 어근 '앞'과 어근 '뒤'가 결합한 합성어이며, ㉡ '강산'은 어근 '강'과 어근 '산'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군고구마'는 동사 '굽다'의 어근 '굽-'에 명사 '고구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오답풀이 ㉣ '햇일'은 접사 '-햇'과 어근 '일'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 '풋잠'도 접사 '풋-'에 어근 '잠'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지식 더하기

의미 관계에 따른 합성어의 분류

대등 합성어	두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한 합성어 예 앞 + 뒤 → 앞뒤
종속 합성어	한쪽의 어근이 다른 한쪽의 어근을 꾸며 주는 합성어 예 돌 + 다리 → 돌다리
융합 합성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 어근이 가진 원래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어 예 • 피 + 땀 → 피땀(피와 땀이 날 정도의 노력, 정성) • 밤 + 낮 → 밤낮(항상)

11 '겹쟁이'는 명사 '겹'에 접미사 '-쟁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파생어로, 명사이다. 따라서 어근의 품사는 달라지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느낌'은 동사의 어근 '느끼-'에 접미사 '-ㅁ'이 붙어 명사가 된다.

② '정답다'는 명사 '정'에 접미사 '-답다'가 붙어 형용사가 된다.

③ '지우개'는 동사의 어근 '지우-'에 접미사 '-개'가 붙어 명사가 된다.

⑤ '공부하다'는 명사 '공부'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 동사가 된다.

12 <보기>는 접사 '-장이'의 의미이다. '양복장이'는 '양복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보’는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을 의미하는 접미사로, ‘궤보’는 ‘잔궤가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② ‘-쟁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접미사로, ‘멋쟁이’는 ‘멋있거나 멋을 잘 부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③ ‘-꾼’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접미사로, ‘사냥꾼’은 ‘사냥하는 사람. 또는 사냥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④ ‘알-’은 ‘겉을 덮어 쓴 것이나 딸린 것을 다 제거한 진짜’를 의미하는 접두사로, ‘알부자’는 ‘겉보다는 실속이 있는 부자’를 의미한다.

13 ‘검붉다’는 두 어근의 의미가 대등하게 결합된 대등 합성어, ‘뛰어가다’는 ‘달음박질로 빨리 가다’라는 뜻을 지닌 종속 합성어, ‘강산’은 ‘강’과 ‘산’의 원래 의미가 아닌 ‘자연의 경치’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닌 융합 합성어이다.

오답풀이 ① 대등 합성어: 뛰놀다, 팔다리
 ㉠ 종속 합성어: 쌀밥, 국그릇, 책가방, 강바람
 ㉡ 융합 합성어: 돌아가다

14 새말을 만들 때는 가급적 순우리말을 사용해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답풀이 ① ㉠은 어근 ‘알뜰’에 접사 ‘-족’이 결합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② ㉡은 ‘취향’의 ‘취’와 ‘존중’의 ‘존’이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③ ㉢은 ‘네티즌’과 ‘에티켓’의 일부분을 따서 결합해 만든 단어이다.
 ④ ㉣은 고유어 ‘마을’과 외래어 ‘버스’를 결합해 만든 합성어이다.

15 ㉠ ‘햇밤’, ‘햇곡식’은 접두사 ‘햇-’과 어근 ‘밤’, ‘곡식’이 결합한 파생어로, ‘ㅅ’이 첨가된 형태가 아니다.

오답풀이 ② ㉠ ‘화살’은 ‘활(어근)’과 ‘살(어근)’이 결합할 때 ‘ㄹ’이 탈락했다. ‘여달’은 ‘열-(어근)’과 ‘달-(어근)’이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여 ‘여달’이 된 후, ‘여달-(어근)’과 ‘-이(접미사)’가 결합한 것이다.
 ③ ‘갓가지, 엇저녁’은 ‘가지(어근)’와 ‘가지(어근)’, ‘어제(어근)’와 ‘저녁(어근)’이 결합할 때 첫 어근의 끝모음인 ‘ㅣ’와 ‘ㅈ’가 탈락했다.
 ④ ㉡ ‘바느질, 아드님’은 ‘바늘(어근)’과 ‘-질(접미사)’, ‘아들(어근)’과 ‘-님(접미사)’이 결합할 때 ‘ㄹ’이 탈락했다.
 ⑤ ㉢ ‘숫아오르다, 뛰어나다’는 ‘숫-(어근)’과 ‘오르-(어근)’, ‘뛰-(어근)’과 ‘나-(어근)’가 결합할 때 어미 ‘-아-’가 추가되었다.

지식 더하기

접사의 의미와 쓰임

① 접두사

접두사	의미	예
새-	매우 질고 선명하게	새끼말다, 새빨갈다
치-	위로 향하게	치뜨다, 치솟다
맨-	다른 것이 없는	맨발, 맨손
헛-	이유 없는, 보람 없는	헛걸음, 헛수고
덧-	거듭된, 겹쳐 신거나 입는	덧니, 덧신
군-	쓸데없는	군말, 군침

② 접미사

접미사	의미와 기능	예
-질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	망치질, 부채질
-꾸러기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	욕심꾸러기, 장난꾸러기
-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	덮개, 지우개
-하다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사를 만들.	생각하다, 행복하다

16 고유어 ‘고치다’는 한자어인 ‘치료하다, 수선하다, 수리하다, 교정하다, 개정하다’ 등에 대응한다. ③ ‘지난 계획을 고치자.’에서 ‘고치다’는 한자어인 ‘수정(修正)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수리(修理)하다’는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침.’을 의미하므로 ‘오래된 집을 수리하다’와 같이 쓴다.

17 <보기>의 ㉠은 ‘고유어’, ㉡은 ‘한자어’, ㉢은 ‘외래어’이다. 한자어는 우리말 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18 <보기>는 어휘의 양상 중 사회 방언의 예로, ㉠은 전문어, ㉡은 기성세대 언어, ㉢은 인터넷 언어이다. ㉣과 같이 기성세대들이 주로 쓰는 말로는 한자어나 예의를 갖춘 표현이 많다.

19 유의 관계의 단어들은 의미가 같거나 비슷해 바꾸어 쓸 수 있지만,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어 바꾸어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②에서는 ‘잡거나 쥐고 있던 물체를 일정한 곳에 두다’라는 의미의 ‘놓다’와 ‘일정한 곳에 두다’라는 의미의 ‘두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치’가 적절하다.

③ ‘짐어’가 적절하다.

④ ‘두렵다’가 적절하다.

⑤ ‘오르자’가 적절하다.

20 <보기>는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상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⑤의 ‘작고(作故)’는 ‘고인이 되었다.’는 뜻으로, ‘사람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이며, ‘운명(殞命)’은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을 뜻한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유의 관계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신체’는 상의어, ‘손’은 하의어로 상하 관계에 해당한다.

② ‘감정’은 상의어, ‘기쁨’은 하의어로 상하 관계에 해당한다.

③ ‘과목’은 상의어, ‘국어’는 하의어로 상하 관계에 해당한다.

④ ‘요리하다’는 상의어, ‘굽다’는 하의어로 상하 관계에 해당한다.

21 ‘깎다’는 ‘바닥에 댄 채로 잡아당기다.’라는 뜻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반대쪽에서 힘을 가하다.’의 의미를 가진 ‘밀다’의 반의어다. 따라서 ㉠에는 ‘수레를 뒤에서 밀다.’가 적절하다. 한편, ‘나무를 밀다.’에서의 ‘밀다’는 ‘허물어 옮기거나 깎아 없애다.’라는 뜻으로 이에 대한 반의어는 ‘초목의 뿌리나 씨앗 따위를 흙 속에 묻다.’의 의미를 가진 ‘심다’가 적절하다.

22 다의 관계는 사전에 하나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길다’라는 단어 아래 「1.」, 「2.」와 같이 제시된다. 반면 동형이의 관계는 길다, 길다²와 같이 표제어가 다르게 등재된다.

III 문장

DAY 1 문장 성분

본문 073~075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서술어 (2) 목적어 (3) 독립어

- 1 (1)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은 주성분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2) 주어와 보어 모두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다. 한편 주어는 동작,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성분이며,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성분이다.
(3) 관형어는 체언을, 부사어는 용언, 관형어,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속 성분이다. 관형어와 부사어는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 2 (1)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풀이하는 성분으로 동사, 형용사가 그대로 서술어가 되기도 하며,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되기도 한다.
(2) 목적어는 문장에서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로, 서술어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성분이나 목적어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어 성립된다.
(3) 독립어는 문장에서 주성분, 부속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1) 꽃이, 피었네 (2) 저, 활짝 (3) 어머 2 (1) ㉠ (2) ㉡ (3) ㉢
3 (1) 독립어, 부사어, 서술어 (2) 보어 (3) 관형어, 목적어

- 1 (1) '꽃이'는 주어, '피었네'는 서술어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2) '저'는 체언 '꽃'을 꾸며 주는 관형어, '활짝'은 용언 '피었네'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3) '어머'는 감탄사 단독으로 쓰인 독립어로, 독립 성분에 해당한다.
- 2 (1) '빨리'는 용언 '달린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2) '도시의'는 체언 '야경'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3) '아이스크림을'은 서술어 '먹는다'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이다.
- 3 (1) '와'는 감탄사 단독으로 쓰인 독립어, '정말'은 용언 '반갑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 '반갑다'는 주어의 상태를 풀이하는 서술어이다.
(2) '그녀가'는 문장의 주체인 주어, '학생이'는 서술어 '되었다'를 보충하는 보어, '되었다'는 주어의 상태를 풀이하는 서술어이다.

(3) '누나가'는 문장의 주체인 주어, '옛'은 체언 '친구'를 꾸며 주는 관형어, '친구를'은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목적어, '그리워한다'는 주어의 상태를 풀이하는 서술어이다.

기본 다지기

01 ③ 02 ③ 03 ⑤ 04 ⑤

- 01 부속 성분은 주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으로,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생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새 옷이 예쁘다.'에서 관형어 '새'를, '옷이 아주 크다.'에서 부사어 '아주'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되므로 부속 성분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에 따라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의 3가지로 나뉜다.

②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처럼 기능하는 말은 구이다.

④ 문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성분은 주성분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해당한다.

⑤ 독립 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며, 독립어가 해당한다.

지식 더하기

문장 성분과 품사

• **문장 성분**: 어절이 기본 단위가 된다. 결합하는 조사나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

• **품사**: 단어가 갖는 성질을 말하며 단어가 기본 단위가 된다. 형태가 달라져도 품사는 변하지 않는다.

예 노래를 부르니 즐겁다. → '즐겁다'의 문장 성분은 '서술어'이고 품사는 '형용사'이다.

- 02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은 주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가 해당한다. '신이시여'는 체언 '신'에 호격 조사 '이시여'가 붙은 독립어로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민호가'는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성분인 주어이다.

② '보통이'는 서술어 '아니다'를 보충하는 성분인 보어이다.

④ '따져 본다'는 주어의 동작을 풀이하는 성분인 서술어이다.

⑤ '자전거를'은 서술어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성분인 목적어이다.

- 03 '그의'는 체언 '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성립된 관형어로 체언 '시'를 수식하고, '매우'는 부사 단독으로 쓰인 부사어로 동사 '좋아한다'를 수식한다.

오답풀이 ① '주어+부사어+서술어'의 구조로, 부사어(정말)만 쓰였다.

② '관형어+주어+서술어'의 구조로, 관형어(그)만 쓰였다.

③ '관형어+주어+서술어'의 구조로, 관형어(모든)만 쓰였다.

④ '주어+관형어+목적어+서술어'의 구조로, 관형어(녹색의)만 쓰였다.

04 ㉠ '그래도'는 접속 부사가 부사어로 쓰인 것으로,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의 '정윤아'는 체언 '정윤'에 호격 조사 '아'가 붙어 성립된 독립어이며, ㉡의 '응', ㉢의 '아', ㉣의 '후유'는 감탄사 단독으로 쓰인 독립어이다.

지식 더하기

접속 부사어

• 단어 접속 부사어: 체언과 체언을 이어 구를 형성한다.

예 및, 또는, 혹은

• 문장 접속 부사어: 앞뒤 문장을 다양한 의미적인 관계로 이어준다. 예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실력 쌓기

01 ④ 02 ① 03 ② 04 ③ 05 ② 06 ②

01 서술어 '피었다'는 주어(개나리가) 하나만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풀이 ① 서술어 '같다'는 주어(우정은)와 부사어(보석과)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② 서술어 '되었다'는 주어(얼음)와 보어(물)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서술어 '돌았다'는 주어(그는)와 목적어(운동장을)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서술어 '주셨다'는 주어(할머니께서)와 부사어(우리들에게), 목적어(용돈을)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02 '이걸 누구 줄까?'는 '이것을 누구에게 줄까?'가 줄어든 형태로, '누구'는 부사격 조사 '에게'가 생략된 부사어이다.

오답풀이 ② '밥'은 '밥을'에서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된 목적어이다.

③ '죽구도'는 체언 '죽구'에 목적격 조사 대신 보조사 '도'가 붙은 목적어이다.

④ '말씀을'은 체언 '말씀'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은 목적어이다.

⑤ '전화를'은 체언 '전화'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은 목적어이다.

03 서술어 '되다, 아니다'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한다.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은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보어이다.

04 '부사어(아직)+주어(시간이)+부사어(많이)+서술어(남았다)'로 관형어가 쓰이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관형사 '어떤'이 관형어로 사용되어 명사 '분'을 꾸며 주고 있다.

② 관형사 '새'가 관형어로 사용되어 명사 '옷'을 꾸며 주고 있다.

④ 체언 '도시'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관형어로 사용되었으며 명사 '밤경치'를 꾸며 주고 있다.

⑤ 체언 '스페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관형어로 사용되었으며 명사 '수도'를 꾸며 주고 있다.

05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다. '새, 현, 옛'과 같은 관형사는 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한다.

오답풀이 ① 모든 부사는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한다.

③ '그리고,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 부사는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한다.

④ '아름답게, 닳도록'과 같이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붙은 용언의 활용형은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한다.

⑤ '학교에, 학교에서'와 같이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는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한다.

06 ㉠에 제시된 문장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구조이므로,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3개가 쓰였다. ㉡에 제시된 문장은 '독립어+주어+서술어'의 구조이므로, 독립 성분은 독립어 1개가 쓰였다. ㉢에 제시된 문장은 '부사어+관형어+목적어+서술어'의 구조이므로, 부속 성분은 부사어, 관형어 2개가 쓰였다. 따라서 ㉠~㉢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모두 더한 값은 6개이다.

DAY



문장의 짜임 ①

본문 077~079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홀문장 (2) 안은문장 (3) 대등하게, 종속적으로

1 (1)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은 겹문장으로, 겹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2)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위치를 바꾸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의미가 '나열, 대조, 선택' 등과 같이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이기 때문에, 두 문장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가 같다.

(3)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은 두 홀문장이 '원인, 조건, 의도, 배경, 양보' 등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다. 두 홀문장이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2 (1) 문장의 종류는 크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인 홀문장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인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2) 안은문장은 홀문장을 문장 속에서 하나의 성분처럼 포함하는 문장이다.

- (3) 이어진문장은 두 개의 홀문장이 대등한 의미 관계로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과 두 개의 홀문장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1) ㉠, ㉡ (2) ㉢, ㉣ 2 (1) ㉠ (2) ㉢ (3) ㉣ 3 (1) 대등하게 (2) 종속적으로 (3) 종속적으로

- 1 (1) ㉠은 '부사어+주어+부사어+서술어'의 구조, ㉡은 '관형어+주어+관형어+서술어'의 구조로 홀문장이다.
(2) ㉢과 ㉣은 '주어+서술어+주어+서술어'의 구조로 겹문장이다.
- 2 (1) '주어+부사어+서술어'의 구조로 홀문장이다.
(2)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서'에 의해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3)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3 (1)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거나'에 의해 연결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2)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ㄴ지라도'에 의해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3) '배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는데'에 의해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기본 다지기

01 ① 02 ④ 03 ② 04 ①

- 01 홀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이고,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다. 따라서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홀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서술어의 자릿수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③ 이어진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다.

④ 문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문장 성분을 갖춘 온전한 문장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⑤ 이어진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다.

- 02 '배가 부르다.'와 '더 이상은 못 먹겠다.'의 두 홀문장이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서'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 03 '그는 시간이 나다.'와 '그는 책을 읽는다.'의 두 홀문장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며'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③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든지'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④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⑤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나'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04 <보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에 대한 설명이다. ①은 '길이 좋지 않다'와 '너는 길을 조심해라'의 두 홀문장이 '원인(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니'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풀이 ②, ③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씩만 나타난 홀문장이다.

④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⑤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든지'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실력 쌓기

01 ② 02 ③ 03 ④ 04 ③ 05 ② 06 ②

- 01 '주어(우리는)+부사어(열심히)+목적어(손을)+서술어(흔들었다)'의 구조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주어+목적어+서술어+서술어'의 문장 구조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③ '주어+서술어+목적어+서술어'의 문장 구조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④ '주어+목적어+서술어+주어+목적어+서술어'의 문장 구조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⑤ '목적어+서술어+관형어+목적어+서술어'의 문장 구조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 02 ㉠은 '안개가 자욱하다.'와 '앞이 보이지 않는다.'의 두 홀문장이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서'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은 겹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② ㉠의 주어는 '나는'으로, 생략되지 않았다.

④ ㉠은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겹문장이고, ㉡은 홀문장이다.

⑤ ㉠의 서술어는 '받았다'로 한 개이나, ㉡의 서술어는, '자욱해서', '보이지 않는다'로 두 개이다.

- 03 연결 어미 '-(으)ㄴ지라도'는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한다.

04 <보기>에 제시된 문장은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③의 '남편은 자상하며 부인은 친절하다.'도 '나열'의 의미 관계를 지닌 연결 어미 '-며'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전환'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다가'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②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자'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④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니까'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⑤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ㄹ지라도'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05 ㉠은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서'에 의해, ㉡은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풀이 ㉢은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과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홀문장이다.

06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윗물이 맑다.'와 '아랫물이 맑다.'의 두 홀문장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야'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자'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③ '의도(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려고'에 의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④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홀문장이다.

⑤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2)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절은 부사절이다.
(3) 직접 인용절에는 인용격 조사 '라고'를 사용하며, 간접 인용절에는 인용격 조사 '고'를 사용한다.

예시로 바로 연습

- 1 (1) 나는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2) 빗물이 떨어지는
2 (1) 얼굴이 잘생겼다. (2) 맛이 있게 (3) 그가 옳았음 (4) 피아노 치는
(5) 그림책이 재미있다고 3 (1) ㉠ (2) ㉡ (3) ㉢

- 1 (1) 안은문장은 '나는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이다.
(2) '빗물이 떨어지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 체언 '소리'를 꾸며 주는 관형사절로, 안긴문장이다.
2 (1) '얼굴이 잘생겼다.'는 전체 주어인 '은우가'에 대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다.
(2) '맛이 있게'는 서술어 '익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절이다.
(3) '그가 옳았음'은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다.
(4) '피아노 치는'은 체언 '소리'를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다.
(5) '그림책이 재미있다고'는 동생의 말을 인용하는 간접 인용절이다.
3 (1) '소리도 없이'는 서술어 '내린다'를 꾸며 주는 부사절이다.
(2) '지각을 하는'은 체언 '학생들'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다.
(3) '그날이 오기'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다.

기본 다지기

- 01 ④ 02 ② 03 ② 04 ①

01 부사절은 '-아서/-어서, -이, -게, -도록' 등이 붙어서 만들어 진다.

오답풀이 ①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이 붙어 문장 내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말한다. 따라서 관형사절은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② 서술절은 다른 절과 달리, 절을 표시하는 별도의 어미나 조사가 붙지 않는다.

③ 직접 인용은 인용격 조사 '라고'가, 간접 인용은 인용격 조사 '고'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⑤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붙어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쓰여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기능을 하는 절이다.

02 '난을 키우기가 가장 어렵다.'는 '난을 키우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되었다. 따라서 '덕화'가 제시한 문장이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마당이 넓다.'라는 홀문장이 전체 주어인 '이 카페는'의 서술어 기능을 하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③ '내가 감기에 걸린'은 '내가 감기에 걸리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절이 되었다. 따라서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DAY 15 문장의 짜임 ②

본문 081~083쪽

핵심만 바로 체크

- 1 (1) ○ (2) ○ (3) × 2 (1) 서술절 (2) 부사절 (3) 라고

- 1 (1) 한 문장이 하나 이상의 절(안긴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포함하는 문장은 안은문장이다.
(2)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기능을 하며 명사처럼 쓰이는 절은 명사절이다.
(3) '-아서/-어서, -이, -게, -도록'은 절을 부사로 만들기 때문에, 이들이 붙은 절은 부사절이 된다.

- 2 (1) 서술절은 다른 절과 다르게 절을 표시하는 어미나 조사가 붙지 않는다.

- ④ ‘목이 빠지게’는 ‘목이 빠지다.’에 ‘-게’가 붙어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이 되었다. 따라서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⑤ “너 자신을 알라.”라고는 인용한 문장인 ‘너 자신을 알라.’에 따옴표와 인용격 조사 ‘라고’를 붙여 인용절이 되었다. 따라서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3 <보기>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에 대한 설명이다. ‘마음씨가 참 따뜻하다.’가 전체 주어인 ‘그녀는’에 대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주어+(필수적) 부사어+서술어’의 구조를 지닌 홀문장이다.

③ ‘조건’의 의미를 지닌 종속적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④ ‘주어+관형어+관형어+보어+서술어’의 구조를 지닌 홀문장이다.

⑤ ‘그가 배신자이다.’에 명사형 어미 ‘-ㅁ’이 붙어 문장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되었다. 따라서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4 ‘말도 없이’는 문장에서 서술어 ‘떠났다’를 꾸미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이다.

오답풀이 ② ‘맑은’은 체언 ‘공기’를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다.

③ ‘영진이가 쓴’은 체언 ‘책’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다.

④ ‘그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체언 ‘증거’를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다.

⑤ ‘지원이가 학교를 옮긴’은 체언 ‘사실’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다.

실력 쌓기

01 ① 02 ③ 03 ④ 04 ① 05 ④ 06 ②

01 국어의 겹문장은 안은문장과 이어진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안긴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는 절이다.

오답풀이 ② ‘사탕이 제일 맛있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③ ‘날씨가 덥다.’에 ‘-어서’가 붙은,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④ ‘내가 (책을) 읽다.’에 관형사형 어미 ‘-던’이 붙은,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⑤ 안긴문장은 안은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절이다.

02 <보기>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에 대한 설명이다. ③은 ‘그 내용이 사실이다.’에 명사형 어미 ‘-ㅁ’이 붙어 문장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주어+부사어+서술어’의 구조를 지닌 홀문장이다.

② ‘풍경이 아름다다.’가 전체 주어인 ‘여기는’에 대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④ ‘사고 없다.’에 ‘-이’가 붙어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⑤ ‘연우가 전학을 갔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3 ‘장미꽃은 나의 예상과 달리 싱싱했다.’는 ‘나의 예상과 다르다.’에 ‘-이’가 붙어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장미는 내가 좋아하는 꽃이다.’는 ‘내가 꽃을 좋아하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4 ①은 <보기>의 전체 주어인 ‘우리 학교는’에 대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다. ‘누나가 세 명이다.’도 전체 주어 ‘나는’에 대한 서술어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다.

오답풀이 ② ‘물과 같다.’에 ‘-이’가 붙어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③ ‘내가 (책을) 직접 쓰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④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에 명사형 어미 ‘-ㅁ’이 붙어 문장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⑤ ‘신발이 닳다.’에 ‘-도록’이 붙어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5 ④는 인용격 조사 ‘고’를 사용하여 내일은 수업이 없다는 선생님의 말을 간접 인용한,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국토 면적이 가장 크다.’가 전체 주어인 ‘러시아는’에 대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② ‘(노래가) 구성지다.’에 ‘-게’가 붙어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③ ‘그가 (노래를) 부르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⑤ ‘진수가 돌아오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6 ‘그녀가 돌아오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키가 크다.’는 전체 주어인 ‘우리 형은’에 대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③ ‘(빵이) 맛있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④ ‘예고도 없다.’에 ‘-이’가 붙어 서술어 ‘찾아왔다’를 꾸미는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⑤ 인용한 문장인 ‘빨리 가자.’에 따옴표와 인용격 조사 ‘라고’가 붙은, 직접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DAY 16 문법 요소 ①

본문 085~087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종결 표현 (2) 평서문 (3) 청유문

1 (1) 국어의 문장 유형은 종결 표현에 따라 달라지며,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이 있다.

- (2)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은 명령문이다. 의문문은 대체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 (3) 감탄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듣는 이를 의식하는 다른 문장과는 차이가 있다.

- 2 (1) 종결 표현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종결 어미에 의해 종결 표현이 결정된다.
- (2) 서술어의 종결 어미가 ‘-다, -아요/어요, -지, -네’인 문장은 평서문이다.
- (3)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은 청유문으로, 주어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포함된다.

예시로 바로 연습

- 1 (1) 평서문 (2) 청유문 (3) 명령문 2 (1) -군 (2) 감탄문
3 (1) ㉠ (2) ㉡ (3) ㉢ (4) ㉣ (5) ㉤

- 1 (1) ‘-다, -지, -네’는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 내리지. / 내리네.’와 같은 평서문을 표현하는 종결 어미이다.
- (2) ‘-자, -세, -하시다’는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 가세. / 갑시다.’와 같은 청유문을 표현하는 종결 어미이다.
- (3) ‘-아라, -게, -하시오’는 ‘물 좀 떠 와라. / 오게. / 오십시오.’와 같은 명령문을 표현하는 종결 어미이다.
- 2 (1) ‘아름답다’의 어간 ‘아름답-’ 뒤에 붙은 ‘-군’이 문장의 종결 어미이다.
- (2) 감탄형 종결 어미 ‘-군’이 붙은 문장의 유형은 감탄문이다.
- 3 (1) 청유형 종결 어미 ‘-자’가 붙은 문장의 유형은 청유문이다.
- (2) 의문형 종결 어미 ‘-느냐’가 붙은 문장의 유형은 의문문이다.
- (3) 명령형 종결 어미 ‘-아라’가 붙은 문장의 유형은 명령문이다.
- (4) 평서형 종결 어미 ‘-다’가 붙은 문장의 유형은 평서문이다.
- (5) 감탄형 종결 어미 ‘-(는)구나’가 붙은 문장의 유형은 감탄문이다.

기본 다지기

- 01 ④ 02 ② 03 ③ 04 ④

- 01 종결 어미는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며, 이에 따라 문장의 전체 의미가 좌우된다.

오답풀이 ① 명령문과 청유문은 서술어로 동사만 올 수 있고 형용사는 올 수 없다는 제약을 받는다.

- ② 의문문에서 듣는 이에게 질문에 대한 특정한 대답을 요구하거나 명령문에서 듣는 이의 행동을 요구하는 등 종결 표현에 따라 말하는 이의 의도가 드러날 수 있다.

- ③ ‘빨리 안 갈래?’가 형식상 의문문이지만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종결 표현의 형식과 문장의 기능이 다를 수 있다.

- ⑤ 문장의 유형은 종결 표현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다섯 가지 문장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02 ‘-(으)하시다’는 ‘-자, -세’와 같이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는 청유문을 만들 때 활용되는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보기>의 문장은 청유문이며, 청유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하는 문장은 의문문으로, 종결 어미 ‘-느냐/-냐, -는가, -(으)니까, -(으)니까’ 등이 사용된다.

- ③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문장은 명령문으로, 종결 어미 ‘-아라/-어라, -게, -하시오’ 등이 사용된다.

- ④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은 감탄문으로, 종결 어미 ‘-(는)구나, -군, -(는)구먼, -(는)구려’ 등이 사용된다.

- ⑤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진술하는 문장은 평서문으로, 종결 어미 ‘-다, -아요/-어요, -지, -네’ 등이 사용된다.

- 03 ‘-구려’는 ‘웃이 참 예쁘구려!’와 같은 감탄문이나, ‘이리 좀 들어오구려.’와 같은 명령문을 만들 때 활용되는 종결 어미이다.

오답풀이 ①의 ‘-냐’, ②의 ‘-(으)니’, ④의 ‘-는가’, ⑤의 ‘-(으)니까’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만들 때 활용되는 종결 어미이다.

지식 더하기

감탄형 종결 어미 ‘-구려’의 특수한 쓰임

동사 어간에 붙어 쓰일 때는 상대방에게 권하는 태도로 명령의 뜻을 나타낸다.

예 어서 가구려. / 만나 보시구려.

- 04 명령문과 청유문은 듣는 이에게 행동을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서술어로 동사만 올 수 있다. ④의 서술어인 ‘씻는다’는 동사이므로, ‘씻어라’와 같은 명령문의 형식이나 ‘씻자’와 같은 청유문의 형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푸르다’는 형용사이므로, ‘푸르십시오’와 같은 명령문의 형식이나 ‘푸르시지요’와 같은 청유문의 형식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② ‘기쁘다’는 형용사이므로, ‘기쁘십시오’와 같은 명령문의 형식이나 ‘기쁘시지요’와 같은 청유문의 형식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③ ‘아름답다’는 형용사이므로, ‘아름다우십시오’와 같은 명령문의 형식이나 ‘아름다우시지요’와 같은 청유문의 형식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⑤ ‘믿음직하다’는 형용사이므로, ‘믿음직하십시오’와 같은 명령문의 형식이나 ‘믿음직하시지요’와 같은 청유문의 형식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실력 쌓기

01 ⑤ 02 ④ 03 ③ 04 ① 05 ⑤ 06 ①

01 의문문은 상대방의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 상대방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으로 나눌 수 있다. ⑤는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수사 의문문이다.

오답풀이 ① 책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② 준서가 늦은 이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③ 우산을 가져 왔는지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다.

④ 청소를 안 한 사람이 은수인지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다.

02 ㉠은 평서형 종결 어미 '-다'가 사용된 평서문, ㉡은 청유형 종결 어미 '-자'가 사용된 청유문이다. 청유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이므로, 주어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포함된다.

오답풀이 ① 주어가 항상 듣는 이인 문장은 명령문이다.

② 평서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이나 생각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이다.

③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의식하지 않는 문장은 감탄문이다.

⑤ 청유문은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말하는 이의 의도를 듣는 이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03 평서문과 감탄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행동이나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에 의문문은 대개 듣는 이의 대답을 요구하고, 명령문과 청유문은 듣는 이의 행동을 요구한다.

04 '-다, -네, -(으)니'는 평서형 종결 어미로, 평서문을 만든다.

오답풀이 ② '-군, -(는)구려, -(는)구먼'은 감탄형 종결 어미로 감탄문을 만든다.

③ '-게, -(으)오, -시오'는 명령형 종결 어미로 명령문을 만든다.

④ '-세, -(으)시디, -(으)시지요'는 청유형 종결 어미로 청유문을 만든다.

⑤ '-냐, -(으)오, -(으)니'는 의문형 종결 어미로 의문문을 만든다.

05 ㉠의 '너 얼른 준비 안 할래?'는 의문형 종결 어미 '-래'를 사용했지만, 얼른 준비하라는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은 명령형 종결 어미 '-아라'를 사용하였으며 형식과 기능이 명령으로 일치한다.

② ㉡은 의문형 종결 어미 '-래'를 사용하였으며 형식과 기능이 의문으로 일치한다.

③ ㉢은 의문형 종결 어미 '-니'를 사용하였으며 형식과 기능이 의문으로 일치한다.

④ ㉣은 청유형 종결 어미 '-자'를 사용하였으며 형식과 기능이 청유로 일치한다.

06 <보기>는 명령문에 대한 설명이다. ①은 명령형 종결 어미 '-어라'가 붙어 실현된 명령문이다.

오답풀이 ② 의문형 종결 어미 '-어요'가 붙어 실현된 의문문이다.

③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가 붙어 실현된 감탄문이다.

④ 청유형 종결 어미 '-자'가 붙어 실현된 청유문이다.

⑤ 평서형 종결 어미 '-니'가 붙어 실현된 평서문이다.

DAY 17 문법 요소 2

본문 089~091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높임 (2) 께서, 께 (3) 해요

1 (1) 높임의 정도에 따라 종결 표현을 다르게 사용하여 실현되는 높임법은 상대 높임법이다.

(2) 객체 높임법은 특수 어휘인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 등을 사용하거나, 부사격 조사 '께'에 의해 실현된다.

(3) 상대 높임법이란 종결 표현을 통해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을 말한다.

2 (1) 높임 표현이란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이다.

(2) 주체 높임법은 주격 조사 '이/가' 대신 '께서'를 사용하여 실현되며, 객체 높임법은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여 실현된다.

(3) 상대 높임법은 높임의 정도에 따라 종결 표현을 다르게 사용하여 실현하는데,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가 있으며, 비격식체는 '해요체, 해체'가 있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1) ㉠ (2) ㉡ (3) ㉢ 2 (1) 할아버지 (2) 객체 높임법

3 (1) 해라체 (2) 해요체 (3) 해체

1 (1) '해요체'의 종결 어미 '-세요'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쓰였다.

(2) 주격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어인 '선생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쓰였다.

(3)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문장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쓰였다.

2 (1) <보기>의 문장은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2) <보기>처럼 문장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3 (1) '영수야, 여기 앉아라.'에서 서술어에 쓰인 종결 어미는 '-아라'로, 격식체 중 '해라체'에 해당한다.

(2) '오빠, 여기 앉아요.'에서 서술어에 쓰인 종결 어미는 '-아요'로 비격식체 중 '해요체'에 해당한다.

(3) '민희야, 여기 앉아.'에서 서술어에 쓰인 종결 어미는 '-아'로, 비격식체 중 '해체'에 해당한다.

기본 다지기

01 ④ 02 ⑤ 03 ① 04 ①

01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상대 높임법은 듣는 이를 각각 높이는 방법이다.

02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격 조사 '께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 , 특수 어휘 '계시다, 잡수시다' 등을 통해 실현된다. ⑤의 '바쁘시다'는 문장의 주어인 '큰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서술어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쓴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자'는 '해라체'로, 상대 높임법을 사용해 듣는 이인 '용준'을 낮추고 있다.

② '있었습니다'는 '하십시오체'로, 상대 높임법을 사용해 듣는 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③ 부사격 조사 '께'로 문장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④ 특수 어휘 '아뢰다'로 문장의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03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다. ①은 특수 어휘 '되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그분'을 높이고 있다.

오답풀이 ② 높임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주격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해 '할머니의 걱정'과 같이 주체와 관련이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어인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었다.

④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해 문장의 주어인 '아버지'를 직접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었다.

⑤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해 문장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실현되었다.

04 높이는 대상이 듣는 이에 해당하는 높임 표현은 상대 높임법으로,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①은 종결 표현 중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하십시오'를 사용해 듣는 이를 아주 높이고 있다.

오답풀이 ②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해 문장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아버지'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실현되었다.

③ 주격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문장의 주어인 '선생님'을 직접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었다.

④ 주격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해 '할아버지의 귀'와 같이 주체와 관련이 있는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임으로써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었다.

⑤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해 문장의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시부모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실현되었다.

실력 쌓기

01 ② 02 ③ 03 ① 04 ③ 05 ⑤ 06 ⑤

01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어인 '어머니'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이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발'을 높임으로써 주어인 '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이다.

③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이모부의 차'를 높임으로써 주어인 '이모부'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이다.

④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교수님의 성품'을 높임으로써 주어인 '교수님'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이다.

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선생님의 따님'을 높임으로써 주어인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이다.

지식 더하기

'있다'의 주체 높임 표현

계시다	주어를 직접 높일 때 사용됨. 예 선생님께서 교무실에 계신다.
있으시다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일 때 사용됨. 예 선생님께서는 회의가 있으시다.

02 비격식체는 듣는 이를 두루 높이는 '해요체'와 듣는 이를 두루 낮추는 '해체'가 있다. ③은 '해요체'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두루 높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격식체인 '하계체'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예사 낮추고 있다.

② 격식체인 '하오체'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예사 높이고 있다.

④ 격식체인 '해라체'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아주 낮추고 있다.

⑤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아주 높이고 있다.

지식 더하기

상대 높임법에서의 '하계체'와 '하오체'

하계체	• 아랫사람이나 친구를 '해라체'나 '해체'보다 좀 더 대우할 때 쓰임. • 오늘날 거의 쓰이지 않음. 예) 박 서방, 어서 오게.
하오체	• 아랫사람이나 친구를 '하계체'보다 더 높여 대우할 때 쓰임. • 젊은 세대에서는 잘 쓰이지 않음. 예) 어서 오시오.

03 <보기>에는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은 쓰이지 않았고, 듣는 이인 '부장님'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과 문장의 주어인 '교장 선생님'을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쓰였다.

오답풀이 ② 비격식체인 '해오체'를 사용해 듣는 이인 '부장님'을 두루 높이고 있다.

③ '교장 선생님'은 말하는 이보다 상위자이므로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사 '-님'을 붙여 높이고 있다.

④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문장의 주어인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⑤ '부장'에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사 '-님'을 붙여 높이고 있다.

04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인 상대 높임법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하계체'는 격식체에 해당하는 종결 어미로,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듣는 이와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낸다. 또한 주체 높임법은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어를 높이고, 객체 높임법은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 뵈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

오답풀이 ① 주체 높임법은 조사 '이/가' 대신 '께서'를 사용해 주어를 높인다.

㉠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다.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은 객체 높임법이다.

㉡ 주체 높임법은 서술어에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결합하여 주어를 높인다.

05 '오시래'의 선어말 어미 '-시-'는 문장의 주어를 높일 때 사용된다. 서술어 '오다'의 주어인 '지환'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오시래'를 '오라씨' 또는 '오라고 하씨'로 고쳐야 한다.

06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문장의 주어인 '엄마'를,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할머니'를, '해오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해 듣는 이인 '아빠'를 각각 높이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 실현된 높임 표현의 요소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⑤의 '선어말 어미, 특수 어휘, 종결 어미'이다.

DAY 1 문법 요소 ③

본문 093~095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현재 (2) 미래 (3) 완료상

- (1)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은 사건시이고,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한다.
(2) 과거 시제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보다 앞선 시제로, 선어말 어미 '-았-/-었-/-였-', '-았았-/-었었-', 관형사형 어미 '-(으)ㄴ-', '-던'이 붙거나, 시간 부사어 '어제, 아까, 옛날' 등이 함께 쓰여 실현된다.
(3)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된 것인지 등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이다.

- (1) 현재 시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와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이다.
(2) 미래 시제는 '내가 입을 옷'처럼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붙여 실현할 수 있다.
(3) 완료상은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낸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1) -더- (2) 과거 시제 2 (1) 내일, 겐 (2) 어제, 옛 (3) 지금, 는 3 (1) 완료상 (2) 진행상 (3) 진행상

- (1) <보기>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는 '-더-'이다.
(2) <보기>는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해 과거 시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 (1) 시간 부사어 '내일',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 시제임을 나타내는 요소이다.
(2) 시간 부사어 '어제', 선어말 어미 '-었-'은 과거 시제임을 나타내는 요소이다.
(3) 시간 부사어 '지금', 선어말 어미 '-는-'은 현재 시제임을 나타내는 요소이다.
- (1) 연결 어미 '-고서'를 사용해 동작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이다.
(2) 연결 어미 '-(으)면서'를 사용해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이다.
(3) 보조 용언 '-고 있다'를 사용해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이다.

기본 다지기

01 ⑤ 02 ③ 03 ② 04 ⑤

- 01 '추천하는'은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②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던'이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③ 동사 어간에 과거에 있었던 상황이면서 현재와 다르거나 단절된 상황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았었-'이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④ 시간 부사어 '옛날에'를 사용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02 동사는 '먹는다, 간다'와 같이 동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 '-는/-ㄴ-'이 붙어 현재 시제가 실현된다. 반면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예쁘다, 학생이다'와 같이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현재 시제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사건시와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이다.

② 현재 시제는 '오늘, 지금, 현재'와 같은 시간 부사어로 표현할 수 있다.

④ 동사 어간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⑤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 03 <보기>의 '숨바꼭질할'은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②의 '가겠습니다'는 동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 '-겠-'이 붙어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가수이다'는 서술격 조사가 선어말 어미 없이 그대로 쓰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③ '많더라'는 형용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 '-더-'가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④ '하였다'는 동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 '-었-'이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⑤ '하는'은 동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 '-는'이 붙고, '기특하다'는 형용사가 선어말 어미 없이 그대로 쓰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 04 발화시에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완료상이다. ⑤의 '떨어져 있다'는 보조 용언 '-어 있다'를 사용해 동작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이다.

오답풀이 ① '말라 간다'는 보조 용언 '-아 가다'를 사용해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이다.

② '보면서'는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해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이다.

③ '뛰고 있다'는 보조 용언 '-고 있다'를 사용해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이다.

④ '하는 중이다'는 보조 용언 '~는 중이다'를 사용해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이다.

실력 쌓기

01 ①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6 ②

- 01 시제는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가 언제인지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 02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시제는 '과거 시제'이다. ③에서는 형용사 '자랑스럽다'가 선어말 어미 없이 그대로 쓰여 현재 시제가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던'이, 동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 '-었-'이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② 시간 부사어 '어제'가 쓰이고, 동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 '-더-'가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④ 시간 부사어 '예전에'가 쓰이고, 형용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 '-았었-'이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⑤ 동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 '-었-'이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03 <보기>는 동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 '-ㄴ-'이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⑤는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붙고 형용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 '-았-'이 붙어 과거 시제를 나타내므로, <보기>의 시제와 동일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양심적이다'는 서술격 조사가 선어말 어미 없이 그대로 쓰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② '아름답다'는 형용사가 선어말 어미 없이 그대로 쓰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③ '뉘는다'는 동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 '-는-'이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④ '부른다'는 동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 '-ㄴ-'이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 04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 외에 ㉠처럼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거나, ㉡처럼 말하는 이의 추측을 나타내거나, ㉢처럼 가능성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 05 '들으면서'는 연결 어미 '-(으)면서'를 사용해 진행상을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앉아 있다'는 보조 용언 '-아 있다'를 사용해 완료상을 나타낸다.

② '가 버렸다'는 보조 용언 '-아 버리다'를 사용해 완료상을 나타낸다.

③ '켜져 있다'는 보조 용언 '-어 있다'를 사용해 완료상을 나타낸다.

⑤ '들고서'는 연결 어미 '-고서'를 사용해 완료상을 나타낸다.

- 06 ㉠의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에서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해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이때 ㉠에서 '오늘'은 시간 부사어가 아니라 명사 '날씨'를 꾸며 주는 관형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간 부사어 '오늘'을 사용한 현재 시제라는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DAY 1 문법 요소 4

본문 097~099쪽

핵심만 바로 체크

- 1 (1) ○ (2) ○ (3) × 2 (1) 부사어, 주어 (2) 주동, 사동
(3) 부사어, 목적어

- 1 (1)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2) 피동 표현은 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여 실현할 수 있다.
(3) ‘-당하다’는 일부 명사에 붙어 피동 표현을 만드는 피동 접미사이다. 일부 명사에 붙어 사동 표현을 만드는 사동 접미사로 ‘-시키다’가 있다.
- 2 (1) 능동문인 ‘경찰이(주어) 도둑을(목적어) 잡았다(서술어).’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도둑이(주어) 경찰에게(부사어) 잡혔다(서술어).’가 된다. 이처럼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변하고 서술어는 피동사로 바뀐다.
(2) 주동은 ‘아이가 밥을 먹는다.’와 같이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고, 사동은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와 같이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3)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부사어(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나 목적어(서술어가 자동사, 형용사인 경우)로 바뀐다.

예시로 바로 연습

- 1 (1) 능동문 (2) 피동문 (3) 능동문 (4) 피동문 2 (1) 주동문
(2) 사동문 (3) 주동문 (4) 사동문 3 (1) 물고기가, 잡혔다
(2) 언니에게, 안졌다

- 1 (1) 주어인 ‘동생’이 스스로 한 동작 및 행위를 나타내므로 주동문이다.
(2) 동사의 어간 ‘만들-’에 ‘-어지다’가 붙은 피동문이다.
(3) 주어인 ‘학생들’이 스스로 한 동작 및 행위를 나타내므로 능동문이다.
(4) 동사의 어근 ‘밀-’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문이다.
- 2 (1) 주어인 ‘삼촌’이 직접 한 동작 및 행위를 나타내므로 주동문이다.
(2) 동사 어간 ‘울-’에 ‘-게 하다’가 붙은 사동문이다.
(3) 주어인 ‘차’의 직접적인 동작을 나타내므로 주동문이다.
(4) 동사 어근 ‘읽-’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은 사동문이다.

- 3 (1)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에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서술어가 피동사로 바뀐다.
(2)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에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부사어나 목적어가 되고, 서술어가 사동사로 바뀐다.

기본 다지기

- 01 ⑤ 02 ④ 03 ⑤ 04 ③

01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피동 표현은 동사 어간에 ‘-아/-어지다’를 붙이거나 일부 명사 뒤에 ‘-되다, -반다, -당하다’를 붙여 만들 수 있다. 동사 어간에 ‘-게 하다’를 붙여 만드는 표현은 사동 표현이다.

02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능동문의 주어를 피동문의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를 피동문의 주어로 바꾼다. 또한 ‘쏟다’는 ‘-아지다’를 활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으므로 ④가 적절하다.

- 오답풀이** ① 능동 표현으로 <보기>의 문장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② 동사 어간 ‘쏟-’에 ‘-게 하다’가 붙은 사동 표현이다.
③ 동사 어간 ‘쏟-’에 ‘-아지다’가 붙은 피동 표현이지만, <보기>의 문장과 의미가 다르므로 적절하지 않다. 이 문장의 능동 표현은 ‘(내가) 지수한테 물을 쏟았다.’가 된다.
⑤ 능동 표현으로, ①의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가 추가된 문장이다.

03 ㉠은 주동문이고, ㉡은 사동문이다. ㉠은 언니가 동생에게 직접 운동화를 신긴 경우(직접 사동)와 동생이 스스로 운동화를 신게 한 경우(간접 사동)로 해석이 가능하다.

- 오답풀이** ① ㉠의 주어 ‘동생’은 ㉡에서 부사어 ‘동생에게’로 바뀐다.
② ㉠의 목적어 ‘운동화를’은 ㉡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③ ㉡에서는 ㉠에 없던 새로운 주어 ‘언니’가 나타난다.
④ ㉠의 타동사 ‘신다’에 사동 접미사 ‘-기-’가 붙어 ㉡에서는 사동사 서술어 ‘신기다’가 되었다.

04 ③의 ‘우리 동네에 아파트가 지어졌다.’에서 ‘지어졌다’는 ‘짓다’에 ‘-어지다’가 붙어 실현된 피동 표현이다. 즉 ③에서는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사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① '비다'에 사동 접미사 '-우-'가 붙어 만들어진 사동 표현이다.
- ② '낮다'에 사동 접미사 '-추-'가 붙어 만들어진 사동 표현이다.
- ④ '집합'이라는 명사에 사동 접미사 '-시키다'가 붙어 만들어진 사동 표현이다.
- ⑤ 동사 '나가다'의 어간 '나가-'에 '-게 하다'가 붙어 만들어진 사동 표현이다.

실력 쌓기

- 01 ⑤ 02 ③ 03 ⑤ 04 ③ 05 ② 06 ②
07 ④

01 '죽이고'는 동사 '죽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사동 표현이다.

오답풀이

- ① '풀다'에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 ② '먹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 ③ '끓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 ④ 명사인 '형성' 뒤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02 ③의 '찢어졌어'는 동사 '찢다'에 피동 접미사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피동 표현은 행동의 주체를 드러내는 능동 표현과 달리, 행동의 주체를 감추어 책임을 피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오답풀이

- ① '깨다'에 사동 접미사 '-우-'가 붙은 사동 표현이다.
- ②, ④ 피동 접미사나 사동 접미사가 붙지 않은 능동(주동) 표현이다.
- ⑤ '오르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은 사동 표현이다.

03 ⑤는 동사 어간 '잇-'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해 실현된 피동 표현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 ① '끓긴', ② '불렀다', ③ '쓰인다', ④ '짜였다'로 써야 어법에 맞다.

04 ㉠은 명사 '운동'에 사동 접미사 '-시키다'가, ㉡은 동사 어간 '속-'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문이다. ㉢은 동사 어간 '말-'에 '-게 하다'가 결합해 만들어진 사동문이다.

오답풀이

- ㉣은 명사 '건설'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결합해 만들어진 피동문이다.

05 ②의 '먹인다'는 사동 접미사 '-이-'를 사용하여 주동 표현을 사동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오답풀이

- ① '걸혔다'는 '-히-'를 사용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 ③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 ④ '담겼다'는 '-기-'를 사용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 ⑤ '개봉됐다'는 '-되다'를 사용해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06 '국물이 좋다.'의 사동 표현은 '국물을 즐이다.'이므로, 사동 접미사 '-이-'가 필요하다.

07 ㉠~㉣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 ㉡은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늘어난다.

오답풀이

- ① ㉠의 사동문에서 '-게 하다'를 활용하면 '인부들이 담을 높게 하다.'이다.
- ② ㉠과 ㉡에서 주동문의 주어인 '담이', '자동차가'는 사동문에서 각각 목적어 '담을', '자동차를'로 바뀌었다.
- ③ ㉠~㉣은 모두 주동문이 사동문이 될 때, 사동문에 새로운 주어 '인부들이', '경찰이', '엄마가'가 생겼다.
- ⑤ ㉣의 사동문에서 사동 접미사를 활용하여 바꾸면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다.'가 된다. 이 문장은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옷을 입혀 주었다는 의미(직접 사동)와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도록 시켰다는 의미(간접 사동)로 해석될 수 있다.

DAY 2

문법 요소 5

본문 101~103쪽

핵심만 바로 체크

- 1 (1) × (2) ○ (3) ○ 2 (1) 라고 (2) 짧은 (3) 못

- 1 (1)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는 것은 직접 인용이다. 간접 인용은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
(2) 부정 표현은 의미에 따라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으로, 길이에 따라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안' 부정문은 '안', '-지 않다'를 사용해 단순(상태) 부정과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 2 (1) 직접 인용은 인용절 다음에 조사 '라고'를 사용하고, 간접 인용은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사용한다.
(2) 짧은 부정문은 부정 부사 '안', '못'을 사용하고, 긴 부정문은 부정 용언 '않다', '못하다'를 사용한다.
(3) '못' 부정문은 '못', '-지 못하다'를 사용해 주체의 능력 부족이나 상황에 의한 부정을 표현한다.

예시로 바로 연습

- 1 (1) 간접 (2) 직접 (3) 간접 (4) 직접 2 (1) ㉠ (2) ㉠ (3) ㉡
3 (1) 못 (2) 안 (3) 못

1 (1), (3) 따옴표가 사용되지 않았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사용하였으므로 간접 인용문이다.

(2), (4) 큰따옴표를 사용해 인용절을 표시하고, 인용절 다음에 조사 '라고'를 사용하였으므로 직접 인용문이다.

- 2 (1) '-지 마라'를 사용해 명령문의 부정을 표현한 긴 부정문이다.
 (2) 부정 용언 '않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이다.
 (3)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이다.
- 3 (1) 상황에 의해 잠을 자지 못한 것이므로 '못'이 적절하다.
 (2) 주체의 의지에 의해 점심을 먹지 않은 것이므로 '안'이 적절하다.
 (3) 주체의 능력 부족에 의해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이므로 '못'이 적절하다.

기본 다지기

01 ⑤ 02 ① 03 ⑤ 04 ⑤

- 01 <보기>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유지한 채 인용하는 직접 인용 표현이다.

오답풀이 ① 직접 인용 표현은 직접 전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준다.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주는 것은 간접 인용 표현이다.
 ② <보기>는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한 문장이다.
 ③ 부사형 어미가 아니라 인용격 조사 '라고'를 사용하고 있다.
 ④ 말하는 이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해영)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 02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큰따옴표가 없어지고 인용격 조사, 종결 어미 등이 달라진다. 제시된 문장의 경우, 큰따옴표가 없어지고 인용절의 종결 어미가 '-는구나'에서 '-다'로 바뀌며 그 뒤에 인용격 조사 '고'가 붙는다.

지식 더하기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종결 어미의 변화

의문문	인용절에서 서술어의 품사가 동사면 '-느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면 '-냐'로 바꾸고 '고'를 붙임. 예) • "어디 가니?"라고 했다. → 어디 <u>가느냐고</u> 했다. • "맛있니?"라고 물었다. → <u>맛있냐고</u> 물었다. • "학생이니?"라고 물었다. → <u>학생이냐고</u> 물었다.
명령문	인용절에서 종결 어미를 '-(으)라'로 바꾸고 '고'를 붙임. 예) "어서 가."라고 말했다. → <u>어서 가라고</u> 말했다.
청유문	인용절에서 종결 어미를 '-자'로 바꾸고 '고'를 붙임. 예) "어서 갑시다."라고 말했다. → <u>어서 가자고</u> 말했다.

- 03 부정 표현은 길이에 따라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으로 나뉜다. ⑤는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이다.

오답풀이 ①, ② 부정 용언 '못하다'와 '않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이다.
 ③ 명령문에 쓰이는 '-지 마라'를 사용한 긴 부정문이다.

④ 청유문에 쓰이는 '-지 말자'를 사용한 긴 부정문이다.

- 04 제시된 문장은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이자 '못' 부정문으로, 상황에 의한 부정을 표현하고 있다. 명령문의 부정 표현은 '-지 마/마라'를 사용하므로, 이 문장에 사용된 문장 부사인 '못'은 쓰이지 않는다.

오답풀이 ③ '안' 부정문은 '안', '-지 않다'를 사용하는 부정문으로, 단순 부정 또는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표현한다. 제시된 문장은 상황에 의한 부정을 나타내는데, 이를 '안' 부정문으로 바꾸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④ '못' 부정문은 '못', '-지 못하다'를 사용하는 부정문이다. 제시된 문장을 '-지 못하다'를 사용하여 바꾸면 '별안간 사고가 나서 집에 가지 못했다.'가 되는데, 제시된 문장과 그 의미가 동일하다.

실력 쌓기

01 ③ 02 ④ 03 ③ 04 ① 05 ② 06 ⑤
 07 ①

- 01 ㉠은 간접 인용 표현, ㉡은 직접 인용 표현이다. 직접 인용 표현은 직접 말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은 간접 인용문, ㉡은 직접 인용문이다.

②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주는 것은 ㉠이 아니라 ㉡이다.

④ ㉠과 ㉡은 서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⑤ ㉠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의 내용을 가져오되, 형식은 유지하지 않은 문장이고, ㉡은 다른 사람의 말과 형식을 그대로 가져온 문장이다.

- 02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지시 대명사는 말하는 이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보기>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호주에 간 윤호는 자기는 그곳이 좋다고 말했다.'이다.

- 03 ③의 '어제 지수는 "내일 눈이 오니?"라고 물었다.'를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어제 지수는 오늘 눈이 오느냐고 물었다.'이다. 인용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인 '내일'은 '오늘'로, 인용절의 종결 어미 '-니'를 '-느냐'로, 인용격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한다.

- 04 <보기>는 '안', '-지 않다'를 사용하는 '안' 부정문에 대한 설명이다. ①은 부정 용언 '-지 않다'를 사용한 '안' 부정문이다.

오답풀이 ② 부정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③ 주체의 능력 부족을 표현한 '못' 부정문이다.

④ '-지 마라'를 사용한 명령문의 부정 표현이다.

⑤ 상황에 의한 부정을 표현한 '못' 부정문이다.

- 05 ㉠은 짧은 부정문이자 '안' 부정문, ㉡은 짧은 부정문이자 '못' 부정문, ㉢은 '-지 말자'를 사용한 청유문의 부정 표현이다. ㉣을 긴 부정문으로 고치면 '시험공부를 하지 않았다.'가 된다.

- 06 ⑤는 상황에 의한 부정을 나타내야 하므로 '못' 부정문인 '못 만났다.' 또는 '만나지 못했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지 마’를 사용한 명령문의 부정 표현이다.

③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경우 부정 표현은 ‘~이/가 아니다’를 사용하므로 ‘당번이 아니다’로 표현한다.

- 07 ‘못’ 부정문 중 짧은 부정문은 부정 부사 ‘못’ 뒤에 동사만 올 수 있다. 따라서 ①의 형용사 ‘똑똑하다’는 ‘못’ 부정문 중 짧은 부정문의 형태를 취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나는 공원에 안 갔다.’로 바꿀 수 있다.

③ ‘친구는 어제 약속 장소에 안 나갔다.’로 바꿀 수 있다.

④ ‘집이 너무 무거워서 너는 못 들 거야.’로 바꿀 수 있다.

⑤ ‘동생은 오늘 하루 종일 아무 것도 안 먹었다.’로 바꿀 수 있다.



담화

본문 105~107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발화 (2) 담화 (3) 세대

- 1 (1)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 또는 둘 이상의 발화가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를 말한다.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발화, 맥락이 있다.
(2)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공간적 상황 및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같은 말이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적·공간적 상황을 담화의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 2 (1) 담화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발화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2) 담화는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과 같이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를 말한다.
(3)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지역, 세대, 문화 등의 차이가 있다. 의도는 담화의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1) 시간과 공간 (2) 말하는 이와 듣는 이 2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3 (1) ㉠ (2) ㉡ (3) ㉢

- 1 (1)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디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담화의 의미가 다르게 전달된다.
(2)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화제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관심 정도, 심리적 태도 등에 따라 담화의 의미가 다르게 전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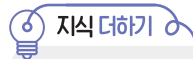
- 2 등교 시간이 지나 선생님이 화가 났다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담화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선생님은 시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각한 학생을 질책하는 것이므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반응이 적절하다.

- 3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문화의 차이 때문에 겸양의 표현으로 사용한 말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2) 할머니는 손자와 세대가 달라, 손자가 사용하는 줄임 표현인 ‘생파(생일 파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3) 같은 언어 안에서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 ‘정구지(부추)’와 같이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기도 한다.

기본 다지기

01 ② 02 ② 03 ④ 04 ①

- 01 말하는 이의 생각이 음성을 통해 문장 단위로 표현된 것은 ‘담화’가 아니라 ‘발화’이다.
- 02 <보기>에서 ‘손님’의 발화는 신발의 크기가 커서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 03 (가)의 밑줄 친 말은 ‘시간이 남았으니 지각은 아니다.’라는 의미인 반면, (나)의 밑줄 친 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매점에 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 04 ‘퍼뜩 오이소.’는 ‘얼른 오세요.’라는 뜻의 경상도 방언이다. 경상도에 살지 않는 서울 손님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말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지식 더하기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언어 표현
지역 방언은 해당 지역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풍부한 정서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에 따른 언어 차이를 고려하여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표준어를 사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실력 쌓기

01 ⑤ 02 ③ 03 ① 04 ③ 05 ① 06 ③

- 01 담화의 구성 요소 중 맥락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로, 담화의 구체적인 의미를 결정한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필수 요소로 볼 수 있다.

02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떠드는 학생을 꾸짖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담화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선생님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운동장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라고 질책하는 것이므로 ㉠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학생의 반응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3 <보기>에서 손자와 할머니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할머니가 손주에게 애정을 담아 귀엽게 부를 때 쓰는 말인 '똥강아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요소 중 하나인 '세대'의 차이를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04 ㉠과 ㉡에는 지역 방언이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담화 해석에서 지역에 따른 오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05 <보기>에 제시된 담화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여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자고 호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06 (나)에서 엄마는 표면적으로 '기특하다'며 아들을 칭찬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상황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진호'는 동네 어른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다.

② (가)는 사회·문화적 맥락인 세대 간의 언어 표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④ (나)의 '아들'은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여 엄마가 말하려는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⑤ (가)와 달리 (나)는 상황 맥락과 관련이 있다.

교독점 도전하기

본문 108~113쪽

- 01 ④ 02 ① 03 ② 04 ⑤ 05 ③ 06 ⑤
07 ④ 08 ⑤ 09 ⑤ 10 ② 11 ④ 12 ㉠: 판정, ㉡: 설명, ㉢: 수사 13 ④ 14 운동을 하면 건강이 호전된
니까? 15 ④ 16 ⑤ 17 ④ 18 ② 19 ⑤
20 ③ 21 ㉡: 형이 동생을 울린다., ㉢: 형이 동생에게 책을
읽게 했다., ㉣: 나뭇가지가 세찬 바람에 꺾였다. 22 ③
23 ⑤ 24 ④ 25 ② 26 ⑤ 27 ②

01 ㉠, ㉡의 서술어 '되다'는 모두 주어(일이, 현지가)와 보어(영망진창이, 회장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서술어 외에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 수의 수가 같다.

오답풀이 ① ㉠의 '운다'는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구슬피'는 부사어로 생략이 가능하다.

② ㉢의 '되다', ㉣의 '되었다'는 주어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③ ㉢의 '학생회의'는 '회장'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서술어 '되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

⑤ ㉢의 '만들었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의 '되었다'와 서술어의 자릿수는 같지만,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은 다르다.

02 '싸웠다'는 주어 이외에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풀이 ②, ③, ④, ⑤ 밑줄 친 말은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한 부사어에 해당한다.

03 ㉠은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서 만들어진 관형사절로, 뒤에 오는 명사구 ㉡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은 주어로,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 상태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낸다. 따라서 ㉠은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③ ㉠은 주어, ㉡은 서술어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다른 문장 성분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문장 성분은 독립어이다.

④ ㉢과 ㉣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로 동일하며, 문장에서의 기능 또한 체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⑤ ㉠과 ㉡은 '어절', ㉢은 '절', ㉣은 '구'로 문장 성분이 실현되었다.

04 '나는(주어), 고등학생이(보어), 아니라(서술어), 중학생이다(서술어)'로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이다. 따라서 부속 성분이 사용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철수는(주어) 현관문을(목적어) 살짝(부사어) 열었다(서술어)'로, 주성분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3개인 문장이다.

② '민서야(독립어), 너(주어) 그(관형어) 책은(목적어) 어디서(부사어) 샀니(서술어)?'로, 부속 성분이 관형어, 부사어로 2개인 문장이다.

③ '그는(주어) 결국(부사어) 선생님(보어) 되었다(서술어)'로,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다.

④ '화단에(부사어) 장미꽃(주어) 활짝(부사어) 피었다(서술어)'로, 부속 성분인 부사어가 2개 사용된 문장이다.

05 ③에서 '없이'의 '-이'는 부사절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③은 이어진문장이 아니라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관형사형 어미 '-ㄴ'을 통해 형성된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② 연결 어미 '-어서'를 통해 형성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④ 어미 '-게'를 통해 형성된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⑤ 명사형 어미 '-ㅁ'을 통해 형성된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6 서술어 '대면하다'는 '만나다, 닮다, 같다'와 같이 두 대상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⑤는 두 홑문장으로 분리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민이는 국어를 좋아한다.'와 '민이는 역사를 좋아한다.'로 분리할 수 있다.

② '천장이 무너졌다.'와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로 분리할 수 있다.

③ '아버지는 병원에 다녀오셨다.'와 '아버지는 우체국에 다녀오셨다.'로 분리할 수 있다.

④ '은서는 교실에서 책을 읽는다.'와 '동현이는 교실에서 책을 읽는다.'로 분리할 수 있다.

07 두 홀문장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인 것은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④는 연결 어미 ‘-으나’에 의해 두 홀문장이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연결 어미 ‘-어서’에 의해 ‘원인’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② 연결 어미 ‘-는데’에 의해 ‘배경’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③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조건’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⑤ 연결 어미 ‘-르지라도’에 의해 ‘가정’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08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와 같이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를 통해 ⑤에서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연결 어미’로 사용되었으며, ⑤가 각 문장이 나열의 의미 관계를 맺으며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고’는 ‘앞 절의 동작이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사용되어 각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② ‘-고’는 ‘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사용되었으며, 각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③ ‘-고’는 ‘앞 절의 동작이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사용되었으며, 각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④ ‘-고’는 ‘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사용되었으며, 각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09 ㉞는 ‘식물이 자라다’에 명사형 어미 ‘-기’와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10 ㉠은 ‘오늘은 등산하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은 ‘경호가 부자이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뒤 주격 조사가 붙어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③ ㉢은 ‘눈이 오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뒤 목적격 조사가 붙어 문장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④ ㉣은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뒤 목적격 조사가 붙어 문장에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⑤ ㉠~㉢은 모두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11 ㉞에서 관형사절인 ‘친구가 다쳤다는’을 생략할 경우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라져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은 ‘(성격이) 활발한’이 뒤에 오는 체언 ‘성격’을 꾸미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② ㉡은 ‘(공주에서) 태어난’이 뒤에 오는 체언인 ‘공주’를 꾸미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관형사절이 꾸며 주는 체언인 ‘공주’가 관형사절 안에서 부사어(‘공주에서’)의 기능을 하지만 생략되어 있다.

③ ㉢은 ‘동생이 (과자를) 산’이 뒤에 오는 체언인 ‘과자’를 꾸미는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관형사절이 꾸며 주는 체언인 ‘과자’가 관형사절 안에서 목적어(‘과자를’)의 기능을 하지만 생략되어 있다.

⑤ ㉠은 관형사절이 꾸며 주는 체언인 ‘성격’이 관형사절 안에서 주어(‘성격이’)의 기능을 하지만 생략되어 있고, ㉢은 관형사절 안에서 목적어(‘과자를’)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생략된 문장 성분이 같지 않다.

12 ㉠은 듣는 이에게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의 문문이다. ㉡은 듣는 이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은 듣는 이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명령의 효과를 가지는 수사 의문문이다.

13 ㉡는 명령문으로 듣는 이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이고, ㉣는 청유문의 특수 용법으로 듣는 이만의 행동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 ㉣와 마찬가지로 ㉣는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명령문의 주어는 항상 듣는 이가 된다.

② 청유문의 특수 용법으로, 듣는 이에게만 행동을 요청한 경우이다.

③ 형식상 의문문이지만, 명령문과 같이 듣는 이의 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⑤ ‘-어라’, ‘-십시오’, ‘-어요’가 붙어 각각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이 실현되었다.

14 ‘조건’의 의미 관계를 띤 연결 어미는 ‘-(으)면’이므로 ‘운동을 하다.’와 ‘건강이 호전되다.’의 두 홀문장을 순서대로 결합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을 만들면 ‘운동을 하면 건강이 호전되다.’가 된다. 이를 상대 높임법 중 듣는 이를 아주 높이는 격식체인 하십시오체의 의문문으로 만들면 ‘운동을 하면 건강이 호전됩니까?’가 된다.

15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인 ‘때, 계시다’를 사용해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의 예이다.

오답풀이 ① 종결 어미 ‘-십시오’를 사용해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의 예이다.

②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의 예이면서,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해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의 예이다.

③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해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의 예이면서, 종결 어미 ‘-입니다’를 사용해 상대를 높이는 상대 높임의 예이다.

⑤ 부사격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해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의 예이면서, 종결 어미 ‘-아라’를 사용해 상대를 낮추는 상대 높임의 예이다.

16 특수 어휘 ‘모시다’를 통해 객체를, 종결 어미 ‘-어요’를 통해 상대를 높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를 높이고 있다.

② 조사 ‘께’와 특수 어휘 ‘여쭙다’를 통해 객체를 높이고, 종결 어미 ‘-아라’를 사용해 상대를 낮추고 있다.

③ 주체 높임 표현과 객체 높임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④ 특수 어휘 ‘계시다’를 통해 주체를, 종결 어미 ‘-십시오’를 통해 상대를 높이고 있다.

17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해 시제를 실현할 때, 현재 시제는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서 ‘예쁜, 학생인’과 같이 ‘-(으)ㄴ’으로 실현된다.

18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서는 시제는 과거 시제이다. ㉠은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가 실현된 문장이다. ㉡은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선어말 어미 ‘-더-’가 붙어 과거 시제가 실현된 문장이다.

오답풀이 ㉠의 ‘-았-’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는 선어말 어미이다. ㉡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을 통해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가 실현된 문장이다. ㉢은 동사 어간에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하여 가까운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미래 시제가 실현된 문장이다.

19 ‘앞으로’와 호응하도록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을 붙여 ‘배우겠습니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는 ‘가능성’의 의미가 아니라 ‘의지’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다.

20 ㉠, ㉡는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이며,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피동사가 사용된 피동문이다. ㉢, ㉣는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이며, ㉢에서는 ‘사 진첩’을, ㉣에서는 ‘연필을’을 목적으로 하는 사동사가 사용된 사동문이다.

21 ㉡는 ‘형이 동생을 올린다.’로 주동사 어근 ‘올-’에 사동 접미사 ‘-리-’를 붙여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는 ‘형이 동생에게 책을 읽게 했다.’로 주동사 어간 ‘읽-’에 ‘-게 하다’를 붙여 사동문으로 만들 수 있다. ㉣는 ‘나뭇가지가 세찬 바람에 꺾였다.’로 능동사 어근 ‘꺾-’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피동문을 만들 수 있다.

22 ㄴ은 동사의 어간 ‘이루-’에 ‘-어지다’를 붙여 피동을 표현한 문장이다.

오답풀이 ㉠ ㄴ은 접미사 ‘-리-’에 의한 피동 표현이 사용된 문장이다.

㉡ ㄴ은 ‘함박눈이 온 마을을 덮었다.’와 같이 능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 ㄴ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행위를 시키는 사동의 의미를 지닌 ‘이해시키다’가 올바르게 사용된 문장이다.

㉣ ㄴ에 대응되는 능동문은 ‘두 친구가 물고기 세 마리를 잡았다.’로 ‘두 친구가 물고기 세 마리씩을 각각 잡았다.’와 ‘두 친구가 합쳐서 세 마리를 잡았다.’로 해석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이다. 하지만 ㄴ은 두 친구가 합쳐서 세 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

23 ‘밝다’는 주동사 어근에 ‘밝-’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하늘 위 조명탄이 사방을 밝혔다.’와 같은 사동문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의 예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주어가 직접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주동문이다.

㉡ 주동사 어근 ‘입-’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해 실현된 사동문이다.

㉢ 주동사 어근 ‘가-’에 ‘-게 하다’가 결합해 실현된 사동문이다.

㉣ ‘재웠다’는 ‘자- + -이우- + -었- + -다’로 사동 접미사가 연속된 ‘-이우-’가 붙어 사동사가 된 경우이다.

24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 ㉣의 그녀가 여행을 간 곳은 ‘이곳’이 아닌 ‘그곳’이다. 따라서 ‘여행을 간 그녀는 자기는 그곳이 좋다고 했다.’로 바꾸어야 한다.

25 ‘손님이 다 오지 못했다.’는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만, ㉠과 같이 보조사 ‘는’이 쓰이면 ‘손님이 일부분 오지 못했다.’는 의미로만 해석된다.

오답풀이 ㉠ 청유문의 부정 표현은 ‘-지 말자’가 쓰인다.

㉢ ㉢은 짧은 부정문인 ‘그의 말은 안 정확하다.’로 바꾸면 어색하다.

㉣ 서술어가 ‘모르다’인 경우, ‘그는 사건의 내막을 안 모른다.’와 같은 짧은 부정문은 쓰이지 않는다.

㉤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형편이 못 넉넉해서’와 같은 짧은 ‘못’ 부정문은 쓸 수 없다.

26 ㉢을 상황 부정의 짧은 부정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해 ‘못 나갔다’와 같이 만들 수 있다.

오답풀이 ㉠ ‘강물이 깊지 않다.’가 적절하다.

㉡ ‘지금은 자지 마라(마).’가 적절하다.

㉢ ‘무서워서 병원에 안 갔다.’가 적절하다.

㉣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했다.’가 적절하다.

27 (가)는 상황 맥락을 파악해야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상황 맥락이 달라지면 듣는 이의 대답과 반응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오답풀이 ㉠ (가)의 상황에서는 청문을 달아 달라는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며 의사소통해야 한다.

㉢ (나)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 (다)처럼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 말이 달라지기도 한다.

㉤ (나)처럼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 말이 달라지거나 (다)처럼 문화권에 따라 그 나라만의 관습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므로, 지역, 문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지식 더하기

• 담화의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상황 맥락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시간과 공간, 의도와 목적을 구성 요소로 함.
사회·문화적 맥락	담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지역, 세대, 문화 등의 차이가 있음.

• 담화에서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담화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같은 말이어도 담화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거나 표현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오해가 생기거나 담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N

국어의 규범

DAY 2

한글 맞춤법 ①

본문 117~119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소리, 어법 (2) 여, 요, 유, 이 (3) 이, 히

- (1)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이다.
(2) 조사는 단어이지만 홀로 쓰일 수 없으므로 띄어 쓸 수 없다.
(3) 된소리되기와 같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기쁘다, 잔뜩'과 같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 (1) 한글 맞춤법은 발음에 따라 소리대로 적되,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을 반영하여 '여자, 요소, 유대, 이토'와 같이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3) '말이[마지], 같이[가치]'처럼 'ㄷ, ㅌ' 받침 뒤에 모음 'ㅡ 이-'나 'ㅡ히-'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표기한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언니, 꽃밭 2 (1) ㉠ (2) ㉠ (3) ㉠ 3 (1) ㉠ (2) ㉠ (3) ㉠

- '언니'는 한글 맞춤법에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것에 해당한다. 한편 [꼰뻔]으로 발음되는 표준어는 '꽃나무, 꽃놀이' 등 의미가 같은 말들과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어야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따라서 '꽃'의 본 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꽃밭'으로 적는다.
- (1) '가꿈'의 'ㄱ'은 모음 'ㅏ'와 'ㅓ'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이다.
(2) '어깨'의 'ㄱ'은 모음 'ㅓ'와 'ㅣ'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이다.
(3) '영뚱하다'의 'ㅌ'은 받침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다.
- (1) 한자음은 '뉴대, 녀자'와 같이 소리 나지만, 두음 법칙에 따라 '유대, 여자'로 적는다.
(2) 한자음은 '례의, 류행'과 같이 소리 나지만, 두음 법칙에 따라 '예의, 유행'으로 적는다.
(3) 한자음은 '로인, 로동'과 같이 소리 나지만, 두음 법칙에 따라 '노인, 노동'으로 적는다.

기본 다지기

01 ① 02 ② 03 ③ 04 ②

- '마음[마음]'은 소리대로 표기하였고, '눈에[눈페]'는 어법에 맞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표기하였다.
오답풀이 ② '같이[가치]'는 어법에 맞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표기하였고, '하늘[하늘]'은 소리대로 표기하였다.
③ '국물[궁물]'은 어법에 맞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표기하였고, '진심[진심]'은 소리대로 표기하였다.
④ '찾아서[차자서]'와 '발만[반만]'은 어법에 맞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표기하였다.
⑤ '따라가다[따라가다]'와 '기쁘다[기쁘다]'는 소리대로 표기하였다.
- '땅콩'은 첫음절에 된소리가 오는 예로, <보기>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으뜸'은 모음 'ㅡ'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예이다.
③ '오빠'는 모음 'ㅓ'와 'ㅓ'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예이다.
④ '아까다'는 모음 'ㅏ'와 'ㅣ'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예이다.
⑤ '절뚝거리다'는 받침 'ㄹ'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예이다.
- '말이'는 'ㄷ'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ㅡ이'가 올 적에 'ㄷ'이 [ㅈ]으로 소리 나 [마지]로 발음되더라도 '말이'로 적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같이'는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ㅡ이'가 와 [가치]로 발음되더라도 '같이'로 적는다.
② '굳이'는 'ㄷ'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ㅡ이'가 와 [구지]로 발음되더라도 '굳이'로 적는다.
④ '묻히다'는 'ㄷ'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ㅡ히-'가 와 [무치다]로 발음되더라도 '묻히다'로 적는다.
⑤ '달히다'는 'ㄷ'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ㅡ히-'가 와 [다치다]로 발음되더라도 '달히다'로 적는다.
- 두음 법칙은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적용되는데, '날 짜'는 고유어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연도'는 '년도(年度)'가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에 따라 표기된 것이다.
③, ⑤ '양질'과 '역량'은 '량질(良質), 령량(力量)'이 제11항 '한자음 '랴,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에 따라 표기된 것이다.
④ '낙관'은 '락관(樂觀)'이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뢰, 누, 느'로 적는다.'에 따라 표기된 것이다.

실력 쌓기

01 ⑤ 02 ② 03 ④ 04 ⑤ 05 ④ 06 ②

01 ㉠에 따라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는다.

02 <보기 2>에 쓰인 ‘와, 에게, 이다’는 각각 선행하는 체언 ‘너, 나, 기회’와 붙여 쓴다. 조사는 여러 개가 겹쳐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는 선행하는 조사 ‘에게’와 붙여 쓴다.

03 한글 맞춤법 제5항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으며,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또한 한글 맞춤법 제13항은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옴찐’은 ‘ㅁ’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옴찐’로 적는다.

오답풀이 ①, ②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어야 하므로, ‘씩씩, 눅눅하다’로 적는 것이 옳바르다.

③ ‘담뱃’은 ‘ㅁ’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담뱃’으로 적는 것이 옳바르다.

⑤ ‘산뜻’은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므로 ‘산뜻’으로 적는 것이 옳바르다.

지식 더하기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예 소쩍새, 어깨, 오빠, 으름,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2.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예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뱃, 옴찐, 몽땅, 엉뚱하다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수, 깎두기, 딱지, 색시, 씹둑, 법석, 갑자기, 몹시

04 ‘끝이다[끄치다]’는 받침 ‘ㅌ’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조사 ‘이다’가 올 적에 구개음화로 인해 ‘ㅌ’이 [ㄷ]으로 소리 나더라도 ‘ㅌ’으로 적는다.

05 ‘요소(元素)’는 한자음 ‘뇨’가 단어의 첫머리에 쓰였기 때문에 두음 법칙에 따라 ‘요’로 적는다.

오답풀이 ① ‘운률(韻律)’은 ‘ㄴ’ 받침 뒤에 결합되는 ‘률’은 ‘울’로 적는 규정에 따라 ‘운울’로 표기해야 한다.

② ‘소녀(少女)’의 ‘녀’는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년세(年歲)’는 한자음 ‘녀’가 단어의 첫머리에 쓰였기 때문에 두음 법칙에 따라 ‘연세’로 표기해야 한다.

⑤ ‘실패률(失敗率)’은 모음 뒤에 결합되는 ‘률’은 ‘울’로 적는 규정에 따라 ‘실패울’로 표기해야 한다.

06 ‘닉명(匿名)’은 제10항에 따라 ‘익명’으로, ‘룡궁(龍宮)’은 제11항에 따라 ‘용궁’으로, ‘래일(來日)’은 제12항에 따라 ‘내일’로 적는다.

오답풀이 ‘몇 년’은 단어 첫머리에 ‘녀’가 와, 두음 법칙에 따라 ‘여’로 적어야 하지만, 의존 명사에서는 ‘녀’ 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몇 연’으로 적지 않는다. ‘료리(料理)’는 제11항에 따라 ‘요리’로 적는다. ‘루각(樓閣), 림름(凜凜)’은 제12항에 따라 ‘누각, 늬름’으로 적는다.

DAY



한글 맞춤법 ②

본문 121~123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02 (1) 띄어 (2) 길이 (3) 쉼

1 (1) 한글 맞춤법 제14항에 따라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
(2) ‘것, 수, 만큼’ 등과 같은 의존 명사는 그 앞말에 띄어 쓰고, ‘마저, 도, 만’ 등과 같은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3) ‘만하다, 듯하다, 척하다’ 등과 같은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2 (1)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따라 ‘그루’와 같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2)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라 형용사 어간 ‘길-’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길이’와 같이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3)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따라 ‘ㄴ’ 뒤에 ‘-어’가 어울려 ‘ㄴ어’로 될 적에 준대로 적으므로 ‘최어’는 준말인 ‘쇄’로 적는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1) 바닷가, 햇볕 (2) 훗날 (3) 베갯잇 2 (1) 콧병 (2) 쓰러지다
(3) 뻘서 3 (1) 나도 할 수 있다 (2) 주사 한 대를 맞았다
(3) 너마저 가 버리는구나

1 (1) ‘바닷가[바다까/바단까], 햇볕[해뻘/햐뻘]’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인 ‘바다, 해’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ㄱ, ㅂ’이 된소리 [ㄱ, ㅍ]으로 소리 난다.
(2) ‘훗날[훈:날]’은 한자어 후(後)와 순우리말 ‘날’이 결합한 합성어로, 앞말인 ‘후’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3) ‘베갯잇[베갠넛]’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인 ‘베개’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모음 ‘ㅣ’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난다.

2 (1) ‘콧병[귀뻘/귀뻘]’은 순우리말 ‘귀’와 한자어 ‘병(病)’이 결합한 합성어로, 앞말인 ‘귀’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인 ‘ㅂ’이 된소리 [ㅍ]으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 (2) '쓰러지다'는 '쓸다'와 '지다'가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앞말의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쓸다'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 (3) '배서'는 어간 '배-'의 '고' 뒤에 어미 '-어서'의 '-어'가 어울려 '내'가 된 것으로, 준 대로 적는다.

- 3 (1)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의존 명사 '수'는 띄어 써야 하므로, '나도 할 수 있다.'가 옳다.
- (2)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따라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대'는 띄어 써야 하므로, '주사 한 대를 맞았다.'가 옳다.
- (3)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라 조사 '마저'는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너마저 가 버리는구나.'가 옳다.

기본 다지기

01 ③ 02 ③ 03 ② 04 ④

- 01 한글 맞춤법 제14항에서는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에 제시된 말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체언인 '산, 숲, 행복'과 조사인 '을, 에, 은'을 구별하여 적는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는 두음 법칙의 예가 없다.

- ② <보기>에 제시된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산을[사늘], 숲에[수페], 행복은[행보근]'이 된다. 표기와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보기>에는 용언의 예가 없다.
- 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하지만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02 '먹이'는 용언 '먹다'의 어간 '먹-'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다.

오답풀이 ① '굴이'는 어간 '굴-'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다.

- ② '밝히'는 어간 '밝-'에 접미사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다.
- ④ '실없이'는 어간 '실없-'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다.
- ⑤ '짓궂이'는 어간 '짓궂-'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다.

- 03 한자어에서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의 6개 단어에서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따라서 '대가(代價)'가 바른 표기이다.

- 04 '만큼'은 주로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한글 맞춤법 제42항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하였으므로 '내일은 자고 싶은 만큼 자거라.'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오답풀이 ① '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② '보다'와 같은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③ '벌'과 같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⑤ '수'와 같은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실력 쌓기

01 ② 02 ④ 03 ④ 04 ① 05 ④ 06 ③
07 ①

- 01 한글 맞춤법 규정 제15항에서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이 아닌 ㉡과 같이 용언의 어간 '입-'과 어미 '-다, -고, -어, -으니'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체언과 조사로 이루어진 예가 아니다.

③ 어간 '입-' 뒤에 접미사가 온 예가 아니다.

④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형태가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쓰기가 필요한 예가 아니다.

⑤ 어간 '입-'에 어미 '-다, -고, -어, -으니'가 결합하여도 어간의 형태는 '입-'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 02 '드러나다'는 '들다'와 '나다'가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앞말 '들다'의 본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원형을 밝히지 않고 '드러나다'로 적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흠어들다'는 '흠다'의 '한데 모였던 것을 따로따로 떨어지게 하다.'라는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② '사라지다'는 앞말인 '살다'의 본뜻에서 멀어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쓰러지다'로 적어야 한다.

③ '늘어나다'는 앞말인 '늘다'의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다, 시간이나 기간이 길어지다.'와 같은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⑤ '엮어지다'는 앞말인 '엮다'의 '물건 따위를 거꾸로 돌려 위가 밑을 향하게 하다, 어떤 일이나 체제 또는 질서 따위가 뒤바뀌다.'라는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03 '인사 + 말'은 두 단어가 결합할 때 'ㄴ' 소리가 덧나지 않고 [인사말]로 발음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콧병[코병/코뻥]'은 순우리말 '코'와 한자어 '병(病)'이 결합한 합성어로, 앞말인 '코'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ㅂ'이 된소리 [ㅃ]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② '빗물[빈물]'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인 '비'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③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두 음절로 된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만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⑤ '나뭇가지[나무까지/나뭇가지]'는 순우리말 합성어로, 앞말인 '나무'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 'ㄱ'이 된소리 [ㄲ]으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 04 한글 맞춤법 제35항 붙임 2에 따라 'ㄴ' 뒤에 '-어'가 어울려 '내'로 된 경우 준 대로 적어야 하므로 '뵈어요'는 '뵈요'로 적는다.

오답풀이 ② '되었다'의 준말은 '뵈었다'이다.

- ③ '되뇌었다'의 준말은 '뵈냈다'이다.
- ④ '추었다'의 준말은 '뵈었다'이다.
- ⑤ '쑤었다'의 준말은 '뵈었다'이다.

05 '막아낸다'는 '본용언(막다) + -아 + 보조 용언(낸다)'의 구성으로, 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따라 보조 용언도 하나의 단어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의 예이다.

06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한 통'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오답풀이 ㉠의 '요리하기, 산책하기, 춤추기' 등에서 '등'은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로 띄어 쓴다. ㉡의 '그에게서'의 '에게서'는 조사로, 체언 '그'에 붙여 쓴다. ㉢의 '아무 것'에서 '것'은 의존 명사로 띄어 쓴다. ㉣의 '식어 버렸다'에서 '버렸다'는 보조 용언으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07 ㉠ '갯밥[귀뺨/권뺨], 땃돌[매돌/맨돌], 나룻배[나루뺨/나룻뺨]'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예이다. ㉡ '넷물[넉·물, 잇뭍[인뭍, 땃나물[넉나물], 아랫마을[아래마을], 텃마당[넉마당]'은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예이다. ㉢ '나뭇잎[나문닙], 깻잎[깹닙]'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ㅣ'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예이다.

DAY 24 표준 발음법

본문 125~127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ㄱ (2) ㅣ (3) ㅌ, ㄴ

1 (1) 표준 발음법 제5항에 따라 'ㅈ, ㅊ, ㅋ, ㆁ, ㄷ, ㄹ, ㅂ, ㅅ, ㄴ, ㄷ, ㅌ, ㄴ'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2) 'ㄱ'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켜, 처'는 [저, 켜, 처]로 발음한다.

(3) 표준 발음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단어의 경우 [ㄴㅣ]로 발음한다.

2 (1) 겹받침 'ㄱ'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뒤 자음 'ㅅ'이 탈락하여 [ㄱ]으로 발음한다.

(2) 'ㄴ'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지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ㅣ]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늬[무ㅣ]'로 발음한다.

(3) 'ㄴ'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지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ㄴ'은 [ㅣ]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1) 철리 (2) 할따 (3) 가을거지 2 (1) ㉠ (2) ㉡ (3) ㉢ (4) ㉣
(5) ㉠ (6) ㉡ 3 (1) ㉢, 맨닙 (2) ㉠, 절머 (3) ㉠, 읊퍼 (4) ㉢, 콩넉

1 (1)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따라 'ㄴ'은 'ㄹ' 앞이나 뒤에서 [ㄴ]로 발음하므로, '천리'는 [철리]로 발음한다.

(2)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라 겹받침 'ㄱ'은 자음 앞에서 [ㄱ]로 발음하므로, '할다'는 [할따]로 발음한다.

(3)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따라 받침 'ㄷ'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ㅌ]으로 바뀌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가을견이'는 [가을거지]로 발음한다.

2 (1) 겹받침 'ㄹ'은 어말에서 [ㄹ]으로 발음하므로, '흙'은 [흑]으로 발음한다.

(2) 겹받침 'ㅁ'은 어말에서 [ㅁ]으로 발음하므로, '값'은 [갑]으로 발음한다.

(3) 겹받침 'ㅂ'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하므로, '얹고'는 [안꼬]로 발음한다.

(4) 겹받침 'ㅅ'은 자음 앞에서 [ㅅ]로 발음하므로, '넉다'는 [넉따]로 발음한다.

(5) 겹받침 'ㅇ'은 자음 앞에서 [ㅇ]으로 발음하므로, '맑다'는 [막따]로 발음한다.

(6) 겹받침 'ㅇ'은 자음 앞에서 [ㅇ]으로 발음하므로, '없다'는 [업따]로 발음한다.

3 (1) '맨닙'은 '맨-'과 '입'이 결합한 파생어로, 접두사 '맨-'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가 '입'이므로 'ㄴ' 음을 첨가하여 [맨닙]으로 발음한다. 이는 ㉠의 예에 해당한다.

(2) '절머'는 겹받침 'ㅁ'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어'와 결합한 것으로, 'ㄹ'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절머]로 발음한다. 이는 ㉠의 예에 해당한다.

(3) '읊어'는 겹받침 'ㅄ'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어'와 결합한 것으로, 'ㅍ'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읊퍼]로 발음한다. 이는 ㉠의 예에 해당한다.

(4) '콩넉'은 '콩'과 '넉'이 결합한 합성어로, 앞 단어 '콩'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가 '넉'이므로 'ㄴ' 음을 첨가하여 [콩넉]으로 발음한다. 이는 ㉠의 예에 해당한다.

기본 다지기

01 ㉡ 02 ㉢ 03 ㉠ 04 ㉤

01 표준 발음법 제1항은 표준 발음법의 기본 원칙으로,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발음상의 관습을 감안한다는 의미이다. 합리성은 현실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현실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02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하므로, ‘희망’은 [히망]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교’에 쓰인 ‘ㅛ’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②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는 [저]로 발음한다.

④ ‘예, 례’ 이외의 ‘ㄹ’은 [ㄹ]로도 발음함을 허용하므로 ‘연계’는 [연계/연게]로 발음할 수 있다.

⑤ 조사 ‘의’는 [ㄹ]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나의’는 [나의/나에]로 발음할 수 있다.

03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달글]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②, ③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절어서’는 [절머서]로, ‘얹아서’는 [얹바서]로 발음한다.

④ 겹받침 ‘ㄹ’은 ‘ㄴ’이 포함된 복합어 중 ‘ㄴ’적하다와 같은 경우에 [ㄴ]으로 발음하므로 [넙까다]는 올바른 발음이다.

⑤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가없어’는 [가:엿써]로 발음한다.

04 ‘광야’는 앞 단어의 끝이 자음 ‘ㅇ’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야’이지만 복합어가 아니므로, ‘ㄴ’ 음을 첨가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한여름’은 파생어에서 접두사 ‘한-’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가 ‘여름’이므로 ‘ㄴ’ 음을 첨가하여 [한녀름]으로 발음한다.

② ‘숨이불’은 합성어에서 앞 단어 ‘숨’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 ‘이불’의 첫음절이 ‘이’이므로 ‘ㄴ’ 음을 첨가하여 [숨:니불]로 발음한다.

③ ‘영업용’은 파생어에서 앞 단어 ‘영업’의 끝이 자음이고 접미사 ‘-용’의 첫음절이 ‘ㅇ’이므로 ‘ㄴ’ 음을 첨가하여 [영엄농]으로 발음한다.

④ ‘꽃잎’은 합성어에서 앞 단어 ‘꽃’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 ‘잎’의 첫음절이 ‘이’이므로 ‘ㄴ’ 음을 첨가하여 [꼇닙]으로 발음한다.

실력 쌓기

01 ① 02 ⑤ 03 ③ 04 ④ 05 ⑤ 06 ⑤

01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발음할 때의 표준을 정해 놓은 규정이다. 표준어를 한글로 올바르게 적는 방법은 한글 맞춤법이다.

오답풀이 ②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맛있다’의 원칙 발음은 [마딕따]이지만 [마싹따]도 인정하는 것은 실제 발음을 허용하는 합리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④ 실제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성과 합리성에 위배된다면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복수 표준 발음을 허용하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한다.

02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쯔, 처’는 각각 [저, 쯔, 처]로 발음해야 한다. ‘쓰여’의 ‘여’는 ‘저, 쯔, 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쯔’는 단모음 [쯔]로 발음해야 한다.

② ‘다저’의 ‘저’는 단모음 [저]로 발음해야 한다.

③ ‘잊혀’는 ‘ㅈ’과 ‘ㅎ’이 만나 [이쳐]가 된 후, 단모음 [이쳐]로 발음해야 한다.

④ ‘가저’는 단모음 [가저]로 발음해야 한다.

03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에서 겹받침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읽다’는 [익따]로, ‘읽고’는 [일꼬]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① ‘홀고’는 [홀꼬]로 발음한다.

② ‘여덟이다’는 [여덜비다]로 발음한다.

④ ‘살’은 [삼:]으로, ‘늑다’는 [늑따]로 발음하며, 겹받침 중 앞의 자음을 발음하지 않는다.

⑤ ‘넋’은 [넉]으로, ‘넋다’는 [넉따]로 발음하며 겹받침 중 뒤의 자음을 발음하지 않는다.

04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따라서 ‘백분율’은 [백뽀널]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① 원칙적으로 ‘ㄹ’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예, 례’ 이외의 ‘ㄹ’은 [ㄹ]로도 발음함을 허용하므로 ‘지혜’는 [지혜/지헤]로 발음한다.

②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깃발’은 [기뽀/기뽀발]로 발음한다.

③ 받침 ‘ㄷ, ㅌ(ㅈ)’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땀발이’는 [땀바지]로 발음한다.

⑤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할는지’는 [할른지]로 발음한다.

05 ‘베갯잇’은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하는 예로, [ㄴㄴ]으로 발음하므로 [베갸닌 → 베갸넌]으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① ‘곶날’은 사이시옷 뒤에 ‘ㄴ’이 결합하는 예로, [곶날 → 곶날]로 발음한다.

② ‘아랫니’는 사이시옷 뒤에 ‘ㄴ’이 결합하는 예로, [아래니 → 아래니]로 발음한다.

③ ‘갯잎’은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하는 예로, [갯닙 → 갯닙]으로 발음한다.

④ ‘곶등’은 ‘ㄷ’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오는 예로,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곶뽀]와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곶뽀] 모두 올바른 발음이다.

06 ‘강:의의’에서 두 번째 음절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이므로 [~]나 [ㅣ]로 발음할 수 있다. 세 번째 음절의 ‘의’는 조사이므로 [~]나 [ㄹ]로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강:의의/강:의에/강:이의/강:이에] 모두 올바른 발음이다.

오답풀이 ① ‘의의’는 두 음절 모두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 [의:의]와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를 [ㅣ]로 발음한 [의:이]로 발음할 수 있다. 단어의 첫음절에 오는 ‘의’는 [ㅣ]로 발음해야 하므로, [의:의]와 [의:이]는 올바른 발음이 아니다.

②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ㅣ]로 발음해야 하므로, ‘닐리리’는 [닐리리]로 발음해야 한다.

③ ‘협의’에서 ‘의’는 [ㅣ]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니’이기 때문에 [ㅣ]로도 발음할 수 있다. 따라서 [허비/허비] 모두 올바른 발음이다.

④ ‘의사’의 ‘니’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어의 첫음절이므로 [ㅣ]로 발음할 수 없다. 따라서 [의사]로 발음해야 한다.

교독점 도전하기

본문 128~129쪽

- 01 ③ 02 ② 03 ㉠: 살아지다 → 사라지다, ㉡: 삼 → 살,
㉢: 회수 → 횡수 04 ④ 05 우리가V다섯V내지V여섯V
자루의V나무를V심을V수V있을까? 06 ④ 07 ② 08 ⑤
09 ④ 10 ㉠: [훈니불], ㉡: [하니바람]

01 ㉠은 한글 맞춤법, ㉡은 표준 발음법이다. 한글 맞춤법 제5항에 따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소 켜새, 산뜻하다’와 같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하지만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썩썩’이 아닌 ‘썩둑’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한글 맞춤법은 제1항에 따라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어법에 맞도록 적기 위해서는 의미가 하나인 말은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어야 하므로 ‘같으니’처럼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어야 한다.

④ 표준 발음법 제1항에 따라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1’에 따라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찌, 처]로 발음하므로 ‘다쳐’는 [다치]로 발음해야 한다.

02 제10항에 해당하는 예는 ‘연간(年間), 여자(女子), 연세(年歲)’이고, 제11항에 해당하는 예는 ‘이발(理髮), 양심(良心), 유행(流行), 예절(禮節), 이치(理致)’이다. 제12항에 해당하는 예는 ‘내년(來年), 누각(樓閣), 낙원(樂園)’이다.

오답풀이 ① ‘이발(理髮)’은 제11항의 예에 해당한다.

③ ‘왕래(往來)’의 ‘래’는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경우가 아니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예절(禮節)’은 제11항의 예이며, ‘개량(改良)’의 ‘량’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경우가 아니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쾌락(快樂)’의 ‘락’은 단어의 첫머리에 첫머리에 온 것이 아니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03 ㉠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 뜻에서 멀어진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으므로 ‘살아 지다’가 아닌, ‘사라지다’로 고쳐야 한다.

㉡ 어간에 ‘-이’나 ‘-(으)ㄴ’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으므로 어간 ‘살-’의 원형을 밝히어 ‘삶’으로 고쳐야 한다.

㉢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뒤통(退間), 횡수(回數)’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하므로, ‘횡수’는 ‘횡수’로 고쳐야 한다.

오답풀이 ㉣ 모음 뒤에 이어지는 ‘률’은 한자음 ‘율’로 적으므로 ‘규율(規律)’로 적어야 한다.

㉤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으므로 ‘아니오’로 적어야 한다.

지식 더하기

‘들어가다’와 ‘드러나다’

그가 법원으로 ㉠들어가서[드러가서] 증언을 하자 진실이 ㉡드러났다[드러났따].

• ㉠의 ‘들어가서’는 ‘들다(入)’라는 본뜻이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앞말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 ㉡의 ‘드러났다’는 ‘들다(入)’라는 앞말이 본뜻과 멀어졌다. 이처럼 앞말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04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으므로 ‘곰곰이’로 적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고유어와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하므로 ‘훗일’로 적어야 한다.

② ‘ㄷ’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가 올 때, 그 ‘ㄷ’이 [ㄷ]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으로 적어야 하므로 ‘쇠붙이’로 적어야 한다.

③ ‘ㄷ’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히-’가 올 때, 그 ‘ㄷ’이 [ㄷ]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으로 적어야 하므로, ‘묻힌’으로 적어야 한다.

⑤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경우,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걸음’으로 적어야 한다.

05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한편 두 말을 이어 줄 때 쓰이는 ‘내지’와 단위를 나타내는 ‘그루’, 의존 명사 ‘수’는 띄어 쓴다.

06 ㉢에서 ‘떠난 지’의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큰지’의 ‘지’는 어미 ‘-(으)ㄴ지’의 일부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풀이 ① 한글 맞춤법 제41항에 따라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보조사 ‘까지’와 ‘나’, 격 조사 ‘처럼’은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② 한글 맞춤법 제45항에 따라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은 띄어 써야 하므로, ‘땀’과 ‘등’은 띄어 써야 한다.

③ 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따라 보조 용언은 ‘쏟아져 버렸다’와 같이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뿔뿔하다’와 같이 붙여 씀도 허용한다.

⑤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따라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자루'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다만 '2025년 10월 25일'과 같이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07 '예, 레' 이외의 'ㄹ'은 [ㄱ]로도 발음한다. 따라서 '개폐'는 [개페/개폐]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하므로 [씨어]로 발음한다.

③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주의/주이]로 발음한다.

④ 조사 '의'는 [ㄱ]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그곳의/그곳에]로 발음한다.

⑤ 단어의 첫음절에 오는 '의'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므로 [의사]로만 발음한다.

08 용언 어간의 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고,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 따라서 '밝다'는 [박따], '밝고'는 [발꼬]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① 제10항에 따라 'ㄹ'은 어말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외곬'은 [외굴]로 발음한다.

② ㉠에 따라 '발-'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므로, '발지'는 [밥:]씨로 발음한다.

③ ㉡에 따라 '넓-'은 [넙]으로 발음하므로, '넓죽하다'는 [넙쭈카다]로 발음한다.

④ 제11항에 따라 겹받침 'ㄹ, ㅁ, ㅂ'은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하므로, '붉다'는 [복따], '굵다'는 [굸따], '옹고'는 [옹꼬]로 발음한다.

09 표준 발음법 제29항에 따르면 합성어에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이'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로 발음한다. 따라서 '숨이불'은 [숨:니불]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표준 발음법 제14항에 따라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뒤엿것 'ㅅ'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따라서 '뿔이아'는 [뿔씨아]로 발음한다.

② 표준 발음법 제18항에 따라 받침 'ㄱ'은 'ㄴ' 앞에서 [ㅇ]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먹는'은 [멍는]으로 발음한다.

③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따르면 'ㄷ'의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따라서 '견히며'는 [거치며]로 발음한다.

⑤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따르면 'ㄴ'은 'ㄹ'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따라서 '줄넘기'는 [줄럼기]로 발음한다.

10 ㉠ '흙이불'은 '흙-'과 '이불'이 결합한 파생어로,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이'이므로, 'ㄴ' 음을 첨가하여 [흔니불]로 발음한다.

㉡ '하늬바람'의 'ㄴ'은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므로 'ㄴ'을 [ㄴ]로 발음한다. 따라서 [하니바람]으로 발음한다.

V 한글

DAY 25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가치 본문 133~135쪽

핵심만 바로 체크

1 (1) ○ (2) ○ (3) × 2 (1) 상형 (2) 세지는 (3) 모아쓰기

- (1) 'ㄹ'은 기본자의 모양을 달리하여 만든 이체자이다.
(2) 자음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따라서 비슷한 소리를 내는 문자는 그 모양도 비슷하다.
(3)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었고(상형의 원리), 기본자를 서로 합하여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합성의 원리).

- (1)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었고, 모음 역시 '하늘, 땅, 사람'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었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는 모두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2) 자음은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 가며 가획자를 만드는 데, 획을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진다.
(3)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여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시로 바로 연습

1 (1) ㉠ (2) ㉡ (3) ㉢ 2 (1) · (2) — (3) | 3 (1) ·, —, | (2) ㄴ, ㅌ, ㅍ, ㅊ (3) ㅍ, ㅌ, ㅍ, ㅌ

- (1) 'ㄹ, ㅎ, ㅅ'은 기본자의 모양을 달리하여 만든 글자로, 이체자이다.
(2) 'ㅋ, ㅌ, ㅍ, ㅊ, ㅎ'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로, 가획자이다.
(3) 'ㄱ, ㄴ, ㄷ, ㅅ, ㅇ'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로, 기본자이다.
- (1)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ㅇ'을 만들었다.
(2)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ㅡ'를 만들었다.
(3)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ㅣ'를 만들었다.
- (1)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 'ㅇ, —, |'를 만들었다.
(2) 기본자 'ㅡ'와 'ㅣ'에 'ㅇ'을 합하여 초출자 'ㄴ, ㅌ, ㅍ, ㅊ'를 만들었다.
(3) 초출자 'ㄴ, ㅌ, ㅍ, ㅊ'에 'ㅇ'을 결합하여 재출자 'ㄹ, ㅍ, ㅌ, ㅍ, ㅌ'를 만들었다.

기본 다지기

01 ① 02 ⑤ 03 ⑤ 04 ①

- 01 기본자 ‘ㄱ, ㄴ, ㄷ, ㅅ, ㅇ’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02 <보기>는 자음자의 가획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ㅇ → ㅎ’의 순서대로 가획을 하여 글자를 만들었다. ‘ㅇ’은 ‘ㅇ’의 가획자가 아닌 이체자이다.
- 03 재출자 ‘ㄲ, ㅋ, ㆁ, ㆑’는 초출자 ‘ㄱ, ㄴ, ㄷ, ㄴ’에 ‘ㆍ’를 더하여 만든 것이다. 기본자에 획을 더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는 자음자의 창제 원리에 해당한다.

지식 더하기

자음자와 모음자의 창제 원리

자음자	모음자
• 기본자(ㄱ, ㄴ, ㄷ, ㅅ, ㅇ):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 • 가획자(ㅋ, ㆁ, ㆑, ㆒, ㆓, 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들. • 이체자(ㅇ, ㄹ, ㅁ): 기본자의 모양을 달리하여 만들.	• 기본자(ㅏ, ㅑ, ㅓ, ㅕ):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 • 초출자(ㅗ, ㅛ, ㅜ, ㅠ, ㅡ): 합성의 원리에 따라 만들. • 재출자(ㅛ, ㅜ, ㅠ, ㅡ): 합성의 원리에 따라 만들.

- 04 ①은 풀어쓰기 방식, ②은 모아쓰기 방식이다. 한글은 ①과 같이 음절 단위로 글자를 모아쓰기하여 의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②~⑤에서도 한글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으나 <보기>의 내용과는 관련이 적다.

오답풀이 ② 한글은 자판을 사용할 때 빠르게 입력하기 쉬운,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문자이다.

③ 한글은 발음의 원리를 글자 모양에 반영해 원리를 이해하기 쉬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다.

④ 한글은 적은 수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많은 글자를 만들어 내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문자이다.

⑤ 한글은 기본자를 확장하여 가획자와 이체자를 만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다.

지식 더하기

모아쓰기

읽기도 편하고 의미를 파악하기에도 용이하다. 또 같은 양의 글이라도 지면을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한글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서 음절 단위로 모아씀. 예) 사과
로마자	자음자와 모음자를 음절 단위로 묶지 않고 음소 단위로 씀. 예) apple

실력 쌓기

01 ② 02 ④ 03 ④ 04 ⑤ 05 ② 06 ①

- 01 모음의 재출자 ‘ㅛ, ㅜ, ㅠ, ㅡ’는 각각의 초출자 ‘ㅗ, ㅛ, ㅜ, ㅠ’에 ‘ㆍ’를 합하여 만든 것이다.

- 02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이다.

오답풀이 ① ‘ㄷ’은 ‘ㄴ’에서 획을 하나 더해 만든 가획자이다. 가획자는 획을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지므로 ‘ㄷ’은 ‘ㄴ’보다 소리가 세게 난다.

② ‘ㄹ’은 기본자의 모양을 달리하여 만든 이체자이다.

③ 이체자는 소리의 세기와 관련이 없다.

⑤ 가획의 원리에 따라 ‘ㄴ’에서 한 획을 더해 ‘ㄷ’을 만들고, 두 획을 더해 ‘ㄷ’을 만들었다.

- 03 <보기>의 세 자음은 이체자에 해당하는 자음들로, 기본자의 모양을 달리하여 만든 것이다. ‘ㅇ’과 ‘ㅁ’은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ㄹ’은 현재도 사용하는 글자이다.

- 04 초출자는 ‘ㅗ, ㅛ, ㅜ, ㅠ, ㅡ’는 초출자는 ‘ㅗ, ㅛ, ㅜ, ㅠ, ㅡ’이다. 따라서 ‘양말’은 초출자 ‘ㅗ’와 재출자 ‘ㅛ’가 모두 쓰인 단어이다.

오답풀이 ① 모음자끼리 글자를 더하여 만든 글자인 ‘ㅐ’와 ‘ㅑ’가 쓰인 단어이다.

② 초출자 ‘ㅗ’만 쓰인 단어이다.

③ 초출자 ‘ㅗ’와 기본자 ‘ㅓ’가 쓰인 단어이다.

④ 기본자 ‘ㅗ’와 초출자 ‘ㅛ’가 쓰인 단어이다.

지식 더하기

모음자의 합성의 원리

초출자	재출자
ㅏ + ㅑ → ㅓ	ㅏ + ㅑ → ㅓ
ㅓ + ㅑ → ㅕ	ㅓ + ㅑ → ㅕ
ㅓ + ㅑ → ㅗ	ㅓ + ㅑ → ㅗ
ㅓ + ㅑ → ㅛ	ㅓ + ㅑ → ㅛ
ㅓ + ㅑ → ㅜ	ㅓ + ㅑ → ㅜ
ㅓ + ㅑ → ㅠ	ㅓ + ㅑ → ㅠ
ㅓ + ㅑ → ㅡ	ㅓ + ㅑ → ㅡ

- 05 ①은 가획이 아닌 합용으로, 모음자끼리 글자를 더하여 만든 것이다.

지식 더하기

병서의 종류

각자 병서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 중, 같은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것 ㉠ ㄱ, ㄴ, ㅁ, ㅅ, ㅈ
합용 병서	자음자 둘 이상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 중, 다른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것 ㉡ ㅁ, ㅂ, ㅅ, ㅈ 등

- 06 초출자는 기본자인 ‘ㅗ’와 ‘ㅛ’에 ‘ㆍ’를 합하여 만들고, 재출자는 초출자에 ‘ㆍ’를 합하여 만든 것이므로 가획의 원리가 아닌 합성의 원리이다.

01 ②

02 ④

03 볼, 발, 불, 벌

04 ④

05 ⑤

01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 ‘ㄱ’에 획을 더하여 만든 가획자는 ‘ㅋ’이다.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는 ‘ㄴ’이다. 이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든 가획자는 ‘ㅆ, ㅅ’이며, 이체자는 ‘ㄷ’이다. 따라서 ㉠은 ‘ㅋ’, ㉡은 ‘ㄴ’, ㉢은 ‘ㅆ, ㅅ’, ㉣은 ‘ㄷ’이다.

02 ‘ㅌ, ㅍ, ㅎ’은 가획자인 ‘ㄷ, ㅂ, ㅎ’에 획을 더하여 만든 가획자이다. 따라서 ㉠의 창제 원리는 가획의 원리이다. 한편 ‘ㄱ, ㅋ, ㆁ, ㆁ’은 초출자인 ‘ㄱ, ㅌ, ㅍ, ㆁ’에 ‘ㅇ’을 합하여 만든 재출자이다. 따라서 ㉡의 창제 원리는 합성의 원리이다.

03 첫소리로 올 ‘ㄹ’에 한 획을 더한 글자는 ‘ㄴ’이고, 가운데소리로 올 수 있는 초출자는 ‘ㄱ, ㅌ, ㅍ, ㆁ’이며, 끝소리로 올 이체자 ‘ㅇ, ㄹ, ㄷ’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ㄹ’이다. 따라서 이를 조합하여 나올 수 있는 글자는 ‘볼, 발, 불, 벌’이다.

04 <보기>에서 ㉠은 모아쓰기, ㉡은 컴퓨터 자판에서의 한글의 장점, ㉢은 모음자의 합용에 대한 설명이다. 그중 ㉡은 한글의 자음자는 14개, 모음자는 10개로 그 수가 비슷하여 컴퓨터 자판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적절히 배치할 수 있어 양손을 번갈아 가며 빠른 속도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컴퓨터 타자 속도가 빠르다는 한글의 장점을 알 수 있으나, 한글이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라는 것은 알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한글은 소리 낼 때를 고려하여 ‘행복’처럼 한글 자모를 음절 단위로 모아쓴다.

②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의미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③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컴퓨터 자판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자판에서 입력 속도가 빨라 정보 처리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⑤ 적은 수의 모음자를 조합하여 필요에 따라 많은 문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05 한글은 문자와 소리의 일치성이 뛰어나므로 음성 인식에 유리하다.

오답풀이 ① 한글은 <보기>의 ‘ㅌ’가 언제나 [ㅌ]로 소리 나는 것처럼 하나의 모음이 한 가지의 소리로 발음된다.

② 알파벳은 <보기>의 ‘a’가 [ㅏ], [ㅑ], [ㅓ] 등의 소리로 발음되는 것처럼, 하나의 모음이 다양한 소리로 발음된다.

③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릿값을 가지고 있어 배우기 쉽고 소리를 내기도 쉽다.

④ 한글의 문자와 소리의 일치성은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컴퓨터 등 한글 정보화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기출로 끝내기

본문 138~141쪽

- 01 ① 02 ② 03 ④ 04 ③ 05 ⑤ 06 ②
 07 ③ 08 ④ 09 소리 내는 방법 10 (1) 용언의 어간

받침 ‘ㄹ’ 뒤에 첫소리가 ‘ㄱ’인 어미가 올 때 된소리되기가 발생한
 다. (2)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ㄱ’이 올 때 된소리되기가 발
 생한다. 11 ③ 12 ⑤ 13 ③ 14 (1) 거센소리되기

(2) 구개음화 (3) 다치다 15 ⑤ 16 ③ 17 ‘ㄹ’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ㄴ, ㅅ’ 같이 조음 위치가 같은 자음을 가진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한다. 18 ④ 19 ⑤

20 ⑤ 21 ④ 22 ②

01 ‘장군[장군]’은 ‘ㅈ, ㅊ, ㅇ, ㄱ, ㅋ, ㄴ’의 6개 음운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임금[임금]’은 ‘ㄹ, ㅁ, ㄱ, ㅡ, ㅁ’의 5개 음운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오답풀이 ② 국어에는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ㅌ, ㅍ, ㅎ’ 19개와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10개, 이중 모음 ‘ㅘ, ㅙ, ㅚ, ㅜ어, ㅟ어, ㅞ어, ㅟ어, ㅟ어’ 11개를 합한 모음 21개가 있다.

③ ‘ㄱ’과 ‘ㅂ’이 ‘물’과 ‘불’의 뜻을 구별해 주듯,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④ ‘우유’는 모음 ‘ㅜ’와 ‘ㅠ’로만 이루어진 단어로,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다.

⑤ ‘밤’과 ‘밭’의 의미가 구별되는 것은 끝소리의 자음인 ‘ㅁ’과 ‘ㄴ’이 다르기 때문이다.

02 ‘쓰’는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인 윗몸소리이자,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인 마찰음이다.

오답풀이 ① ‘ㅁ’은 입술소리이자 비음이다.

③ ‘ㅋ’은 여린입천장소리이자 파열음이다.

④ ‘ㅎ’은 목청소리이자 마찰음이다.

⑤ ‘ㅅ’은 잇몸소리이자 마찰음이다.

03 ‘ㄱ’은 전설 모음이면서 저모음이지만, ‘ㄴ’은 후설 모음이면서 저모음이다.

04 ㉠은 원순 모음으로, ‘ㄱ, ㅋ, ㆁ, ㆀ’가 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의 ‘ㅐ’, ②의 ‘ㅑ’, ④의 ‘ㅡ’, ⑤의 ‘ㅣ’는 발음할 때 입을 평평하게 하는 모음인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05 ‘과’는 반모음 ‘ㄱ’와 단모음 ‘ㅏ’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오답풀이 ①, ③ 국어의 이중 모음은 ‘ㅟ, ㅡ, ㅤ, ㅥ, ㅧ, ㅨ, ㅪ, ㅫ, ㅬ, ㅭ, ㅯ’로 총 11개가 있다.

②, ④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으로,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06 첫소리는 여린입천장소리로, ‘ㄱ, ㅋ, ㅇ, ㆁ’이 있다. 가운데
소리는 이중 모음으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가 있다. 끝소리는 비음으로, ‘ㄴ, ㄹ, ㅇ’이 있다. 따라서 제
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글자는 ‘**꺽**’이다.

07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음절의 끝소리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으로 7개이다. 그 외의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이 7개 자음 중 하나의 소리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에 따라 ‘춧’은 음절 끝에서 [ㄷ]으로 발음하므로, ③의 ‘꽃’은 [꼇]으로 발음된다.

08 <보기>의 ‘숙모[송모]’는 앞에 오는 음절의 끝소리 ‘ㄱ’이 그 뒤에 오는 음절의 첫소리인 ‘ㅁ’을 만나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④의 [너는 모름지기 하거베 힘써야 한다]에는 아무런 음운 변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맞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만는]이 되고, 앞에 오는 음절의 끝소리 ‘ㄷ’이 그 뒤에 오는 음절의 첫소리인 ‘ㄴ’을 만나 ‘ㄴ’이 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만는]으로 발음된다.

② ‘흠만’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흑만]이 되고, 앞에 오는 음절의 끝소리 ‘ㄱ’이 그 뒤에 오는 음절의 첫소리인 ‘ㅁ’을 만나 ‘ㅇ’이 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흥만]으로 발음된다.

③ ‘꽃망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꽃망울]이 되고, 앞에 오는 음절의 끝소리 ‘ㄷ’이 그 뒤에 오는 음절의 첫소리인 ‘ㅁ’을 만나 ‘ㄴ’이 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꼇망울]로 발음된다.

⑤ ‘잇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잇는]이 되고, 앞에 오는 음절의 끝소리 ‘ㄷ’이 그 뒤에 오는 음절의 첫소리인 ‘ㄴ’을 만나 ‘ㄴ’이 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잇는]으로 발음된다.

09 ‘각막, 잡는, 닫는’이 각각 [각막], [잡는], [닫는]으로 발음되는 것은 파열음으로 발음되는 앞 글자의 끝소리가 뒤이은 글자의 첫소리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어 소리가 낮기 때문이다. 이는 앞 자음의 소리 내는 방법이 변한 결과이다.

10 <자료 1>의 ‘담고’가 [담:꼬]로 발음되는 것은, 용언의 어간 받침 ‘ㅁ’ 뒤에 첫소리가 ‘ㄱ’인 어미가 올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용언의 어간 받침 ‘ㄴ, ㅁ’ 뒤에 첫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오면 ‘신고[신:꼬], 감고[감:꼬], 품다[품:따], 젊지[젊:찌]’와 같이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한편 <자료 2>의 ‘먹을 것’을 [머글꺼썬]로 발음되는 것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올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된소리되기의 예로는 ‘갈 곳[갈꼐], 살 데[살떼가], 할 바[할빠], 만날 사람[만날싸람], 할 적에[할찌께]’가 있다.

11 ㉠은 ‘ㄹ’의 비음화, ㉡은 유음화의 예가 들어가야 한다. ‘동료’는 ‘ㄹ’의 비음화로 인해 [동뇨]로, ‘난리’는 유음화로 인해 [날:리]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① 권리[퀄리]: 유음화. 생략[생략]: ‘ㄹ’의 비음화

② 논리[놀리]: 유음화, 공리[공니]: ‘ㄴ’의 비음화

④ 먹물[멍물]: 비음화, 천리[철리]: 유음화

⑤ 심리[심니], 강령[강녕]: ‘ㄴ’의 비음화

12 <보기>는 구개음화에 대한 내용이다. ‘붙이다[부치다]’는 앞말의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구개음인 [ㅈ]으로 바뀌고, 앞 음절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는 연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② ‘잔디[잔디]’, ‘잡티[잡티]’에서 ‘디’와 ‘티’는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다.

③ ‘달맞이’가 [달마지]로 발음되는 것은, 연음 때문이지 구개음화 때문이 아니다.

④ ‘잇하다’가 [이치다]로 발음되는 것은, ‘ㅈ’과 ‘ㅎ’이 만나 [ㅊ]으로 축약되었기 때문이지, 구개음화 때문이 아니다.

13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음운의 축약’으로, ‘거센소리되기’가 이에 해당한다. ‘많다[만:타]’는 예사소리 ‘ㅎ’과 ‘ㄷ’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오답풀이 ① ‘실내[실래]’: 유음화(음운의 교체)

② ‘갈대[간다 → 간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음운의 교체)

④ ‘등받이[등바지]’: 구개음화(음운의 교체)

⑤ ‘받는대[반는대]’: 비음화(음운의 교체)

14 ㉠에서는 ‘달-’의 ‘ㄷ’과 ‘-히-’의 ‘ㅎ’이 만나 [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에서는 앞말의 끝소리 ‘ㅌ’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ㅈ]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구개음화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에서 [다치다]로 발음된다.

15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은 거센소리되기의 예이다. ‘산뜻하다’는 ‘뜻’의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발음되어 [산뜨하다]가 되고, [뜬]의 ‘ㄷ’과 [하]의 ‘ㅎ’이 만나 거센소리되기가 되어 [ㅌ]으로 바뀌어, [산뜨타다]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① ㉠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운의 교체로서, 음운의 개수를 바꾸지 않는다.

② ㉡은 된소리되기의 예이다. 된소리되기는 음운의 첨가가 아닌 교체에 해당한다.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③ ㉡은 음절의 첫소리에 놓인 자음이 바뀌지만, ㉠은 음절의 끝소리에 놓인 자음이 바뀐다.

④ ㉡의 된소리되기는 순우리말 단어, 한자어 등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16 겹받침 ‘ㅃ’은 음절 끝 또는 자음 앞에서 뒤 자음 ‘ㅂ’이 탈락하고 [ㅍ]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뵤-’은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하므로 ‘뵤다’는 [ㅃ:따]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① ‘넋’의 ‘ㄴ’은 뒤 자음이 탈락하여 [넉]으로 발음된다.

② ‘알’의 ‘ㅁ’은 앞 자음이 탈락하여 [암:]으로 발음된다.

④ ‘낱고’의 ‘ㄹ’은 앞 자음이 탈락하여 [ㄱ]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뒤 자음 ‘ㄱ’이 탈락해 [ㄹ]로 발음된다. 따라서 ‘낱고’는 [낱꼬]로 발음된다.

⑤ ‘없다’에서 ‘ㅃ’은 뒤 자음이 탈락하여 [업:따]로 발음된다.

17 ‘노는’은 어간 ‘놀-’과 어미 ‘-는’이, ‘사는’은 어간 ‘살-’과 어미 ‘-는’이, ‘아신다’는 어간 ‘알-’과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한 것이다. 이를 통해 ‘ㄹ’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이 ‘ㄴ, ㅅ’과 같이 조음 위치가 같은 자음을 가진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보기>는 ‘ㅎ’ 탈락에 대한 설명이다. ㉣에서 ‘그렇지[그러치]’는 예사소리 ‘ㅎ’과 ‘ㅈ’이 만나 거센소리 [ㅊ]으로, ‘않다[안타]’는 예사소리 ‘ㅎ’과 ‘ㄷ’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19 ‘잠가서’는 어간의 ‘-’가 어미 ‘-아서’ 앞에서 탈락한 ‘-’ 탈락의 예이다.

오답풀이 ① ‘꺼’는 어간의 ‘-’가 어미 ‘-어’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② ‘섰다’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서-’ 뒤에 동일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선어말 어미 ‘-었-’이 와서 그중 하나가 탈락한 것이다.

③ ‘커서’는 어간의 ‘-’가 어미 ‘-어서’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④ ‘담가’는 어간의 ‘-’가 어미 ‘-아’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20 ㉠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은 ‘ㄴ’ 첨가이다. ㉡의 ‘책 넣는다’에서 ‘책’은 음절의 끝소리 ‘ㄱ’이 그 뒤에 오는 음절의 첫소리 ‘ㄴ’을 만나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넣는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ㅎ’이 [ㄷ]으로 바뀐 후 뒤에 오는 음절의 첫소리 ‘ㄴ’을 만나 [ㄴ]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에서 ‘ㄴ’ 첨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21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반모음 첨가이다. ㉠의 ‘기- + -어’는 단모음 ‘ㅣ’와 단모음 ‘ㅣ’가 만날 때, ㉡의 ‘이- + -오’는 단모음 ‘ㅣ’와 단모음 ‘ㅗ’가 만날 때, ㉢의 ‘뛰- + -어’는 단모음 ‘ㅍ’과 단모음 ‘ㅣ’가 만날 때 모음 끼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모음 ‘ㅣ[j]’가 덧붙고 있다.

오답풀이 ㉢의 ‘자- + -아서’가 [자서]가 되는 것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동일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그중 하나가 탈락하는 동음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지식 더하기

모음 탈락

• ‘-’ 탈락: 모음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용언의 어간 ‘-’가 탈락함. 예) 담그- + -아 → 담가

• 동음 탈락: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동일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그중 하나가 탈락함.

예) 가- + -아서 → 가서

22 ‘멋지다[멋찌다]’에서 ‘멋’의 ‘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발음한다. ‘ㄷ’ 뒤에 연결되는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ㅈ]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단풍잎[단풍닙]’은 첨가(ㄴ 첨가)와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가 일어난다.

③ ‘뵤하다[뵤피다]’는 축약(거센소리되기)이 일어난다.

④ ‘직행열차[직갱널차]’는 축약(거센소리되기)과 첨가(ㄴ 첨가)가 일어난다.

⑤ ‘서른여섯[서른녀섯]’은 첨가(ㄴ 첨가)와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가 일어난다.

II 단어

기출종 끝내기

본문 142~145쪽

- 01 ⑤ 02 ① 03 ④ 04 ① 05 ⑤ 06 ②
07 (1) 문장 안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2)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3)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08 ⑤ 09 ④
10 ⑤ 11 ⑤ 12 ③ 13 ④ 14 ① 15 ③
16 ② 17 ③ 18 ㉠ 반의 ㉡ 발음과 형태 ㉢ 의미(뜻)
19 ②

01 품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관계언은 문장 속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말하며 조사가 관계언에 속한다. 감탄사는 독립언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품사는 문장 안에서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뉜다.

② 품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체언이나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를 수식언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③ 품사를 기능에 따라 분류할 때 용언은 서술어로 쓰이는 단어를 말한다. 이러한 용언은 의미를 기준으로 대상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대상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나뉜다.

④ 용언이 문장에서 쓰일 때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여 용언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이처럼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단어를 가변어라고 한다.

02 밑줄 친 단어들은 명사(잠), 대명사(우리), 수사(첫째)로, 모두 체언이다.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03 '빛나고(빛나다), 먹었다(먹다), 뛰는(뛰다)'은 대상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예쁜(예쁘다), 달콤한(달콤하다), 하얀(하얗다)'은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04 동사는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치는 자동사와, 움직임이 목적어에 미치는 타동사가 있다. ㉠의 '부르다'는 움직임이 목적어 '노래'에 미치고 있으므로 타동사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은 '아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③ ㉢은 사람 또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④ ㉣과 ㉤은 주어 '아이가, 얼굴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⑤ ㉥은 '부르면, 부르니'처럼 ㉤은 '하얗게, 하야니'처럼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05 <보기>는 부사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동사 '떠났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오답풀이 ① '새'는 명사 '가방'을 꾸미는 관형사이다.

② '따뜻한'은 형용사 어간 '따뜻하-'에 어미 '-ㄴ'이 결합한 것이다.

③ '놀고'는 동사 어간 '놀-'에 어미 '-고'가 결합한 것이다.

④ '모자'는 명사이다.

06 '에게'는 앞의 체언이 부사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부사격 조사로, 격 조사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만'은 '한정'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이다.

③ '은'은 '대조, 강조'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이다.

④ '도'는 '더함, 역시'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이다.

⑤ '까지'는 '더함'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이다.

07 감탄사는 문장에서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또한 감탄사는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므로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08 '아(감탄사), 갑자기(부사), 소나기(명사), 가(조사), 마구(부사), 쏟아지네(동사)'로, 독립언, 수식언, 체언, 관계언, 용언이 포함된 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그래(감탄사), 참(부사), 잘됐다(동사)'로, 독립언, 수식언, 용언이 포함된 문장이다.

② '벌써(부사), 하루(명사), 가(조사), 갔다(동사)'로, 수식언, 체언, 관계언, 용언이 포함된 문장이다.

③ '새(관형사), 옷(명사), 을(조사), 선물(명사), 받았어(동사)'로 수식언, 체언, 관계언, 용언이 포함된 문장이다.

④ '두(관형사), 사람(명사), 밖에(조사), 안(부사), 왔어(동사)?'로 수식언, 체언, 관계언, 용언이 포함된 문장이다.

09 동사의 활용형인 '할'을 꾸며 주는 '못'의 품사는 부사이다.

10 '로써'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격 조사이다.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는 '로써'를 쓴다.

11 의존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로 반드시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인다. 이 문장에 사용된 의존 형태소는 '는, 맨-, 로, 에서, 뛰-, -어, 놀-, -았-, -다'이며, 자립 형태소는 '아이, 발, 잔디, 밭'이다.

오답풀이 ① '아이, 잔디, 밭'은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이다.

② '아이, 발, 잔디, 밭, 뛰-, 놀-'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 형태소이다.

③ '는, 로, 에서, -어, -았-, -다'는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다.

④ '아이, 는, 맨발, 로, 잔디밭, 에서, 뛰어놀았다'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아이, 맨발, 잔디밭, 뛰어놀았다') 또는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는, 로, 에서')인 단어이다.

12 '꽃밭'은 '꽃'과 '밭'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고, '장미'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한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오답풀이 ① '꽃밭, 예, 예쁜, 장미, 가, 피었다'의 6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②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것은 '꽃, 밭, 장미'로 3개이다.

④ '피었다'는 '피- + -었- + -다'로 분석할 수 있다.

⑤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태소는 '예, -ㄴ, 가, -었-, -다'로 5개이다.

13 '군-'은 어근에 붙어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므로, ㉠은 '접사'가 적절하다. '군소리'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은 '파생어'가 적절하다. ㉢은 파생어의 다른 예이므로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을 뜻하는 접사 '풋-'과 어근 '고추'가 결합한 '풋고추'가 적절하다. '돌다리'는 어근 '돌'과 어근 '다리'가 결합한 합성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14 '물', '방울', '고집', '손'은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근이다.

오답풀이 ②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는 조사이다.
③ 어근에 붙어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접사이다.
④ 모두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형태소에 해당한다.
⑤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으로, 단어를 형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15 ㉢에서 형용사 어근 '조용-', '고요-', '나란-'에 결합한 접사 '-히'는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품사를 바꾸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은 형용사 어근 '높-', '깊-', '길-', '넓-'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품사를 명사로 바꾼 경우에 해당한다.
② ㉡은 어근 '잡-', '안-', '떨-' 뒤에 접미사 '-히-', '-기-', '-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④ ㉣은 어근 '높다, 웃음, 빨갈다'의 앞에 접두사 '드-', '헛-', '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⑤ ㉤은 접두사 '드-'가 '심하게' 또는 '높이'의 뜻, 접두사 '헛-'이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 접두사 '새-'가 '매우 질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16 '가다'는 '원래의 상태를 잃고 상하거나 변질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모양이나 모습이 달라지거나 바뀌게 되다'를 의미하는 '변모(變貌)되다'가 아니라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하게 되다'라는 뜻의 '변질(變質)되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7 '순삭(순간 삭제), 문상(문화 상품권)'은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줄임말로, 사회 방언에 해당한다.

18 (가)에서 영수가 사용한 '밖'과 지영이 사용한 '안'은 그 의미가 서로 반대되므로 반의 관계에 있는 말이다. (나)의 영수와 지영이 사용한 두 '타다'는 동형이의어이므로, 발음과 형태는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뜻)로 사용되었다.

19 '눈'의 중심적 의미는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③ '사람들의 눈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④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이라는 뜻으로, '시력'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⑤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III 문장

본문 146~150쪽

기출로 끝내기

01 ④ 02 우리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상대가 나와 동등하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03 ② 04 ④
05 ② 06 ① 07 ⑤ 08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09 ① 10 ②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③ 16 서술어로 동사만 올 수 있고, 형용사는 올 수 없다. 17 ②
18 ② 19 (1) 이웃집 아주머니 (2) 드렸다. 20 ④
21 ⑤ 22 ① 23 ④ 24 ⑤ 25 ㉠: 시간 표현, ㉡: 인용격 조사 26 ② 27 관객들이 다는 도착하지 않았다. 28 ④

01 문장의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이다. '나는 요리사가 되었다.'는 주어 '나는', 보어 '요리사가', 서술어 '되었다'로, 주성분로만 이루어진 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부사어 '무척'은 부속 성분이다.
② 부사어 '빨리'는 부속 성분이다.
③ 관형어 '작은', 부사어 '높이'는 부속 성분이다.
⑤ 부사어 '천천히', '집에'는 부속 성분이다.

02 제시된 문장은 '나와 동등하게 소중하다'의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앞 문장을 참고하여 주어 '상대가'를 추가해야 한다.

03 ㉠의 '나무가'는 제시된 문장의 주어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그, 창문'은 관형어, '밖으로, 얼핏'은 부사어로 부속 성분이다.

04 문장에서 문장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주성분은 ㉠, ㉡, ㉢, ㉣이고, 이 중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은 ㉠, ㉡, ㉣이다. 그중에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역할을 하는 주어는 ㉠, ㉣이고, 특별한 의미만을 더하는 보조사와 결합한 것은 ㉢이다.

05 ㉠의 '넣었다'는 주어 '그녀는', 목적어 '책울', 부사어 '가방에'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며, ㉡의 '주었다'도 주어 '그녀는', 목적어 '선물울', 부사어 '나에게'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풀이 ㉢ '잡다'는 주어 '그녀는'을 필요로 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 '되었다'는 주어 '그녀는'과 보어 '선생님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가르쳤다'는 주어 '그녀는'과 목적어 '학생들을'을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06 '꽤'는 문장에서 관형어 '많은'을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오답풀이 ②의 '한'은 체언 '옷'을, ③의 '온'은 체언 '가족'을, ④의 '모든'은 체언 '소망'을, ⑤의 '소중한'은 체언 '추억'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 07 서술어 '주셨다'는 주어 '선생님께서', 목적어 '선행상을', 필수적 부사어 '한나에게'를 필요로 한다.

오답풀이 ①의 '아빠와', ②의 '학교에서', ③의 '막대기로', ④의 '오전'에는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지 않는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한 부사어이다.

- 08 '유리야'는 체언 '유리'에 호격 조사 '야'가 붙어 성립된 독립어로,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 09 '나는 아침에 운동을 했다.'는 주어 '나는'과 서술어 '했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오답풀이 ②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으로 겹문장이다.
③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겹문장이다.
④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겹문장이다.
⑤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겹문장이다.

- 10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봄이 오다.'와 '꽃이 핀다.'가 조건의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홑문장이다.
③ '소리도 없이'라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④ '그가 오기'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⑤ '머리가 아프다'라는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11 <보기>는 '지렁이는 혐오스러워 보인다.'와 '지렁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등 공신이다.'의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므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어 '그렇지만'으로 연결해야 자연스럽다.

- 12 ㉠에서는 '소리가 없다.'에 부사 형성 접사 '-이'를 붙여 부사절 '소리 없이'를 만들고, 서술어 '돌아왔다'를 꾸미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바꾸면 '그들이 소리 없이 돌아왔다.'가 된다.

- 13 '수희가 현기와 결혼한'이 관형사절로 안겨 있지만, 이 문장은 '수희가 현기와 결혼했다.'가 관형사절로 바뀌어 안긴 것이므로,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은 생략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주어 '내가'가 생략되었다.
② 목적어 '피아노를'이 생략되었다.
③ 주어 '내가'가 생략되었다.
④ 주어 '화가'가 생략되었다.

- 14 ㉠에서 안긴문장인 '내가 가장 의지하는'은 체언 '친구'를 수식하는 관형사절이다.

오답풀이 ① ㉠은 '주어(도훈이는)+주어(마음씨가)+서술어(착하다)'의 구조이다.
② ㉠에서 안긴문장 '마음씨가 착하다.'는 주어 '도훈이는'의 서술어로 기능한다.
④ ㉠은 '아버지께서 먼저 식사하시기'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⑤ ㉠의 안은문장은 '주어(나는)+목적어(아버지께서 먼저 식사하기를)+서술어(기다렸다)'의 구조이다.

- 15 '진수는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었다.'에서 '배가 터지도록'은 서술어 '먹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문장은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말도 없이'라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② '키가 크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④ '네가 항상 행복하기'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⑤ '자신이 가장 빨리 왔다고'라는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16 ㉠의 명령문과 ㉡의 청유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이므로, 서술어로 동사만 올 수 있고 형용사는 올 수 없다.

- 17 ㉠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문이다.

- 18 ㉡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을 하여 대답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종결 표현의 형식과 기능이 일치한다.

오답풀이 ①, ③, ④, ⑤는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모두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형식과 기능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 19 객체 높임법으로 문장의 부사어인 '이웃집 아주머니'를 높이는 문장이다. 따라서 '주다'의 높임 표현인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드렸다'로 고쳐야 한다.

- 20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방법으로, <보기 1>에서는 접사 '-님', 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어인 '사장님'을 높이고 있다.

- 21 <보기>는 과거 시제에 대한 설명이다. ㉡의 '했던'은 어간 '하-'에 선어말 어미 '-었-'과 관형사형 어미 '-던'이 붙어서 실현된 과거 시제이다.

오답풀이 ① 선어말 어미 '-ㄴ-'이 붙어 실현된 현재 시제이다.
② 선어말 어미 '-겠-'이 붙어 실현된 미래 시제이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붙어 실현된 미래 시제이다.
④ 시간 부사어 '지금'이 사용되어 실현된 현재 시제이다.

- 22 <보기>는 선어말 어미 '-았-'을 활용하여 실현된 과거 시제이며, 연결 어미 '-(으)면서'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화를 보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상에 해당한다.

- 23 ㉡의 '지워지지'는 '지우- + -어지다'가 결합한 것으로, (나)의 ㉠에 따른 피동 표현이다.

오답풀이 ① '잡혀지지'는 '잡히- + -어지다'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하므로 '잡히지'로 고쳐 써야 한다.
② '보여진다는' '보이- + -어지다'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하므로 '보인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③ '민겨지지'는 '민기- + -어지다'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하므로 '민기지'로 고쳐 써야 한다.
⑤ '생각되어진다는' '생각되- + -어지다'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하므로 '생각된다'로 고쳐 써야 한다.

24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는 행위를 하게 한 ㉠가 사동 표현이다. ㉠~㉣는 모두 피동 표현이다.

25 <보기>에 제시된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어제 용호가 오늘 보자고 말했다.'가 된다. 이때 시간 표현 '내일'이 '오늘'로, 인용격 조사 '라고'가 '고'로 바뀐다.

26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은 '안' 부정문에 해당한다. ㉠은 '안' 부정문이자 부정 부사 '안'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이고, ㉡은 '안' 부정문이자 '-지 않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이다.

오답풀이 ㉢ '못' 부정문이자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으로, 주체의 능력 부족에 의한 부정을 표현한다.

㉣ '못' 부정문이자 '-지 못하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으로, 상황에 의한 부정을 표현한다.

27 부정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보조사를 넣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은 '관객들이 다는 도착하지 않았다.'로 고쳐 쓸 수 있다.

28 (나)에서 ㉢은 시험을 잘 보라는 어머니의 말에 시험을 잘 보겠다고 대답한 것이므로 어머니의 의도를 잘 파악한 대답이다.

IV 국어의규범

기출로 끝내기

본문 151쪽

- 01 ㉣ 02 ㉡ 03 ㉣ 04 ㉢ 05 ㉡
06 ㉠: 의자에, ㉡: 띠우려고

01 파생어 '푹푹'과 '울음'은 각각 [푹푹], [우름]으로 발음되지만 어법에 맞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예이다.

오답풀이 ① 합성어 '낮잠[낮잠]'과 파생어 '얼음[얼름]'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이다.

② 파생어 '이파리[이파리]'는 소리대로 적은 예이며, 합성어 '눈물[눈물]'은 소리대로 적음과 동시에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이다.

③ 파생어 '반팔[반팔]'은 소리대로 적음과 동시에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이며, 파생어 '헛웃음[허두슴]'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이다.

⑤ 합성어 '손발[손발]'은 소리대로 적음과 동시에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이며, 합성어 '꽃나무[꽃나무] → 곧나무'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예이다.

02 '경쟁울'은 'ㅇ' 받침 뒤에 '울'이 이어지므로 <보기>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쟁률'로 적는 것이 옳다.

03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따르면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에는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④의 '깨끗이'는 '-하다'가 붙는 어근 '깨끗'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므로 어근의 원형을 밝혀 '깨끗이'로 적는 것이 옳다.

오답풀이 ①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으므로 '살살이'로 적는 것이 옳다.

② 'ㅅ' 뒤에 '-었-'이 어울려 '냈'이 될 적에도 준 대로 적으므로, '냈다'로 적는 것이 옳다.

③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으므로, '잔뜩'이 옳다.

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으므로 '돌아가다'로 적는 것이 옳다.

04 '발이랑에 씨앗을 심었다.'의 '발이랑'은 어근 '발'과 어근 '이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발이랑'은 받침 'ㄷ' 뒤에 모음 'ㅣ'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때 'ㅣ'는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이 아니므로 제17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발이랑[반니랑 → 반니랑]'으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걸이 하얏다.'의 '걸이'는 명사 '걸'에 조사 '이'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제17항에 따라 [거치]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집에 같이 가다.'의 '같이'는 용언의 어간 '갈-'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제17항에 따라 [가치]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벽보를 붙이다.'의 '붙이다'는 용언의 어간 '붙-'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제17항에 따라 [부치다]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달려오는 자전거에 받히다.'의 '받히다'는 어근 '받-'에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제17항에 따라 [바치다]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풀이 ①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는 경우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쓰므로, '듯도 하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③ 의존 명사는 띄어 쓰므로 '먹을 만큼'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④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므로, '한 송이'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⑤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는 띄어 쓰므로, '김성현 씨'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06 (1)의 '의자에'에서 '의'는 제5항에 따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2)의 '띄우려고'에서 '띄'는 자음 'ㄷ'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므로 이때 'ㄷ'은 [ㅣ]로 발음한다. 따라서 ㉠은 [의자에], ㉡은 [띄우려고]로 발음한다.

지식 더하기

모음 'ㅣ'의 발음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ㅣ'는 [ㅣ]로 발음한다.

예) 무늬[무니]

• 단어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예) 주의[주의/주이], 우리의[우리의/우리에]

V 한글

기출로 끝내기

본문 152쪽

- 01 ⑤ 02 ④ 03 ③ 04 애민 정신, 창조 정신
05 ④

01 한글 자음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다. ‘ㅇ’은 발음할 때 동그랗게 열리는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

02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든 글자로, 획을 더할 때마다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 이체자는 기본자의 모양을 달리하여 만든 글자이다.

03 초출자는 ‘ㄱ, ㅋ, ㆁ, ㆑’이며, ‘수고’는 초출자로만 쓰인 단어이다.

오답풀이 ① ‘아침’은 초출자(ㅏ)와 기본자(ㅣ)가 쓰인 단어이다.

② ‘저녁’은 초출자(ㅓ)와 재출자(ㅓ)가 쓰인 단어이다.

④ ‘직후’는 기본자(ㅣ)와 초출자(ㅓ)가 쓰인 단어이다.

⑤ ‘대기’는 합용자(ㅐ)와 기본자(ㅣ)가 쓰인 단어이다.

04 ㉠에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와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는 점이 드러나 있다. 즉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글을 몰라 말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글자를 만들었음을, 또한 새롭게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을 위하는 ‘애민 정신’과 새로운 문자를 만든 ‘창조 정신’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5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음절 단위로 조합하여 적는 모아쓰기 방식을 사용해 의미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